



10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10호

(루계 456)



◆◆◆◆◆◆◆◆◆◆ 차 례 ◆◆◆◆◆◆◆◆◆◆

당을 우리러 부르는 노래.....	4
해방산기슭의 작은 집	5
또다시 북변땅에서 (외 1 편)	5
영광의 자리	6
당의 향도아래 40 년	7
더 높은 창작성 과로...	15
세월을 넘어	16
내 자라난 트랙.....	23
인민의 념원	24
인민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	24
영원히 향도성 우리러	25
간절한 마음	25
첫 걸음	26
잊을수 없는 일요일	26
나의 손	27
사랑의 자리	27
참된 삶의 노래	28
우리 당의 향도아래 만발한 주체문학의 대화원	29

추억.....	33
기쁨.....	34
가사에서 시적발견과 형상성 문제	39
신사동의 새 전설	41
우리 어머니	50
봄날의 눈꽃 (외 2 편).....	51
못잊을 사과	51
혈 맥.....	52
하늘엔... 땅우엔...	52
《꽃다발치녀와 함께》	53
골목길의 발걸음소리	55
내 집으로 오는 길	60
행진곡 1 번	61
잊지 못할 전우여	68
나에게 다오	69
청춘과 행복	69
미 소.....	70
앞서걸은 자욱.....	70
개통렬차 달리는 그날에.....	71
까 치	72
백두산의 여름길	73
랑 만 (외 2 편).....	74
하늘이 웃네 바다가 웃네.....	74
겨울나라에 왔노라	74
땅과 함께	75

시문학의 서정성에 대한 생각	76
내 한생 못잊는것은	80
배 낭	80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장수길

청신한 10월의 하늘가에
장엄하게 비껴오는 백두의 붉은 노을은
새날을 안아오고
찬란한 향도의 해발
눈부시게 퍼져오르는 이 강산에
노래가 넘쳐흐른다

태양의 노래를 부르며 40년
이 땅을 꽃피워왔고
향도성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 한끝까지 가고갈
이 하나의 길우에서
위대한 당을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영광의 노래여

나래치는 푸른 기상으로
창창한 저 하늘을 열어가고
찬연한 향도의 빛발로
수령님의 혁명위업 누리에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아, 세기를 틀어쥔 담력
천만리에 빛발치는 예지
높이 추켜든 령도의 손길을 따라
수송렬차의 기적소리는 강산에 메아리치고
검덕의 대밭파소리는
지심을 뒤흔든다

우렁찬 그 소리에
《80년대속도》 나래치는가
언제나 《E. C》의 정신은 불타
시련 많던 전후의 그 나날에도
준엄한 눈보라를 헤치며
강철로 당을 보위한
강선의 드림없는 신념으로
철의 기지는 뚫어번지고
당의 의지와 열정의 음향은
조선의 도도한 준엄으로 굽이쳐
구내길에 숭엄하게 새겨진
향도의 자욱따라 룡성의 심장에서
1만톤 프레스가 태어난다

인민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고

위대한 우리 당이 걸어난 자욱자욱
온 나라에 숭고하게 새겨져있어
이 강산의 노래 끝이 없는가

자주의 그 노래
창조의 그 노래
가슴가슴에 울려
파도 사나운 20리 날바다엔
시대의 기념비 솟아나고
산악을 뚫고 준령을 넘어
은빛 궤도는 뻗어간다

산야를 적시는 강물처럼
그 노래
이랑이랑 천리벌에도 울려퍼져
만풍년의 나락은 물결치고
1,500만톤의 알곡 메부리 바라보며
정다운 발동소리는
들길에 넘치여라

금지에 넘쳐라
수령님을 따라 당과 함께
시련의 불바다를 헤쳤고
재가루 날리는 빈터우에
락원의 거리거리를 세우며
참다운 삶과 승리의 노래를 안고
세월의 풍파를 넘어
우리 걸어온 영광의 천만리

오늘도 좋지만
더 좋은 래일의 휘황한 전망
저 높은 언덕에 열려있어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하나로 굳게 뭉치며
우리 걸어갈 희망찬 천만리

주체의 해볼로
력사의 지름길을 개척해나아가고
친근하고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로
행복의 지붕밑에
인민의 천만소원 다 꽃피우며
가야 할 혁명의 길을 해빛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여 !

아, 진정 당이 있어
백전백승의 조선혁명이 있고
세기에 빛나는 주체의 내 조국도
만대에 양양한 미래도
밝아올 통일의 새아침도 있나니

가리라
당의 뜻을 받들어

당과 인민은 언제나 하나임을
력사에 떨치며

가리라 인민은
세기에 빛나는 우리 당의 해빛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진필길이 천리라도 억센 걸음으로
노도쳐가리라 가고가리라

해방산기슭의 작은 집

송찬웅

해방산기슭
나지막한 언덕에
아담한 창문이 달린 벽돌집 한채
불수록 수수하구나, 만경대 고향집처럼

초가집 사립문도 해방의 감격 안고
스무해 쌓이고쌓인 그리움에 젖어
장군님 들어서실 그 시각을 기다리고
모란봉개선평장 서울의 역전광장도
장군님 높이 모실 그 시각을 애타게 기다렸건만
아, 소문도 없이
평양에 입성하신 우리 수령님
여기 수수한 2층 합숙집에서
항일의 초연내 스민 군복차림으로
당창건의 분망한 나날을 보내셨나니

어디냐!
그립던 고향의 갈림길 지나
강선에 다녀오신 그 저녁에도
당창립대회 보고를 쓰신 방은,
밤새 불빛이 흐르던 그 창문은

우러르면
잠시도 쉼을 모르시고
깊은 사색을 달리시던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안겨오는듯

저 멀리 어둡던인 광야에
《ㄷ. ㄷ》의 기발이 노을처럼 타오른
화전의 언덕에서 해방산기슭까지

우리 당의 뿌리를 안아키우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시였던가

아늑한 서재에서가 아닌
카륜의 버들방천 불밝은 농가에서
남호두의 성에불린 귀틀집을 거쳐
백두밀영 사령부를 여기로 옮겨놓으신듯
한밤을 지새우신 수령님!

이른새벽
보고의 마지막 집필을 끝내시고
창문너머 동녘하늘을 바라보실 때
꼭절 많은 우리 혁명력사에 새 장을 펼칠
위대한 아침은 푸름푸름 밝아왔나니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10월 10일 력사의 이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곧바로 당창립대회장으로 가신것을

아, 락원의 이 강산에
하늘은 푸른 만리 아득히 열리고
노을은 붉은 만리 저리도 불타는것은
10월의 그 아침에서 비롯한것 아닌가

세월은 흐르고
큰 집들 무수히 일떠서도
이 가슴에 높이 솟아 빛나는 요람의 집
아, 잊지 못할 해방산기슭의 작은 집어여!

또다시 북변땅에서 외 1 편

리일복

또다시 그 땅을 걸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점의 불꽃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
온 나라에 지피시던 그 북변땅을-

줄지어 기계가 쏟아져나오는
기계공장에도 기계이 들리고
대야금기지의 한복판에서
강재의 불흐름도 만족히 보아주시고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진수식을 기다리는 섬같은 배들이
사열받듯 늘어선 부두가로,
대형포인양 굴진기들이
출발준비를 갖춘 구내길로...

건고걸으시며
깊으신 생각, 깊은신 구상 무르익히시더니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허물없이 말씀하셨다
아들딸들과 가정일 의논하는 아버지처럼

기계가 모자라던 때에도 해냈는데
현대적 기계로 가득찬 땅에서
이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다시 한번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전군중적으로 벌려보자고...

가슴들은 높뛰었다. ,
그전날 보통 선반공이었던
오늘의 연합기업소 당비서의 가슴이
기계새끼치기 명수였던
오늘의 기계공정 지배인의 가슴이-

위대한 선언처럼
새 전투명령처럼
그이의 말씀은
심장과 심장들을 세차게 두드렸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 아무리 커도
아버이수령님 생각속엔
모자란것만 같으시여,
우리 공업이 아무리 높이 올라섰어도
그이의 생각속엔
너무도 성차지 않으시여

또다시 더 큰 걸음으로
비약하고 돌진할 조국의 앞길에
새 리정표를 안겨주시었나니

아버이수령님의 한마디 명령속에
천년 미래가 앞당겨지고
만년 조국의 부강이 이룩되고
천만리 혁명의 큰걸음 내디디건다

앞으로! 공업의 강국이어!
기계의 발로
더 큰걸음 내디디며
기계의 숨결로
시대를 주름잡으며
기계의 산악으로
인민의 더 큰 행복 마련된
부강조국을 높이 이끌어올리며-

영광의 자리

바로 이 기대앞에서
단발머리 처녀시절
혁신자 선반공 나의 어머니
아버이수령님을 만나뵈웠어요

기름 묻은 손 꼭 잡아주시며
나어린 처녀가 일 잘한다고
그이께서 치하해주실 때
아, 세상 모든 행복이
다 이 기대앞에 모여온듯했대요

바로 이 기대앞에서
단발머리 나어린 선반공인 나는
오매에도 그리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웠어요

먼 북변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던 그이
내 기대앞에서 발걸음 멈추셨어요
깎은 부속도 만져보시고
내 등을 다정히 두드려도 주시며...

온 가정이 기계를 다루는
《기계집안》이라 치하해주실 때
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것 같았어요

기대앞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 그리운 그이를
그처럼 몸가까이 만나뵈울수 있겠나요

나는 느꼈어요
대를 이어 기대를 돌리며
혁신을 펼치는 바로 그곳이
다름아닌 당중앙위원회에
가장 가까이 서있는 위치

불꽃튀는 기대앞이 바로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느때건 몸가까이 만나뵈울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높은 자리예요

당의 향도아래 40년

강능수

오늘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맞이하여 당의 해빛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주체문학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당이 창건된지 40년, 길지 않은 그 년간에 이 땅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변들과 변혁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것인가!

이 모든 승리와 기적들은 원쑤 미제와 날카롭게 대치된 첨예한 환경속에서 수행되었다.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은 사상분야, 특히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에 예민하게 작용하는 문학분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부르조아반동문학은 비롯하여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도 하였고 사대주의와 복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하였다.

이 첨예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문학은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범함없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곧바로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오늘은 인류문학을 빛내이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높이 발전해왔다.

오늘 우리가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은 40년대 중엽에 새 문학, 주체문학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 문학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한세기도 아닌 불과 몇십년후인 1970년대에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그를 이어 80년대에 더욱 찬란히 꽃피고있는것이다.

모든 정신문화의 발전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해방후 조선문학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몇몇 작가들의 재능이나 힘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문예정책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당의 령도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사업을 당이 진행하는 거창한 혁명투쟁과 련결시키고 온갖 부르조아사상의 침습과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부터 그들을 보호 및 해방하게 하며 온갖 창작조건을 보장하는 등 총체적으로 작가, 예술인들의 재능과 개성을 활짝 꽃피우게 함으로써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이며 그 령도의 세련성과 현명성은 바로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시며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

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해방후 우리 문학의 역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승리의 력사라고 소리높이 자랑한다.

우리 문학의 40년의 력사는 또한 위대한 스승의 손길에 이끌리워 창조적 환상과 열정에 불타며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여온 자랑스런 령도의 력사이며 어머니당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우리 작가들이 공산주의투사, 혁명가로 자라온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이다.

×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은 새 사회 건설과 함께 새로운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문학과 예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여야 한다는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에서뿐만아니라 새 사회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여기서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이 그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서 민족적인 새로운 민족문학예술건설을 지향하게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의 견지에서 보나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합법칙적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지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내놓게 된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발전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어떤 원칙과 사상들을 제시하였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시종 동요없이 견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성과가 좌우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는것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문학예술창조사업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우리 인

민의 취미와 구미에 맞게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만 문학예술창작사업에서 시대정신과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리익과 조선인민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으며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진 투사, 애국자의 위치에 서게 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청산하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예술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한편 작가, 예술인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튼튼히 서서 조선의 공산주의자,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서와 구미에 맞는 문학으로 발전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하여왔다.

당과 로동계급, 인민대중의 관점과 립장을 고수하고 당과 로동계급,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명위업에 대한, 혁명의 전위부대인 로동계급의 당에 대한 충실성, 신념,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 당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새 문학예술건설을 위한 중요원칙으로 제시하였을뿐아니라 혁명이 심화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될때마다 그것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 어떤 이색적인 요소도 발을 붙일수 없었으며 미체가 것처럼 류포하려고 시도한 부르조아반동문학예술의 침투도 미연에 방지되고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예술로 활짝 꽃피울수 있었다.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문제는 문학예술을 그 사명과 본성에 맞게 발전시키며 작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력사적경험은 사상성만 중시하고 예술성을 경시하면 문학예술은 말그대로 사상을 전달하는 전성관으로 되고 자기의 본성을 잃게 되며 반대로 예술성만을 중시하고 사상성을 경시하면 형식주의를 범하게 되며 나중에는 당성, 로동계급성을 거부하는 수정주의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우리 당은 사상성의 선차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제고에 의한 량자의 고르로운 결합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문학은 40년의 력사에서 좌우경을 모르고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더욱 강하여진 사상성을 가진 문학으로 건전하게 발전하여온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들을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제시하여주었다.

로동계급의 당이 새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사업은 인류문학예술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사업인것만큼 여기에서는 창작실천적으로 제기되는 허다한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 특히 긍정적전형을 빛나게 창조하고 생활의 진실을 옹바로 구현하는 문제 등이다.

이것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사상사업의 기본과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인간들로 교양육성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것은 당 사상업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인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사람들을 혁명가, 투사로 키워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을 력사상 처음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었다.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의 본질을 인식하고 증오하는 세계관형성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착취사회를 때려엎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서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게 되며 또한 부단한 실천과 혁명적수양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품모를 갖추어야 완성되게 된다.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과 완성에 관한 이 탁월한 사상은 력사적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적세계관의 형성 및 완성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사람들의 의식장성, 세계관의 형성 및 완성의 합법칙성을 밝힌것으로서 당사상사업, 학교교육,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문학예술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생활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사회주의사상의 승리를 확인하는것만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생활에 대한 인식과 사회주의사상의 확인에 머무를 수 없으며 나아가서 평범한 인간을 힘있는 존재로, 누구나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서면 혁명가, 투사가 될 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의 형성 및 완성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바로 문학예술로 하여금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생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한다는데 그 본질적특징이 있다.

혁명적세계관의 형성 및 완성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다음으로 생활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깊이있게 형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문학예술이 생활을 그 발전속에서 그린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성격의 장성과정, 운명에서의 변천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성장과 그 운명에서의 변천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관의 형성과정과 일치하는것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 전형을 옹게 창조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어서 전형성문제가 중심고리를 이루고있는것만큼 새로운 사회주의하에서 어떤 전형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형창조에서 궁정을 기본으로 내세워야 하며 하나의 긍정적전형을 잘 창조하여 천만사람을 교양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는 긍정적이것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긍정적이것을 따르려는것이 하나의 사회적지향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긍정적인 전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사상으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전형화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긍정적모범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혀주는 심오한 사상은 전형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여주며 현실생활속에서 전형적인것, 모범적인것을 찾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노력을 강화하게 하고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생활반영의 진실성이다.

진실성은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이며 그의 사상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적초이다. 예술적진실성은 어디까지나 생활에 기초한것이며 생활의 진실에 의거한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사회에서 변천된 생활의 내용을 정확히 리해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성격과 내용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계급사회에서 적대계급의 대립과 충돌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며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투쟁이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된다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은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이며 또 그것이 사회발전을 추진시키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성격과 내용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갈등의 성격과 그 전개방식, 그 해결에서 질적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으며 문학예술작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생활의 진실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사회의 계급투쟁의 성격과 내용에 기초하지 않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빈 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생활의 진실을 란폭하게 외곡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철저히 의거할 때에만 로동계급의 립장에 서서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옹게 식별할 수 있으며 혁명의 해당시기와 단계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군중을 로동계급의 편에 서서 옹바로 그럴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해당 혁명시기의 계급투쟁과 계층들의 동향, 적아간의 력량관계, 그에 대한 당의 전략전술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말고 생활의 진실을 통하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성격과 내용,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옹게 구현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현실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예술적진실성은 생활의 진실에 철저히 의거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문학예술창조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는 한편 혁명의 해당시기와 단계마다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나아가 갈 길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우리당과 시대와 함께 숨쉬는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발전되게 하였다.

×

우리 문학예술의 40년간의 역사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정도는 수령의 정도이며 민족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는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증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손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손을 잡아 한걸음한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도를 생각할 때 수령님의 남다른 품모에 대하여 회상하게 되며 그 숭고한 품모로 하여 그 탁월한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안기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스승이시기전에 스스로없는 위대한 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새 조국 건설의 감격속에 험싸인채 아직 무엇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그려나가야 할지 모르고있을 때 작가, 예술인들을 친히 댁으로 초청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전설처럼 전해지던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 대하여 귀중한 이야기를 하여주시고 보천보전투의 역사적지위와 그 의의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담화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되였다.

잊을수 없는 1947년 4월의 그날이 있은후 우리나라의 첫 영웅서사시 《백두산》이 나왔고 해방후 첫 영화인 《내고향》이 나왔으며 그외에도 수많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발표되였다.

그리하여 해방직후부터 우리 혁명의 뿌리이며 생명선인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인민들을 무장시킬데 대한 역사적인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던것이다.

이러한 일은 그때에만 있는 일이 아니였다.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작품의 기능을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가로, 투사로 키워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4년 11월 7일에 자신의 그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는 한편 그후에는 실지 산 체험과 경험들으로써 작가들을 리해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작가들을 부르시여 17일간에 걸쳐 세상에 더없이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이 어떻게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일제를 반대하는 자

신의 20성상에 걸치는 혁명투쟁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그지체가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산 력사이며 거창한 사변들과 인간정신의 위대성에 대한 영웅서사시이며 뜨거운 열과 바다처럼 넓은 도량과 인간적인 훈양에 대한 노래였다.

또 그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이기도 하였다.

참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회상담을 계기로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는 생활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확인하는것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거인으로 키우는 문학예술로 그 면모를 혁신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과 다부작예술영화 《조선의 별》 그리고 벌써 이 작품들이 전에 창작된 장편소설들인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 《불타는 시절》, 《총천 사람들》, 《태양의 아들》(1부) 등의 출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전체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남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을 달리는 기세로 나아감으로써 뒤떨어졌던 조국을 하루속히 발전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천리마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사회주의현실주의의 작품이 량적으로 적었을뿐아니라 시대정신인 천리마정신을 원만히 반영하지 못하고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문학을 력사발전의 새로운 시대, 천리마시대에 맞게 문학을 발전시키는가 못하는가,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한편의 예술영화를 선택하여 작가, 예술인들에게 보이도록 하시고 먼저 영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리마정신이란 무엇이며 천리마기수의 전형을 어떻게 창조해야 하며 작가들이 어떻게 시대정신을 접수하여야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기둥의 하나를 이루는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이며 우리 문학을 천리마시대의 문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강령적지침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정치가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작가, 걸출한 예술가이기도 하시였다.

물론 우리는 해방후 우리 문학의 력사에 깃든 사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의 시작은 알라도 그 깊이와 끝을 모르며 환상의 나래침에 대

해서는 알아도 그 넓이와 비범성에 대해서는 다른 모른다.

누구나가 무심히 지나가는 고개길에 현지지도의 바쁜 차를 세우시고 시간가는줄 모르시고 산간의 농촌풍경에 마음깊이 잠겨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를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뒤산에는 갖가지 과일꽃이 아름답게 피고 마을앞으로는 맑은 시내물이 조용히 흐르는, 날아갈듯 경쾌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로 마을을 이룬 삭주군 금부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곳을 사회주의전경이라고 칭송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농법에 의하여 해마다 가을이면 황금의 이삭 설레이는 들판을 지나시면서도 인민의 행복 커가는 소리-조국의 환희를 느끼시며 벼바다, 강냉이바다 물결치는 들판으로 우리 시인들을 불러주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중요과제로 제기되었을 때에도 이미 우리결을 떠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혁명선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의 경력과 투쟁자료,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럴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공장에 가시면 공장대로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어렵던 시기의 영원히 잊으실수 없는 영웅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주시고 농촌에 가시면 농촌대로 우리결을 떠났거나 지금도 일하고있는 일군들을 회상하시며 그러한 일군을 원형으로 하여 쓰면 훌륭한 작품이 될수 있다고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이러한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가사 《애국가》가 나왔고 예술영화 《초행길》(상, 하), 《언제나 한마음》이 나왔으며 《혁명가》 등 수많은 걸작들이 나왔다.

당의 령도는 당의 지도와 그를 받드는 작가, 예술인들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건설경험은 찬란한 민족문화의 개화에는 반드시 당의 령도가 깃들어있으며 당의 현명한 지도와 이를 충성으로 받든 작가 예술인들이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해방후 우리 문학이 우여곡절을 모르고 곧바로 승리의 한길을 걸어오게 되는데는 바로 이러한 력사에 의하여 정립된 법칙이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경우에는 다른 특징도 가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당과 작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수령님과 작가의 관계이며 자애로운 아버지와 혁명전사와의 관계이다.

그러한 관계는 해방후 첫시기부터 맺어졌다.

해방을 맞이하여 공화국북반부에 흩어져있던 작가들은 물론 남반부에 있던 진보적작가들까지 민족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령도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모여들었으며 그이의 문예전사로 되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삼았던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의 참모습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믿음을 주시였다.

해방후 우리 문학의 력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작가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힘을 날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과시하는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작시법의 원리나 겨우 터득했던 사람이 한 시대를 휘여잡는 시적환상과 열정에 불타올라 과감히 영웅서사시를 쓰게 된것이며 영화의 초보적인 문법도 모르던 사람이 새 조국건설의 첫 영화문학창작에 대담하게 달라붙은것이며 이 땅위에 처음으로 복잡한 악기편성과 속련을 요구하는 교향악단이 태어난것은 모두 크나큰 믿음이있을 때 사람들은 천백배의 힘과 기적을 낸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산천을 유정히 울려주는 소방울소리에서 자기들이 거둔 난알을 나라에 바치는 농민의 행복상을 느끼며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너울거리는 백학에서 해방된 조국의 기쁨을 보는 그 한없이 맑고 부풀어오른 서정,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하는 그 열기띤 목소리...

우리들이 자신의 유년기를 돌이켜보면서 깊은 감회를 금할수 없는것처럼 해방후 민주건설시기의 시편들을 비롯하여 소설, 아동문학 등에서 찾아보게 되는 이러한 맑고도 뜨거운 정서는 새 민주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드높은 열정과 기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우리 작가들을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 인간정신의 기사라고 높이 내세워주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애국자로, 혁명투사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온갖 은정과 사랑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우리 작가들에 대한 믿음은 곧 사랑의 표시였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했던가 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민주건설시기는 물론 온갖 착취관계를 청산하는 사회주의혁명시기에도 작가들을 변함없이 당을 따르며 공산주의 혁명가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오신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온갖 부르주아사상의 침습으로부터 우리 작가들을 보호해주시고 작가들 자신이 가지고있는 넓은 사상에서부터 해방되도록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조선문학사에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눈물겹던 지식인으로부터 새 조국 건설의 애국자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성장한 년대기가 기록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위대한 사랑의 년대이기도 하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작가들을 믿으셨고 또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 때 조선의 작가들은 위대한 사랑, 믿음의 력사라고 말한다.

이 믿음과 사랑보다 더 큰 믿음과 더 따사로운 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그 본성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자체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동시에 자주성의 시대,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이다.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수 있는 문학예술을 창조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공산주의문학예술을 어떤 방법으로 건설해야 하는가?

인류문학예술의 실천은 그것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로동계급의 리론에 의하면 문학예술은 정치, 철학, 법률 등과 같이 사회의 경제적으로 대에 기초한 상부구조이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하부구조의 강화에 작용하면서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자체도 서서히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는것을 밝히었다.

이것은 상부구조의 한 형태로서의 문학예술의 특성을 밝히며 그 발전의 특성을 리해하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로동계급의 리론은 문학예술이 사회적의식형태의 하나로서 그 특성을 밝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급속히 발전시켜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직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이 점차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혁명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사회이며 작가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작품에는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비혁명적인 내용도 반영될수 있으며 그 형상적형식들과 요소들에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는것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체계와 방법에서도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또한 새로운 력사적조건,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에 관한 리론이 있고 사상예술적으로 준비된 작가, 예술인 부대가 있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시대적요구가 높아진 조건 등 성숙된 주객관적조건에 기초한 과학적인 사상이다.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사상의 위대성은 로동계급의 당은 문학예술의 특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 파악한 조건에서는 그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대담하게 개조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데 있다.

또한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사상의 위대성은 문학예술의 어느 한 부문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 창작지도 체계와 방법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혁신이며 그 목적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공산주의인간학 리론을 창시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인간학인 문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것은 모든 작품창작과 관련한 리론들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귀결점이기도 하다.

전형성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형상리론들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결국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을 그리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는데 의존한다.

공산주의인간학리론의 위대성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인간을 그리며 자주성의 문제를 제기하

는 문학이며 그를 기본으로 한 형상창조리론이라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인간학리론은 자주적인 인간을 그리기 위한 새로운 형상창조리론이며 또한 그러한 인간을 그리는 작가의 창작성과 역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리론이라고도 할수 있는것이다.

문학의 중심에 어떤 인간을 내세우는가 하는 문제가 모든 문학리론의 출발점과 귀결점으로 되는 것만큼 자주성을 가진 인간을 내세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결국에 있어서 그 본질에 맞게 문학예술리론을 전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사실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면서도 자주적인 인간을 창작리론의 중심에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그자체로서는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문학의 본성에 맞는 완벽한 리론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인간학리론을 과학의 궤도에 올려세운 사상과 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조의 근본원리를 밝힌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주체의 문예리론에서 밝혀진 종자론을 비롯하여 성격창조리론, 구성에서의 감정조직 등 예술적 형상창조와 관련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자주적인 인간을 그리며 인간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사상과 리론이라는 점에서 공산주의인간학리론과 상통하는것이다.

공산주의인간학리론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창조의 원리들을 밝힌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서 바로 문학예술혁명수행의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인 정치성과 문학성,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정치성과 문학성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정치성을 강화하는것은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해야 하며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교양육성하여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자체의 요구이며 인간의 사회적본성인 자주적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의 자주성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이 어떻게 정치에 복무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예술의 발전이 제약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이 정치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으시면서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성과 예술성, 시기성과 항구성의 관계를 명철하게 해명하심으로써 문학은 자기의 고유한 예술적특성을 가지고 정치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작품의 독창성과 작가의 개성을 높이 발휘하며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 사상예술적으로 특색이 있는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이다.

정치성과 문학성의 관계에 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강화하며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본성에 맞게 문학예술을 부단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탁월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있다.

×

우리는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청춘의 패기와 불타는 열정과 대담한 창조적환상으로 부글부글 끓던 1970년대의 우리 문학예술에서의 대전성기와 그를 더욱 꽃피워나가고있는 1980년대의 오늘을 생각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을 격동시키시였고 비범한 열정과 대담한 환상으로써 우리 문학예술계를 진감시키시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품모에서 위대한 령도자는 동시에 위대한 예술가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당, 전국의 모든 사업을 헤아리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작가, 예술인들속에 계시였고 문학예술혁명의 앞장에 서계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으로 옮기는것과 같은 어렵고도 복잡한 사업을 몇십년이 아니라 단 몇해사이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것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품의 종자를 밝혀주시고 그 형상적 특성과 양상까지 밝혀주시였으며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의 첫 사업으로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으로 옮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문학예술이 꽃피나게 하시였다.

이 과정에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가 영화와 가극으로 옮겨졌고 후에 소설로 옮겨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본성적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성과적으로 형상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가 빛나게 실현되게 된것은 우리 문학이 로동계급의 문학으로서 근본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한것은 로동계급의 문학은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문학이며 수령의 사상과 구상을 예술적으로 실현하는 문학이기때문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문학이 화폭의 중심에 수령의 영상을 모시고 수령의 위대성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할수록 더욱 힘있게 관철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는 한편 수령형상창조를 전문으로하는 4.15문학창작단을 무어주시였으며 손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하나의 총서형식에 담도록 하여주시고 그 이름을 《불멸의 력사》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이리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총서 《불멸의 력사》가 나오게 되었으며 《1932년》,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 등과 같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게 되었다.

문학예술혁명에 그 내용과 형식, 창조 체계와 방법에서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계급투쟁이기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쟁 대상과 목표를 똑바로 설정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의 실태와 주체문학의 본성에 기초하시여 우리 문학이 도달하여야 할 목표와 함께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등 모든 분야에서 극복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우선 내용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작품을 꼭 채워야 하였으며 그러자면 비혁명적인것, 공산주의사상도 아니고 자본주의사상도 아닌 범벅이 내용을 청산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형식에서는 온갖 비예술적인것을 청산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감과 공산주의문학의 본성에 맞게 예술화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그 편향을 종류별로 보면 소설에서는 깊이가 없고 상식적인것과 통줄거리에 의한 통속적인 서술방식이였으며 시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대신에 직선적으로 사상을 토로하며 운률을 무시하고 산문화로 나가는것이였으며 아동문학에서는 동심을 찾을 대신 성인화로 나가는것이였다.

이러한 편향은 대부분 과거의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잔재였다.

문학예술혁명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우리 문학이 도달하여야 할 목표와 청산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

고 대담하게 창작하도록 이끄시면서 문학예술혁명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신것이다.

최근 년간에 진행된 100편의 장중편소설창작전투와 그 성과적인 추진은 이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는 대표적실례이다.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100편의 장중편소설창작전투가 추진된 결과 우선 량적면에서 70년대이전에는 한해에 불과 몇몇편의 장중편소설을 내는데 머물렀다면 70년대후반기에 와서 해마다 20여편의 장중편소설을 창작하게 되었고 그 사상예술적질에 있어서도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무게있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발표되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시간이라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시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문학예술혁명을 위하여 바치신 그 불면불휴의 정력과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하나의 크지 않은 가요를 여러차례나 들어주시며 사색하게 하는 특색이 있는 작품이라고 치하하시며 가사가 대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는가 하면 우리 작가들이 창작에서 오류를 범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작품의 수정대안을 손수 세워주시느라 밤이 지새는줄도 모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년조가 있는 전문가들도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스쳐버린 작품의 자그마한 새싹까지도 찾아주시고는 못내 기뻐하시며 그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온갖 정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녕 우리 나라에서의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은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서만 불타올를수 있었으며 이처럼 짧은 기간에 빛나게 추진되고 수행될수 있었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 체계와 방법도 완성되었다.

이 지도 체계와 방법의 혁명적본질은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문학예술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 서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창작과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이끌어준다는데 있다.

우리 당과 작가들과의 관계는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우리 작가들의 관계이며 그것은 자애로운 스승과 혁명전사와의 관계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사상과 령도에서 비범하실뿐아니라 그 풍모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대한 풍모를 완벽하게 구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활짝 피어나
도록 온갖 은정을 다 돌려주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창작사업을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인임에 기술적인임
으로 보답하는 충성심의 발현으로 되도록 하여주
시고 작가들 스스로가 창작적실천을 통하여 자신
을 혁명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한
없이 믿으시고 내세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당
사상전선의 초병이라는 높은 칭호와 함께 당의 작
가라는 최대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의 열도가 얼마
나 뜨거운가 하는것은 그이의 사랑을 받아안은
70고령의 백발의 작가들이 여전히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창작사업에 열중하고있으며 한평
생 거의 침상에 누워있다싶이하는 영예군인 출신
의 작가가 혁명의 필봉을 높이들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조선의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러러 뵈올 때 뜨거운 눈물부터 앞선다.

이것은 결코 존경심만을 가지고는 설명할수 없
는것이며 순결하고 뜨거운 진정의 표현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월한 사
상과 현명한 령도, 그리고 대하같은 아버지사랑으
로써 우리 작가대오를 당의 작가대오, 충성의 작
가대오로 만들어주시었다.

×

해방후 우리 문학의 40년은 영광의 40년이며
승리의 40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어렵
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서 이 어
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
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문학예술혁명수
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우
리의 작가대오를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충성
의 대오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문학의 영광에 찬 40년의 력
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소식

더 높은 창작성으로...

조국해방 40돐을 우수한 창작적 성과로 맞이한
우리 작가들은 오늘 또 들끓는 심장의 열도로 당
창건 40돐을 더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고있으
며 창작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있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김수경)과 장편소
설 《동트는 강산》(백보흠) 그리고 철생산을 위
한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야금기지》(허춘
식)는 사상예술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작품으로 완
성되어 곧 출판이 예견된다.

작가 신진순은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2
부의 집필을 끝내였으며 작가 김리돈, 황용국, 윤
원삼 등도 완강한 투지로 중장편소설의 초고집필
을 끝내였다.

그 외에도 장편소설 《청춘송가》(남대현), 장
편소설 《꽃피는 고원》(김명진), 력사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3부(박태원), 중편소설 《전류
는 흐른다》(로종익)도 거의 완성되어가고있다.
고병삼, 류벽, 박태민, 리성덕 등 작가들도 뜨거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마지막 창작전투를 진행해나
가고있다.

당창건 40돐에 우수한 시편들을 써서 당에 올
릴 결의를 가슴속에 간직한 김재운, 박희구, 석광
희, 리금녀, 김송남, 최정용 등 시인들은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주제로 한 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시인 장건식은 간석지건설자들을 형상한 서사
시 《지평선》의 창작을 끝내였으며 얼마전에 서
사시 《대동강》을 완성한 시인 오영재도 새로운
서사시 창작전투에 뛰어들었다.

백하, 동기춘 등 시인들도 서사시창작사업에 열
을 올리고있다.

평론가들은 현재 80년대 주인공의 성격창조와
작가의 미학적리상문제를 놓고 작품평, 문제평,
지상토론 등 형식의 평론사업을 맹렬히 벌리고있
다.

박춘택이 쓴 평론 《80년대성격창조와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도 완성되어 다른 평론들과 함
께 우리 주체문학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더욱
큰 공헌을 할것이다.

본사기자

세월을 넘어

김익철

아직은 삼라만상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어둡
새벽이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온 누리를 밝히고
있어 밤인지 새벽인지 잘 가려지지 않았다. 연한
안개발이 실린 대기는 한껏 무르익어가는 온갖 열
매들의 엇구수한 향취를 머금고 가벼이 설레었다.

이무렵, 시누런 벼가 깔린 무연한 들판을 가르
고나간 큰길을 따라 이슬에 젖어 번들거리는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조용히 미끄러져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현지지도를 나가
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진희색 봄가을외투차림에 모자를 쓰신 수령님
께서 차안에 앉아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금전부터 거뭇하게 드러나보이는
산밭에 자주 눈길을 보내시며 지세를 살피고계시
었다.

그이의 뒤차리에 앉은 부관 최명수는 지세를 살
피시는 의도를 짐작할수 없는 의혹속에 사정없이
푸름푸름해지는 동쪽하늘가에 초조한 눈길을 보
냈다

수령님께서 뒤로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시었
다.

《벌써 날이 밝는구만 ! 》

《그렇습니다.》

명수는 피로가 어리신 그이의 음성이 대뜸 가슴
에 걸려 송구한 어조로 대답을 드리었다.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소. 우리 일이
오히려 잘되는것 같소.》

《… ? 》

새는 밤을 두고 야속스럽게만 생각하던 명수는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어안이 병병해졌다.

《이젠 평양까지 한시간쯤이면 갈수 있지 않
소. 》

《예…》

《그러니 다 온셈이지…》

그이께서는 그 어떤 타산이 깔리신 어조로 뇌이
시며 다시 앞을 내다보시었다.

명수가 더욱 깊이 의혹에 잠겨드는데 주의깊이
앞을 살피시던 그이께서 문득 손을 들어 왼쪽을
가리키시며 이르시었다.

《운전사동무, 저쪽길로 빠집시다.》

명수는 의혹의 가벼운 충격을 느끼며 급히 앞을
내다보았다. 포장도로에서 좁은 길이 갈라져나간
분기점이 질주해왔다.그 좁은 길은 새 포장도로가
생기기전에 쓰던 길이였다.

《수령님, 그쪽은 길이 사납구, 시간이 펍 더 들
니다.》

명수는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주저없이
말씀드렸다.

《허허… 나도 아오. 얹어진김에 쉬어간다구 한
군데 더 들려서 갑시다.》

그이께서는 부탁이나 하시듯 너그럽게 말씀하
시였다.

《… ? ! 》

명수는 열결에 엉겨주춤 몸을 일으키기까지 했
으나 적중한 말을 찾지 못하고말았다.

어느덧 차는 좁은 길에 들어섰다. 차는 쉽없이
들추어댔다. 명수는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
더구나 그이께서 갑자기 길을 바꾸신 의도에 전혀
짐작이 안가는것이 마음에 켜졌다.

불현듯 어제오늘일이 돌이켜졌다.

워낙 예제는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일찍 평양으
로 돌아오시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오후, 마지막농장을 보시고 오시는 길에
일정에는 없던 해안포구분대를 방문하시여 혼련
모습을 보시고 대원들도 만나시였다. 그러느라니
소집하셨던 회의가 늦게 시작되어 차정을 넘기였
다. 일꾼들이 그이께서 떠나시는것을 만류하였으
나 만나기로 약속된 외국손님이 기다리고있어 더
는 지체할수 없으시였다.

이렇게 되어 차안에서 꼬박 밤을 새게 되시였다.
일부 농장들이 예상보다 작황이 좋지 않아 차안에
서도 심려의 말씀도 하셨고 문건도 보시였다. 그
릴수록 명수는 한시바삐 그이를 평양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만 골똘했다. 그리하여 순간순간을
바재이던 때에 일이 뒤번져지고보니 당황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들길에서 맞는 새날은 깊이 인상에 남소…》

수령님께서 명수의 마음을 능쳐주시듯 말씀하
시였다.

《…》

명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만 습벅이었다.

길바닥이 고르롭지 못하여 차는 굼뜨게 달렸다.
온몸이 찌는듯 달아오르고 손에는 땀이 쥐여졌다.
길은 점점 산밭이 막아서는 외진곳으로 뻗었다.
…

아직 이른 때여서 차가 퍼그나 달리도록 길에는
인적이 없었다. 이따금 길옆 풀포기들에서 개구리
들이 쾅쾅거리며 물도랑으로 뛰어들뿐이었다.

날은 점점 푸른빛을 띄며 주변의 모든것을 본색
으로 드러내갔다.

길 왼쪽으로는 낮으뜨레한 산밭이 뻗어나갔고
그앞으로 논벌이 펼쳐졌다.

그이께서는 약간 긴장해지신 몸가짐으로 더욱 유심히 차창밖을 살피시다가 혼자 말씀을 하시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 몰라보게 변했군!...》

명수는 더구나 얼떠름해졌다.

그이께서 이곳을 목적하고 오신것일까? 무엇때문에?...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이 근방이 틀림없겠는데...》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운전사에게 천천히 몰라고 손짓하시며 양지쪽 파수원들과 그앞의 다락밭들을 눈여겨 살피시었다. 명수는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허둥거리는 눈길로 창밖을 살폈다.

그이께서 갑자기 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주변을 살피시다가 손을 들어 가리키시며 수원들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저 벼랑바위를 보니 면바로 찾아온것 같소. 그때는 저앞에 초가집 몇채밖에 없었소.》

명수의 눈길은 맞은편에 가깝게 바라보이는 문화주택들을 거쳐 산모퉁이가 뭉쳐 잘리워서 생긴 바위벼랑에 멎었다가 수원들쪽으로 옮겨졌다.

수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묻는듯한 눈길을 주고받고있었다.

명수 역시 같은 심정이였다.

《마을로 통하는 길이 저기 있구만.》

그이께서는 몹시 반가우신듯 큰길에서 갈라져 마을로 통한 길을 정찬 시선으로 바라보시었다.

한줄기 바람에 이삭 스치는 소리가 유별히도 야무지게 들려왔다.

언뜻 논판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그이의 안광에서 섬광같은것이 번뜩이시었다.

잠시 논판을 주시하시던 그이께서는 길가턱으로 나서시여 물도랑을 건너짚으시며 논두렁에 올라서시었다. 그 서술에 콩잎에 맺혔던 이슬방울들이 그이의 구두코숭이에 떨어져 부서지며 굴러내렸다.

누런 벼이삭들이 늪실거리며 아껴두었던 향취를 한껏 내뿜기는듯했다. 메뚜기들이 이리뛰고 저리뛰는 논판을 흐뭇한 안색으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허리를 굽히시여 이삭도 만져보시고 벼대도 더듬어보시었다.

《이것 보우!...》

그이께서 감탄조로 말씀하시며 수원들을 가까이로 부르시었다. 무겁게 처진 벼이삭들이 서로 엉키여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중간지대에서 이런 좋은 작황을 거둔다는것은 대단한 일ियो. 이걸 우리가 벌방지대를 돌아보면서 잘됐다고 하던것들에 못하지 않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벼이삭들을 손바닥에 받쳐 드시고 퍼그나 흥분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수원들도 모두 수궁하며 고개를 끄떡였다. 명수는

여기에서 다소나마 심려가 가시여지는듯싶어 여간만 다행스럽지 않았다.

《이런데도 만족을 모르는 그 마음들이 귀중하오...》

수령님께서서는 감심어린 어조로 말씀하시며 뜻있게 고개를 끄떡이시었다.

명수는 그이께서 누구들을 녀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아 고개를 기웃거렸다.

《우리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봅시다.》

허리를 펴고 일어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논두렁에 서신것도 잊으신듯 성큼 걸음을 떼시었다.

《수령님! 길이 험해 안됩니다. 제가 보고오겠습니다.》

명수는 황황히 그이앞에 나서며 말씀드렸다.

《허허... 예까지 와서 말라고 꾀구경하듯 할것이야 있겠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소탈하게 말씀하시며 콩포기들이 마구 뒤엉키고 미끌거리는 두렁길을 주저없이 걸어나가시었다.

명수는 하는수없이 얼른 앞서나가며 길을 내드렸다.

벼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잘된것 같았다. 험한 두렁길을 에도시며 길가에서 퍼그나 떨어진 구석진 포전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아직 물기가 축축한 논판에 성큼 들어서시여 하나같이 알지게된 벼속에 랑팔을 쭉 밀어넣으시고 실리는 무게를 가늠해보시었다.

《보시오. 여기가 더 잘됐소... 구석진데를 더 잘가꾼 그 마음이 보이오!》

그이께서는 흥분으로 하여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새벽의 찬이슬에 옷이 젖어드는것도 아랑곳않으시고 누런 벼이삭을 한아름 안으신채 그토록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명수의 가슴은 터질듯 뽀뽀해올랐다.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벼 한포기를 뽑아드시고 그의 생육상태며 논판의 토양상태며를 자세히 관찰하신후 실한 뿌리를 내보이시며 말씀하시었다.

《원래 여기는 심한 랑습지대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소. 이걸 땅을 잘 걸구었을뿐 아니라 농사를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했다는것을 증명하고있소. 이걸 보우. 인수로는 얼마나 알뜰히 거두었나...》

그이께서는 인수로자리를 가리키시며 열정적으로 설명하시었다. 논판을 굽어보던 명수는 깜짝 놀랐다.

진창속에 폭 빠진 그이의 구두운두로 겹스레한 물기가 흥건히 차오르고있었다.

《수령님! 신발이...》

당황해난 명수는 얼른 수령님께서 발을 옮겨짚으시도록 부축해드리려 했다.

《이런 땅의 농사를 벌방과 정당소출이나 대비해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진창에서 발을 뿔으시며 깨우쳐주듯 말씀하시었다. 명수는 눈굽이 뜨거웠다.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한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그러시라!

미루어보면 결국 좋은 작황을 기대하신 심정에서 피로도 무릅쓰시고 이쪽으로 길을 바꾸신것이 아니라셨었다.

어쨌든 외진 랭습지에서 만족한 작황을 보셨으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실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달하신 몸가짐으로 길가에 나오신 수령님께서 끌리시는 눈길로 마을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아직 이른감은 있지만 마을에 들렀다 갑시다.》

순간 명수는 난색을 지었다. 그러지않아도 벌써 날이 활짝 밝았는데 이제 마을에까지 들리느라 면해를 안고서야 떠나게 될것 같았다.

《명수동무, 논판에나 들려보자구 여기에 온건 아니요. 실은 보고 가야 할 사람이 있어서 들렀소.》

그이께서 타이르시듯 말씀하시었다.

《?!...》

순간 명수는 그이의 의도를 너무도 따르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었다. 뒤미처 그 누군가를 칭찬하던 말씀이 새로운 뜻을 띠고 피땀 스쳐갔다.

잠시 마을과 논벌, 이슬에 축축히 젖은 들길을 둘러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을 향해 눈길을 드시며 말씀하시었다.

《여기에 오고보니 펍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감회깊게 생각나오...

그게 아마 정전이 된지 몇해가 지난 어느해 봄이었던것 같소.》

이렇게 말머리를 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먼 기억을 더듬으시듯 허공의 한점을 응시하시었다. 모두 긴장하여 수령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봄안개 자욱한 이른새벽이었다.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일찌기 들길을 가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차창너머로 스쳐가는 논판이 너무도 어수선하여 그냥 지나칠수 없으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길섭으로 바싹 나서시여 논판을 살피시었다. 아직도 폭탄자욱이 우뚝 구멍한 논판은 희벗하게 메달라도 보이고 검실검실하게 랭습해보이기도 하여 첫눈에 피폐화된것이 알려졌다.

수령님께서 얼마쯤 앞으로 걸어나가셨을 때 짙은 안개발을 헤치며 무엇인가 형체 큰 거뭇한것이 움직여왔다. 그이께서 옷몸을 약간 숙이시며 귀기울이시었다.

덜커덩 덜커덩 ! 돌부리를 넘는 쇠바퀴소리에 이어 찹찹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절렁절렁 방울소리가 들리었다.

(이 새벽에 웬 달구지가?)

이런 의혹에 대답이나 하듯 말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졸려.》

또랑또랑한 어린애의 목소리에 이어

《이젠 다 왔는데 집에 가서 자렴.》 하는 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불식간에 귀를 바싹 강구게 되시었다.

《엄마 미워...》

《왜?...》

《자꾸만 밤에 못자게 하니깐 그러지.》

《네가 자면 엄마가 무서워나서 그런단다.》

《해해, 내가 장수나?》

《그럼, 네가 없으면 엄마 이 밤길을 못다녀.》

잠시 동안떠워 바퀴소리, 방울소리만이 울리었다. 뜻밖의 정황으로 안개발을 넘어 들려오는 모자간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수령님께서서는 받으시는 충격이 너무도 크시여 못박힌듯 움직이지 못하시었다.

《엄마 힘들지 않나?》

《왜 힘들지 않겠니?》

《그런데 왜 밤마다 하나?》

《넌 아버지가 땅을 잘 가꾸라고 편지로 부탁했다는 엄마 말을 벌써 잊었니?》

녀인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이다음엔 커서 내 혼자 할게 엄마 집에서 자랑!》

《원, 자식두...》

어느덧 달구지가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더는 참지 못하고 급히 몇걸음 마주나가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물으시었다.

《거 웬 달구집니까?》

《와-!》

머리에 흰수건을 쓰고 광목저고리에 감장치마를 입은 녀인이 고삐를 소등에 얹고 이쪽을 보았다.

한순간 어리둥절해있던 녀인은 《아니, 수령님께서!...》 하고 놀라며 황황히 수건을 벗고 인사를 하였다. 녀인의 쪽진 머리와 이마에서는 뜬김이 서려올랐다. 저고리앞설이 들리운 봉긋한 가슴이며 노끈으로 질끈 동인 탄력있는 허리미가 20대 한창인 곱살하게 생긴 소박한 농촌녀성이었다.

《어델 갔다오는 길입니까?》

《거름 실러 읍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녀인은 달구지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달구지 우에는 길동그런 거름통이 실렸는데 등과 배허벅이 후줄근히 젖은 소가 느침을 질질 흘리며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음이 얼마나 됩니까?》
《왕복 한나절길입니다.》
《그러니 밤을 꼬박 새웠단말입니까?》
《...》

수령님께서는 아까 들으신 모자간의 말이 떠오르시여 가슴이 후터우시였다.

자고싶어하는 어린것을 깨워가며 밤길에 동무되게 하자니 어머니 된 그 어린 마음이 오죽했으랴.

《조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이께서는 자애짓든 어조로 물으시였다.
《작업반을 맡았습니다.》

《너성의 몸으로는 혈참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거름을 날라와야 됩니까?》

《수령님, 우리 조합 논은 메마른데다가 랭습한 땅이여서 남들보다 곱절이나 두엄을 장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정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말아나셨구만... 그대 남편은 무슨 일을 합니까?》

녀인은 인차 대답을 못하고 쭈뼛거리다가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젖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음-!》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바쁜 길도 잊시고 잠시 녀인앞을 거니시였다. 이제서야 아이한테 편지이야기를 할 때 녀인의 목소리가 떨리게 된 까닭을 아시게 되었다.

그러니 녀인은 전사한 남편의 당부를 안고 스스로 밤길에 나선것이였다.

《그럼 마지막 편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녀인은 한순간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가 감심된 어조로 대답했다.

《그건 정전되기 직전이였는데 거기에 땅을 잘가꾸라는 절절한 당부가...》

《그러니 회답도 못했겠습니까.》
《회답을 불이려던 날 그만...》

녀인은 목이 메는지 말끝을 흐리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쓰리신듯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엄마, 빨리 가!》

아까 그 포랑포랑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이께서 소리나는쪽을 보셨을 때 너덧살 된 작은 사내애가 달구지채우에 앉아 무슨 장난감을 만져작거리고있었다.

《수령님, 너무 근심말아주십시오, 이제 저 애가 크면 일없습니다.》

녀인은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친 자책이 들어서인지 서둘러 말끝올리며 눈을 습벅이였다.

《고맙소. 동무가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는구만...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드래도 저 애들을 위해

서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대 동무의 이름이 됩니까?》

《김곱실이라고 합니다.》

《김곱실!》

수령님께서는 수첩에 이름을 적어넣으시였다.

《수령님, 저희들이 몇해후이면 조합을 잘 꾸려놓겠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녀인은 진심이 흘러넘치는 어조로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고맙소.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동무와 같은 일군들을 믿고 협동화운동을 내밀고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꼭 조합을 잘 꾸려나갑니다.》

《수령님! ...》

녀인은 너무도 감격하여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한마디의 고무가 얼마나 고마우면 저러랴. 어려움과 기쁨을 곁에서 함께 나누어줄 사람이 없을 때 당하는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달구지가 안보일 때까지 서계셨다.

전후 겹쌓인 시련의 나날에 수령님께서는 자주 새벽길에 만났던 그 녀인을 그리보곤하시였다...

《지금껏 이래저래 일에 쫓기다보니 약속을 지켜주지 못했소.》

그이께서는 근엄하신 안색으로 말끝을 맺으시였다. 숙연한 자세로 들고만 섰던 수원들은 저으기 감동된 어조로 소감을 주고받았다.

명수는 서서히 뜨거운것이 가슴에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끝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하많은 부락을 받으시는 수령님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신들 그 많은 부락들을 어떻게 다 리행하실수 있으랴!

하건만 그이께서는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녀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찾아주신것이였다. 그토록 마음속에 새기셨던 일군이기에 물기어린 논판에까지 들어서시여 그리도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신것이였다.

그런데 명수로서는 그이께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으시다가 이리로 오시게 된 동기를 알수 없었다. 무엇인가 깨우쳐질듯하면서도 아리송한 데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바람도 쏘일겸 소란을 피우지 말고 걸어들어갑시다.》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먼저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뒤집을 지신채 봄가을외투자락을 가볍게 날리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의 뒤를 수원들이 따라섰다.

길가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풀잎이 흙갈피사이로 비죽비죽 내밀고있는 두엄무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쌓여있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두엄무지는 더 자주 뜨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것들을 관심두어보시며 자주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관리위원회는 마을의 첫 어귀에 자리잡고있었다. 일행이 수령님을 모시고 마당에 들어서자 트랙에서 모이를 쫓던 닭들이 급한 소리를 지르며 뽕겨날고 어미도 모르게 새벽산보를 나왔던 새끼 염소들이 짹짹거리며 달아뼘다.

관리위원회를 향해 마주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네 귀번듯한 기와지붕이며 산뜻이 희칠한 벽이며 토방굽을 돌린 꽃밭을 둘러보시었다.

이때였다. 두루미뽕지같이 밝은 머리를 하르르한 수건으로 꼭 동여맨 처녀가 불쑥 마당으로 뛰어어들다가 굳어졌다.

갈숙한 얼굴에 가랑가랑한 몸매, 금시 튀어오를 듯 탄력있게 딛고선 장화발, 어데라없이 애어리게 보이는 처녀였다.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마주보시는 수령님을 알아보는 순간 처녀는 《아버이수령님 !》 하고 탄성을 지르며 뽕겨난듯 몇걸음 마주나와 허리 굽혀 인사를 드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처녀앞으로 몇걸음 다가서시며 다정히 물으시었다.

《동문 누군가?》

《회계원입니다.》

가는 소리로 대답하는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오 ! 회계원... 관리위원장은 아직 안나왔겠지?》

그이께서 굽히셨던 허리를 펴시며 다시금 물으시었다.

《도병원에 ... 가있습니다. ...》

처녀는 사실을 밝히기조차 안타까운듯 목메인 소리로 대답했다. .

《병원에 ? ! ...》

그이께서는 약간 놀라시며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모두 의혹이 실린 눈길을 주고받았다.

《위탈이 심해서 그랬습니다.》

처녀는 대답과 함께 눈길을 떨구며 발끝으로 땅만 허비었다.

한순간 안색을 흐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신 그이께서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그래 처녀는 어떻게 돼서 일찍 나왔나?》

처녀는 자기에게 쏠린 시선을 느끼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옷자락만 만지작댔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명수는 처녀곁으로 다가서며 뽕겨주었다.

《어서 말씀드려야지 ! 》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는것을 비로소 깨달은듯 처녀는 용기를 내어 얼굴을 들었다. 새벽빛

을 담은 처녀의 밝은 눈에는 금시 쏟아질듯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있었다.

두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눈을 습벽이던 처녀는 가까스로 떨리는 입술을 뻗다.

《관리위원장동지는 이맘때면 늘 논을 돌아보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음- ! 어린 동무가 아주 기특하구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어깨를 다독여주시고 나서 이으시었다.

《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좀 애길 하라구 !》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우리 관리위원장동지는 자나깨나 농장일밖에 몰랐습니다.》

알려드릴 사연이 너무도 벅찬듯 쉬이 말을 번지지 못하며 더듬거리던 처녀는 금시 터지려는 울음을 참아내며 말을 끊었다.

기대와 너그러움이 어울린 표정으로 듣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안경을 밀어올리시며 처녀의 말을 기다리시었다.

《관리위원장동지는 우리 농장원들의 마음은 저 논벌에서 보게 된다고 늘 말하면서 알쌔있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올해 봄만 하여도 모내기를 적기에 하느라고 새벽잠을 못자던 이야기며 김매기, 비료주기, 물관리때문에 온 한해를 들판에서 살다싶이한데 대하여 이야기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관리위원장동지는 혼자서 집살림까지 하면서 노상 농장에 나와살다나니 식사도 제때에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농장원들이 걱정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시다. 온 한해를 그러다가 그만...》

처녀는 말끝을 마무리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럴수록 곁에 사람들이 잘 돌봐줘야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동정이 깔리신 어조로 말씀하셨다.

《관리위원장동지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 들길에서 수령님 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끼쳐드린 근심을 아직도 없애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발원잠을 자겠는가고 타이르곤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수령님께서 오셨는데... 관리위원장동지가 없...》

처녀는 복받치는 흥분을 이기지 못해 얼굴을 찌뽕며 흑흑 흐느꼈다.

《...! !》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감동으로 하여 상혈되신 안색으로 달래시듯 처녀의 어깨를 어루쓔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드시고 손수건을 꺼내시어 천천히 닦으시었다.

명수는 아버이수령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드는 한 녀성의 참다운 모습을 그려보며 걱정을 삼

키였다. 그이께서 처녀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물으시었다.

《그래 병원에 가보았나?》

《예, 며칠전에 갔었는데 인차 퇴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처녀는 서둘러 눈물자국을 훔치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좀 놓ियो.》

아버이수령님께서 한결 밝아지신 안색으로 처녀에게 이르고나서 수원들을 상대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참으로 성실하고 강인한 동무요... 이런 땅에서 별방에 가까운 소출을 낸다는건 간단한 일이 아니요. 이것은 오랜 기간 꾸준히 땅이 내놓은 방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온 노력의 결과요.

그런데도 관리위원장동무는 조금도 만족을 모르고있소.》

이렇게 말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산발이 주름잡아나간 먼 하늘가로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 순간 명수는 온갖 의혹의 실머리가 확 풀릴 듯한 예감을 느끼었다.

이윽고 수원들쪽으로 눈길을 옮기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깨우쳐주시듯 말씀을 이으시었다.

《어제 해안포구분대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그 병사가 바로 우리가 찾아온 관리위원장동무의 아들이었소! ...》

《...!!》

명수는 순간에 깨우쳐지는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초소에서 잠간 만났던 한 초병의 심정을 안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실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현지도의 복잡한 갈피속에 너무도 평범한 일로 묻혀버린 한토막의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만족스럽게 보신 수령님께서서는 포진지를 돌아보시었다.

중대장이 포탄고를 열어젖혔을 때 맨 꼭대기 상자우에는 《토양학》표제가 달린 책이 놓여있었다.

《토양학?! 누가 보는겁니까?》

수령님께서 책을 집어드시며 물으셨다.

중대장은 낮빛이 벌개지며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농촌출신의 병사가 보던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 그 병사를 데려오게 하시었다. 사랑어린 눈길로 병사를 맞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 책을 왜 보는가고 물으시었다.

병사는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일없소. 어서 말하오!》

그이께서 병사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시며 너그러이 말씀하시었다.

《사실은 어머니를 좀 도울가 해서 그랬습니다.》

병사는 목을 움츠리며 눈길을 들지 못했다.

《어머니를? ...》

《저의 고향은 령습지가 많아서 아무리 애써도 별방처럼은 소출이 나지 못합니다. ...》

병사는 말을 끊고 쭈뼛거렸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독촉하셨다.

《일부 사람들은 그만한 소출이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지만 관리위원장인 저의 어머니는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시면 기쁨을 드리겠다고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내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령님께서서는 대견하신 안색으로 고향을 물으시고나서 서둘러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보시었다.

병사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다.

《음-그렇구만... 네가 벌써 초소에 섰단말이지...》

그이께서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못내 반가와하시었다. 병사는 감격에 못이겨 눈물이 글썽해졌다.

《어머니는 잘 있나?》

《...》

《하- 소식이 없는 모양이구만? ...》

그이께서 다시 의문을 표시하자 병사는 석달전 너 꼭꼭 오던 편지가 근배에는 오지 않는다고 실토정했다.

고개를 끄덕이신 수령님께서서는 바쁜 농사철이여서 그럴것이라고 하시며 군무를 잘하라고 고무하시었다...

명수는 이 일을 깊이 새겨두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쳤다. 이런 일을 자주 당하면서도 그때마다 가슴뜨거운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안경을 바로잡으시고나서 뜨거움이 어린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전날 쓰린 가슴을 안구 달구지를 끌고 새벽길에 나섰던 동무가 그동안 얼마나 큰일을 해놓았소. 번듯한 마을과 과수원을 꾸려놓았지. 령습지를 다스려 들판이 꺼지게 난알을 실어놓았지. 게다가 아들을 잘 키워서 초소에 내세웠소. 참으로 자랑할만한 동무요. 그런데도 이 동무는 만족을 모르고 아글타글 애웠소. 어머니를 도우려는 아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대견하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요. 이런 인민을 보는 기쁨에 현지에 나오면 피곤도 다 잊게 되는것 같소.》

그이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흙모의 정에 휩싸인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명수는 들길에서 맞는 새날이 인상깊게 남는다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뜻있게 되새겨졌다.

실로 그이께서 바쳐가시는 로고의 자옥자옥에는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잠시 생각깊으신 눈길로 마을과 논밭을 더듬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신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 몇사람이 보고 지나치기는 몹시 아깝소. 며칠후에 있게 될 농업일군협의회 참가자들에게 여기를 다 참관시키도록 합시다.》

《손색이 없습니다.》

《거리도 맞춥니다.》

수원들은 저마다 수궁해나섰다.

명수는 만난지도 오랜 한 녀성일군의 일터를 찾으시여 해놓은 일을 높이 치하해주시고 그것이 더 빛나도록 도와주시고는 무엇인가 더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게 또하나 있소.》

어버이수령님께서 신중하게 하시는 말씀에 모두 주의를 모았다.

《그전날 어려운 고비들을 겪어가면서도 남편의 마지막 편지회답마저 미처 보내지 못했던 동무인데 오늘 우리가 직접 찾아와서 여기를 다 보았으니만큼 초소에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소. 헌데 이 사실을 몇마디 말로나 편지로 전하기는 너무도 아쉬운 일이요.》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모두 감동과 기대가 어린 눈길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전사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이나 거리가 얼핏 텔레비존에 나와도 여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요. 내 생각엔 관리위원장동무의 생활모습과 저 풍년 든 논벌을 잘 찍어서 텔레비존방송에 크게 내주자는거요.》

《그게 좋겠습니다.》

수원들은 한결같이 호응해나섰다.

《그렇게 되면 초소에 있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고향에 대해서 더없는 긍지를 가지게 될것이고 그만큼 군사복무도 더 잘하게 되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모두 좋아할겁니다.》

수원들은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기뻐들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감격에 겨워하는 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기쁘게 찬 전사들의 모습이 선하싯듯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고 가버이 몸을 움직이시였다.

명수는 해돋이를 맞는 바다와 같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수령님을 우러렸다.

뒤산에 걸린 고성기에서 노래가 울리고있었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고

혁명의 수만리길 헤쳐오셨네

...

《그리구 올해 농업대회에 관리위원장을 꼭 참가시켜야겠소...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그만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회계원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고나서 자동차 있는데로 가시였다.

수령님께서 차에 오르시여 막상 떠나시자고 하니 무엇인가 채 하지 못한 일이라도 있는것 같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시였다.

남편의 당부를 안고 철부지 어린것을 벗삼아 밭길을 걷던 그 녀인, 새벽길에서 다진 그 약속을 년년 스무해나 지켜내여 땅을 기름지게 가꾸고 온 벌에 풍년날알을 퍼놓은 관리위원장이였다.

그것을 위해 때식도 참도 기꺼이 넘겼고 마음을 의탁할 유일한 언덕인 아들에게 소식마저 미처 전하지 못하며 아글타글한 미더운 전사에게 이 아침 자신께서 배푸신것이 너무도 아쉽게만 생각되시였다.

차가 관리위원회마당을 벗어나 얼마쯤 움직여 갔을 때 그이께서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명수는 영문을 모르고 먼저 내리시는 수령님을 따라내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만치에서 바래우고 섰는 회계원처녀를 손저어부르시였다.

처녀는 무슨 영문인가 하여 급히 달려와 얼마쯤 간격을 두고 멈춰섰다.

《더 가까이 오라구!》

수령님께서 다시금 손을 저으시였다. 차에서 내려 수원들은 모두 무슨 일인가 하여 그이를 우러르기만 했다.

《그냥 가자니 아무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구만...

지금은 내가 출장중이여서 이것밖에 가지고있는것이 없소.》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팔목시계를 풀어 처녀앞으로 내미시였다.

그 순간 처녀는 흠칫 놀라며 한결음물러나 곁에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네 관리위원장은 일에만 시간을 바치느라구 사생활엔 시간을 모르고 살았소. 사람이란 일만으로는 살수 없소. 제때에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문화휴식도 해야 하오.

내가 한 말과 함께 이걸 관리위원장에게 전하라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시계를 내미시였다.

《어서 받으!》

명수가 귀뚱해서야 처녀는 떨리는 량손으로 시계를 받아안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수령님께서서는 한결 밝아지신 안색으로 차에 오르신였다.

처녀는 량손을 흔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차가 큰길에 나섰다. 속력을 놓았다. 감격에 겨운듯 황금물결이 설레였다.

《세월이 흘러가니 사람은 어쩔수 없이 늙지만
우리의 땅은 점점 더 젊어지고있거던...》

환하신 안색으로 창밖을 내다보시던 수령님께서
혼자말씀처럼 하시었다.

방금 받은 흥분을두고 사색속에 잠겨있던 명수는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줄기 강렬한 빛발
이 되어 뇌리속에 비치드는것을 느끼었다.

참으로 그랬다. 갈수록 점점 거칠어져야 할 땅
이 더더욱 기름지고 젊어져가는것은 세월과 더불어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높아가고있는데문이었다.

세월을 넘어 이어지고 깊어만가는 어버이수령
님의 사랑은 인간이 태어나 받을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있어 우리 인민은 인간이 오
를수 있는 의리심의 상상봉에 거연히 서있는것이
였다.

차는 차츰 더 빨라졌다.

황금이삭 물결치는 논벌도 일새 무성한 가로수
도 모두 그이의 품을 향해 서두르며 안겨들고있었
다.

내 자라난 뜨락

유국진

예가 내 학원시절
마음껏 뛰놀던 마당이구나
찾아와 걸으니 운동장이여
그때가 눈앞에 안겨오누나

푸른 아지 쪽-쪽 퍼머
천만일새 흔들여 응원하던 저 백양나무
우리 학원 축구팀이 승리했다고
목마라고 내가 돌던 운동장이여

아, 너를 보니 떠오르는 추억도 가지가지
가슴 울렁이는 감회도 가지가지
네우에서 피운 행복의 웃음 그 얼마였더냐
네우에서 흘린 감격의 눈물 그 얼마였더냐

바로 네우에서 나는 안겼지
겨울이면 눈보라치는 그 추운날
봄날이면 비내리는 그 곳은날
유자너 우리들을 걱정하시여
찾아주신 아버지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긴 그 기쁨에 흐느껴 울 때면
우리 등을 뜨겁게 쓸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어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하시던 말씀이어

그래도 눈물을 거둘줄 모르던
아버지가 왔는데 울면 되냐고
자꾸 울면 내 마음이 좋지 않다시며
나의 등 다정히 두드려주시던 수령님

어찌 운동장 여기만이였으랴
학원의 품에서 혁명의 깃을 키워
내 떠나간 조국의 천연초소
거기에도 찾아오신 어버이사랑이어

눈덮인 전호 소나무초소아래
엄숙히 서있는 나를 보시고
네가 만경대의 영진이가 아니냐고
그리도 기쁘시여 껴안아주시던
아버지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이어

아, 운동장이여
생각할수록 눈시울 뜨겁구나
맨발로 찾아온 나를 안아키워서
나라의 대들보로 내세워준 그 사랑의 자욱
네우에 소중히 새겨져있어

사랑과 감사의 불같은 걱정이
물머리 높이는 가슴을 달래며
내 추억속에 걸고걸는 운동장
나의 동요시절이 흘러간 품아

운동강이어, 운동장이여
너는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언제나 내 가슴속에 펼쳐져있는
펼쳐져 용맹의 나래만 펼쳐주는
내 자라난 고향집뜨락

너는 정녕
한생을 바쳐 내가 지켜갈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품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로구나 !

인민의 념원

마문드지쑤아 뻬에르

내 비록 시인이거나 음악가는 아니라 해도
노래하렵니다 2월의 봄을
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노래
백두런봉의 아침노을을 노래하렵니다
기쁨에 넘친 나의 노래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나는 목청껏 부릅니다

김정일 동지 만세 !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수령이신
조선인민의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
위대한 주체사상의 완벽한 체현자
주체혁명위업의 영명한 계승자이십니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고
당신은 조선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시였습니다

아, 공산주의의 태양 **김정일** 동지
당신은 인민의 념원과 희망의 체현자
당신은 우리를 이끄시는 강철의 령장

혁명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쉬임없는 투쟁으로
밝은 미래에 인민대중을 이끄십니다

아, 조선
아, 해와 별 빛나는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인민은 통일된 조국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의 락원을 건설할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가렵니다, 당신께서 밝혀주시는 길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하렵니다 주체사상을
다른 길을 나는 모르웁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의 존함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할것입니다
영원한 지도자동지께
인민들은 드리웁니다, 영광과 영예를
가장 뜨거운 축원의 마음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웁기를 삼가 바라웁니다

(필자는 마다가스카르 공민임)

인민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

모하메드 고브리니

인민이 가장 사랑하는분이시여
당신께서 이룩하신 모든것
아, 그 놀라운 업적으로 하여
나라의 발전은 위대합니다

세계는 당신의 령도를 부러워하고
인민들은 오직 당신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당신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여
인민들은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당신을 우러러모십니다

당신의 사상은 위대한 지침
남성들도 녀성들도 거기서 힘을 찾고
당신의 령도밑에 인민들은 일어나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녕 온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탄생기념일을 맞을 때처럼
해빛이 그토록 아름다운적은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회상담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인민들은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고있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만민의 축복속에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자는 알제리신문 《엘 무자히드》 기자임)

영원히 향도성 우리러

박명빈

간절한 마음

꿈결에도 그 생각
깨어서도 그 한 생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수무강 바라는 우리의 마음

깊어가는 수도의 밤
인민을 잠재우시며
당중앙 창가에
조용히 흐르는
밝은 불빛

그 불빛아래
우리 잠들고
우리 깨어나도
그냥 밝아있는 불빛을 바라보며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을 우리롭니다

향도의 그 불빛아래
락원은 꽃피나고
건강넘친 행복한 웃음소리
이 강산에 넘쳐나건만
북반은 세상에 오래 살도록
끝없는 사색을 기울여주십니다
불타는 열정을 쏟아부어주십니다

휴식과 건강은
인민에게 다 주시고
힘든 일 많은 일은
한몸에 다 안으시고
이 땅위에 행복의 달과 달을 펼쳐가시는 그이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 당 6차대회 주석단으로
수령님 모시고 나오셨던 그날
그리도 수척하신 그 영상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이의 손길
그이의 예지
그이의 결론을 기다리는
천만가지 일을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당 6차대회를 준비하시며
그 몇밤을 지새우셨으면
그 얼마나 분망하셨으면
그이의 모습 우리르는
우리 마음 그렇듯 생각 깊었겠습니까

한마음 모두어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도
민족의 간절한 념원도
친애하는 그이의 만수무강이기에

별들도 잠에 취한 깊은 밤
그처럼 뜨거운 소원담아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아뢰이면

나도 수령님의 전사라고 하시며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길에서는
이런 밤을 열백번 지낸들 어떠냐고
그처럼 절절히 하시던 말씀

아, 언제면 그 언제면
한시라도 편히 쉬시렵니까
만년 청춘으로 영원히 모시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받아주시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렵니까

깊은 밤
당중앙 창가의 불빛을 우리러 때
그이 눈비를 헤치시며
건설장을 걸으실 때
때로 끼니도 건넬시며
그이 실무지도의 길 이어가실 때

자애로운 그 모습 우리르며
그이의 건강을 지켜
그이의 안녕을 지켜
다하지 못한 도리를 생각하며
뜨거움에 젖는 마음이어

그이의 건강은
인민의 기쁨
그이의 안녕은

조국의 행복
혁명의 운명이며 영원한 승리입니다

순간을 살아도 이 한 생각
한생을 살아도 이 한 생각
우리에게 오로지 이 한마음뿐입니다

향도의 별이신
김정일 동지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부디 만년 청춘으로 젊어계시라

첫 걸음

노란 민들레꽃
수레길에 피어나던
자그마한 농촌마을
수수 울바주 두른 마당가에서
내 첫걸음마 익혀주던
그런 손길이던가

귀에 익은 풍금소리
백양나무 둘러선 운동장으로
정답게 흘러나오던 인민학교
까만 칠판앞에 마주서던 때
우리 나라 첫 글을 익혀주던
그런 손길이던가

청춘시절과 함께 시작된
자랑과 포부로
인민의 건강을 책임진
높은 자각을 안겨주며
나에게 첫 수술법을 가르쳐주던
그런 손길이 아니었던가

삶의 길목마다에서
옳은 길 걸으라고 손잡아주던
못잊을 사람들의 그런 당부가 아니여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걸음마 익혀주신 그 믿음은

조선의 운명을 안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
그것으로 첫걸음마 떼게 해주신
오, 나는 그날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몸

덧없이 남기던
어릴적 그런 자옥
젊음에 넘쳐서
불같이 남기던 그런 자옥
그 모든 추억의 자옥우에
내 세상길 처음 걷는듯 자옥 옮길 때
믿음에 넘치시여 바라보시던 그이

그날에 나는
그 력사의 날에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맏아들만이 아니라
조국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라

잊을수 없는 일요일

숲속의 새들은
청아한 목청을 돋구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계곡들 따라 흐르는
산촌의 물소리조차 유정하던
그 어느해 여름날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친애하는 그이와 함께
휴식의 한때를 보낸
잊을수 없는 그 일요일

참말로 쉽지 않게

잠시간을 내신
이 일요일의 짧은 휴식마저
영광과 기쁨으로 안겨주시던 그이

어서 정구장에 들어서라고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에겐
정구가 제일이라고
어찌할바 모르는 나를 불러
채를 잡는 법부터 가르쳐주신 그이

-명빈동무 쳐보시오
어서 한번 멋지게 쳐보시오

자애깊은 어머니는
자식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 법
그처럼 그이께선 정구치는 묘리를
한가지 한가지씩 깨우쳐주시었다

한자옥 옮기면
또 한자옥 걸음 내걸게 하는
어머니의 애정어린 심정으로
한가지 전술에 익숙되면
또 한가지 전술로 바꾸어가시며...

정녕 잊을수 없는 그 일요일은

휴식의 한때가 아니었으니
민첩하고 강한 의지로
그 어떤 정황에서도
정확히 수술을 할수 있도록
나에게 슬기와 용맹을 키워주신
귀중한 학과시간이었다

짧게 보내신 그 휴식마저
고스란히 바쳐가시며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보살피고 이끌어주신
아, 잊을수 없는 그 일요일...

나의 손

내가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무척 기뻐하였다
대를 물릴 농군
말아들로 태어난 나를 두고...

날이 다르고
해가 다르게 커갈 때
부모들은 대견히 바라보았다
흙장난에 투박해지던 내 손을 보며
말아들인 나를 실농군감이라고

그 언제이던가
날저문 저녁
세 아들을 잠재워놓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던 이야기
-여보 믿어는 학교가 아니라
실농군으로 착실히 키워야겠소

나의 어린날의 꿈
배우려던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가난한 부모들의 이야기속에
기약할수 없는 안개같이 흩어지고말았다

땅을 갈며
보탑을 잡고
씨를 묻어 가꾸고
난알을 영글리우며
흙에 묻혔던 나의 손

나의 이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이 누구이시던가
배움의 창가에 나를 세워
인간생명의 기사로 키워주신
아, 어버이수령님 !

수령님 이끌어주신 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시 잡아 이끌어주신
이 손을 두고 생각이 깊어라

그날은 언제이던가
계속 수술을 하는가고
병원에 나가 손을 계속 놀려야 한다고
그처럼 간곡히 타이르시던 그 말씀
-동무의 손이 《금손》인데
녹이 쓸어서야 되겠습니까

귀중한 손 보배로운 손이라고
사람들 흔히 하는 그런 말이던가
내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처럼 높이 치하해주신 이 《금손》

오, 바치는 충성이 없으면
재능도 빛을 잃고마는것을
변함없이
영원히
어버이수령님 만수무장 위한 길에
친애하는 그이 안녕 위한 길에
내 이 《금손》 한생 빛내여가리

사랑의 자리

차는 달리고
마음도 달리고

목은 메이고 눈시울은 젖어와
차창밖은 보이지 않고

차는 달리고
생각은 차보다 앞서 달리고
꿈만같은 일이여서
땅을 달려도 하늘로 뚱뚱 나는듯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가족 초대장
보내주신 자신의 승용차
갈수록 더더욱 꿈길만 갈아

나도 안해도
철없는 어린것들도
눈물에 젖은 마음 안고
대극장 총계의 주단을 밟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문밖에 나와 자식을 맞아들이는
아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던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으셨다고
잘 보이고 좋은 자리건만
아버어수령님 더 가까이 앉히고싶으시여
다시 더 곁으로 불러주실때

감격에 들먹이는 가슴
진정 못하고 울음 터친것
나만이던가 안해와 아아들만이던가
온 장내가 어깨들먹이던 그날이여

이렇게 그이는
아버이수령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자신께서 서시여야 할 그자리에
인민을 세워주시여라

세월은 흘러
스무해가 지나갔어도
내 마음엔 그날 달리던 그 승용차에
내가 안기고 내 가족이 안기고
온 인민이 다 안겨 지금도 달리는듯싶어라

가사

참된 삶의 노래

오선학

들길의 산보가 삶이던가
사랑의 미소가 생이던가
운명의 갈림길 많고많아도
당중앙 따라서 한길을 가네

백년을 산다고 한생인가
천년을 산다고 영생인가
인생의 한순간 짧게 살아도
당중앙 품속에 영원히 사네

명예가 높다고 자랑인가
재부가 많다고 행복인가
남모를 초소에 홀로 살아도
당중앙 받들어 영예가 꽃피네

아, 삶이여 삶이여
충성의 빛나는 삶이여

우리 당의 향도아래 만발한 주체문학의 대화원

참가자들

천세봉 영예의 《김일성훈장》 수훈자, 조선작가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석윤기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 《4.15문학창
작단》 단장

김영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학수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 《4.15문학창
작단》 작가

리정술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 시인

김정 《4.15문학창작단》 작가

오영재 시인

사회: 우리는 얼마전에 조국해방 40돐을 뜻깊게
맞이한 기쁨속에 또다시 당창건 40돐을 승리
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스러
운 우리 당의 손길아래 지난 시기 주체문학이
쌓아올린 빛나는 성과를 두고 생각할 때 이자
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감회가 깊을것입니다.

석윤기: 당창건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당의 품속에
서 작가로 성장하여온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일제통치시기와 해
방후 남녘땅에서 저는 작은 가슴에 문학의 뜻
을 품고 모대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품
속에 안겨서야 저의 이 꿈이 현실로 될수 있었
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에 이끌려 비
로소 창작의 청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의 손길아래 우리 문학이 발전하여
온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당의 작가로 성장하
여온 자랑찬 과정이기도 합니다.

천세봉: 그런 회고와 신념은 우리모두의 심정이기
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로서의 생명이 당의 품속에서
만 꽃필수 있었기때문입니다. 당의 빛발아래
40년의 년륜을 새기며 거목처럼 싱싱하게 자
라난 우리 문학을 두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이 뜨겁습니다. 우리 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마
련한 해빛과 자양분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비범한 지도와 사랑입니다.

김영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문학은 얼마나 자랑찬 업적을 이룩하였
습니까. 지금까지 문학사의 과제로만 남아있
던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도 우리 시대
에 와서만 빛나는 해결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은 주체가 선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석윤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소설로 그릴 원
대한 구상을 안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4.15문학창작단》을 무어주시던 그날의 감
격이 새로와집니다. 아시다싶이 우리 당 발전
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후 반당반혁명분자
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전당에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전면에 나섰던 때
가 아닙니까.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건설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야 했던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더더욱 크나큰 격동속
에 뿔뿔이게 되었습니다.

천세봉: 저 개인의 경우를 놓고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 자신이 정치사상적안목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보니 작품창작에서 인정세대적인
문제에만 치우치면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여 제가 창작한 장편소
설에서 심중한 사상적오류를 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까지 끼쳐드리었습니다.

제가 심한 자책으로 모대기고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창작에서 범한 심중한 사상적과오를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으며 또다시 저를 《4.15문학창
작단》에 불러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
란한 혁명력사를 소설로 형상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니 그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오직 친애하는 그이께서 쥐여주신
붓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그리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바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최학수: 당의 크나큰 믿음은 작가들의 창작해서
끝없는 열정을 낳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천세봉선생이 잉크가 아니라 피방울을
떨구듯이 온갖 심혈을 원고지우에 쏟아붓는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지 한장한장을 자
식보다 더 귀애한다는것두 잘 알고있습니다.
그처럼 심혈을 쏟아부었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를 형상한 장편소설 《혁명
의 려명》도 훌륭하게 완성할수 있지 않았습
니까.

천세봉: 하지만 그것은 어느 한 작가의 재능이나
열정에 의해 창작된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초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 소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모색하고 또 론쟁하였습니까.

김영근: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것은 참으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세계문학사에는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일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작가들의 창발적시도에 불과한것이었습니다.

최학수: 더우기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깊이와 폭에 있어서 거창하고 격동에 찬 불멸의 자욱이였습니다. 그것을 소설에 담는다는것은 보람차고도 아름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습니다.

석윤기: 물론 소설창작의 력사를 소급해보면 다부작형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는 결코 인류력사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변혁과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충분히 담을수 없다는것은 미숙한 소견에도 자명한 사실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편의 독립적인 장편소설들로 그려낸다면 개개의 작품들의 전일적인 통일을 보장할수 없었던것입니다. 참으로 론증과 사색을 거듭하였으나 옳은 해답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창작의 첫걸음에서 부닥친 이러한 고충을 통찰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 빛나는 예지로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세계문학사상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로 하나의 총서속에 집대성하되 매개권은 또한 독자적인 특색을 갖춘 소설로 되게 구성할데 대해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총서의 이름을 《불멸의 력사》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를 창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받아안았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삼거위처럼 엉키였던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정: 그뿐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은 총서 《불멸의 력사》창작의 전과정에 이어져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력사적사실에 근거하여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진실하게 형상하는데는 창작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섰습니다.

특히 력사적사실을 생동하게 재현하는데서 제일 난문제는 우리 작가들이 당대사회를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그것이였습니다. 저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때 태어나지부터 못했으니가요.

일동: 웃음

천세봉: 고충을 풀어주시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한 자리에서 친히 귀중한 력사자료와 사실자료들을 가르쳐주시적인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시고는 저희들이 처음 쓴 미흡한 초고들도 2~3번씩 읽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그림에 있어서 격식화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창작방향과 형상방도를 가르쳐주시고 하나의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손수 가필해주셨습니다.

리정술: 수천매에 달하는 장편소설을 한번 읽자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번씩 읽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니 참으로 가슴뜨거워지는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석윤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1971년 8월 말이였습니다. 머나먼 북방의 실무지도의 길에서 저희들이 올린 작품의 원고를 다 읽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를 올려 교시를 받는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이 영광의 소식을 우리 작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머나먼 북방에서 평양에까지 손수 전화를 걸어주시였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덕속에 장편소설 《1932년》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돐에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학수: 총서 《불멸의 력사》 등 장편소설들이 하나하나 창작되게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는가 하는것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창작과정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탈고된 이 작품의 초고는 오래동안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의 개작방향을 구체적으로 주시였습니다.

우선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체계정연하게 그리며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실을 기본으로 대를 세울데 대한 문제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십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회고하시는 《대통령감》을 력사적사실에 맞게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대통령감》을 통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도록 구체적인 형상방도까지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오영재: 작품에 그려진 《대통령감》은 주옥과 같이 빛나는 형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사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동: 그렇습니다.

최학수: 공화국창건30돐을 맞으며 우리 작가들의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이 책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리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중대한 국가행사들이 진행되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단 열흘사이에 장편소설을 다 읽어주시실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행사가 련이어 진행되고 공화국창건30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손님들을 만나시여 대외활동을 하시느라 분과 초를 쪼개 쓰셔야 할 그런 때조차 저희들이 올린 책을 한페지 한페지 다 읽어주시고 과분한 치하의 교시를 주시었으니 그때 저희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석윤기: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의 교시를 받게 된것을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에게 높은 국가수훈과 표창까지 주도록 배려해주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작단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높은 국가수훈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천세봉: 창작은 작가의 본분이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전하는것은 전사된 우리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웅당 해야 할 일도 변변히 못한 저희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일깨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영예와 자랑을 모두 저희들에게 안겨주시었으니 그 사랑과 믿음을 대를 두고 전해야 할것입니다.

석윤기: 작가의 환상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 시기 인민군대전사로 자동차를 몰면서도 작가가 되려는 꿈을 키워왔지만 오늘의 이런 영광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보니 우리 문학발전에 특기할 리정표로 되는 총서작품들의 갈피마다에 얼마나 고귀한 은정이 깃들어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 작가들은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훌륭히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기간 진실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 우리 작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시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울여오신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오늘 주체문학의 대화원속에는 실로 풍만한 열매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영근: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시기에 이룩된 소설풍년을 놓고도 긍지높이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내리는 겨울날이면 몇년전 정월7일 밤의 기억이 새로와집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단 몇해사이에 장중편소설 백권을 창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저희들에게 주시였던것입니다.

크나큰 격동과 기쁨 속에 작가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범한 령도의 손길아래 바야흐로 창조될 혁명적소설창작의 장엄한 진군을 벅찬 환희속에 그르보았습니다.

최학수: 제가 소설가라고 해서 말하는것이 아니라 소설이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미학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런 소설이 백편씩이나 쏟아져나온다니 참 그때 심정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김영근: 이런 아름다운 창작과제를 어떻게 해야 빛나게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도 벌리고 새로운 방도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로 모색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작가들의 창작조건과 창작실태를 료해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에게 우산장을 거점으로 창작전투를 전격적으로 벌리도록 현명한 대책을 취해주시고 창작에서 속도전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장중편소설의 창조체계를 일원화해주시였습니다.

천세봉: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위주로 한 작가동맹에서 창작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기관을 내오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여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정깊은 손길아래 작가들은 벅찬 현실을 그대로 창작실로 삼고 왕성한 창작적 의욕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시대의 맥박과 숨결을 그대로 원고지우에 재현시켜 감동적인 화폭을 그려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련이어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아름다운 창작과제도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는 신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아다싶이 창작에서 신심을 가진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입니다. 우리 작가들에게 창작적지혜와 힘을 주시고 신심과 담력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귀한 은정도 창작전투 전기간에 이어져있습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탈고되었을 때 심의와 료독과정에 작품의 갈등선이 심히 잘못 설정되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어 심한 고충을 겪고있는 한 작가의 심정까지 몸소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을 성과적으로 완성시킬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우선 작품의 부정인물로 금속공업부 부부장이 설정된것을 그대로 형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당일군인것만큼 인간성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며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측면을 더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장편소설 전반을 해부학적으로 깊이 분석하시고 구체적인 수정방도까지 제시하여주시였습니다.

이렇듯 한 작가에게 드물지 않을 담력을 안겨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에 그 작가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실로 당이 준 그 뜨거운 심장으로 작품을 훌륭하게 완성시킬수 있었습니다.

김정: 말을 듣고보니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대담하게 설정하고 심화시킨 작가의 담대한 필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리해됩니다.

저두 그런 믿음과 담력을 받아안았기에 총서 작품인 장편소설 《낮은 울랐다》를 완성할수 있었습니다. 이름없는 문학청년이였던 제가 그런 큰 작품을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리정술: 김정선생은 교편을 잡고있으면서 오래동안 아동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정: 그렇습니다. 그런 저를 작가양성기관에 불러주시여 교육을 주고 걸음걸음 이끄시여 오늘은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그 품속에 신인작가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우리의 소설문학역시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고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습니다.

오영재: 그것은 비단 소설분야에서만 이룩된 성과가 아닙니다. 시문학의 경우만 보아도 최근 10여년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다싶이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짚은 서정에 담아 노래하는 시야말로 시대의 메아리로 커다란 예술적감화를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리정술: 오영재선생의 《복수자의 선언》은 지금도 그 구절구절이 가슴속에 파고들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있지 않습니까.

최학수: 그럴수밖에 없지요. 16살나이에 어머니가 쥐여주는 주먹밥을 받아안고 의용군에 입대하였던 오영재선생이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 귀밑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였는데도 아직 그날에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피끓는 시인의 심장속에 왜 복수자의 웨침이 울려나오지 않겠습니까.

리정술: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 시기 시문학은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풍부한 서정에 담아 노래하지 못하고 사말사적인데 치우치였습니다. 더우기는 지난 시기 시창작에서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지 못한것으로 해서 조금만 문장을

풀어서 련결해놓으면 강연제강이 될만큼 사상이 생경하게 직선적으로 로출되고 결만 번지르하지 내용이 깊지 못하였습니다.

오영재: 바로 우리 시문학의 이러한 결함을 깊이 통찰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도식과 류형에서 벗어나 시의 고유한 속성인 서정성을 높이고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노래하는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작품들을 창작하도록 여러차례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영근: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사상감정을 노래한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와 같은 작품들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침속에 창작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송되고있지 않습니까.

오영재: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우리 시대의 사상감정을 풍부한 서정으로 노래한 다양한 형식의 생활적인 짧은 시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습니다. 최근 년간에 잡지 《조선문학》을 비롯한 우리 문단에 발표된 삶은 형식의 생활적인 수많은 시들에는 친애하는 그이의 세심한 지도가 깃들어있습니다.

리정술: 그런 사랑은 특히 가사문학창작에 더더욱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오래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정과 신념, 의지를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노래들을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오영재: 가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도 그 사랑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리정술: 그렇습니다. 몇년전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일군들은 그이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게 된 흥분과 기쁨만이 앞섰지 창작가들에게 창조의 새세계를 펼쳐주시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변화하던 거리에 또 정적이 깃들고 사람들모두가 행복의 요람속에 잠든 깊은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로투사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시며 북만원정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투사가 오늘은 우리 당을 따라 또다시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간다고 감회깊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일군들은 벅찬 감격에 가슴들먹이며 그 말씀을 받들고 좋은 노래를 창작하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대견하신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항일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제 써야 할 노래에 대해서도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고 친히 가사의 제

목을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라고 달아주시면서 이 가사에서는 혁명의 계승성문제를 옳게 취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창작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서 이 귀중한 가르침을 받아안게 된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대로를 6절에 나누어 가사를 썼습니다.

사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그대로 시이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가 잘 되었다고 저를 치하해주시었습니다.

김영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노래를 두고도 여러차례 지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리정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노래는 영화음악처럼 형상하지 말고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처럼 형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편곡과 연주형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형상된 합창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들으시고 가사를 좀 다시 쓸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3절의 가사는 손수 붓을 드시어 명문장으로 완성시켜주시었습니다.

천세봉: 리정술동무는 그밖에도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비롯하여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 영원히 한길을 갈 우리 인민의 불같은 신념을 노래한 가사들을 써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리정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를 썼다면 그것은 저의 그 어떤 창작적재능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초보적인 가사문법도 모르고있었던 저를 믿음과 사랑이 어린 손길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에 이끌려 성장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에게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의 영광까지 안겨주시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깊은밤 홀로 생각에 잠겨 자신의 창작에 대해 돌이켜볼때면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의 노래를 더 잘 쓰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김정: 얼마전에 한 시인이 불치의 병으로 림종에 이르러 가요 《단풍은 붉게 타네》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노래에 있는것처럼 인생의 희망을 꽃피워준 당을 받들어 단풍처럼 붉게 타려는 신념을 끝까지 빛내였기에 그는 영생하는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로 가려는것은 우리모두의 의지이고 신념이 아니겠습니까.

일동: 그렇습니다.

석윤기: 동서고금에 이름 떨친 작가들은 많지만 우리들처럼 당의 크나큰 신임과 은정속에 자기의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행복한 작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지향은 오직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것입니다.

사회: 위대한 명도는 위대한 현실을 창조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당의 작가로 성장한 여러분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꼭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본사기자 석유균

추억

박호범

추억은 가버린 시절의 고향집
어머님 여닫던 키낮은 쪽문이나
만나고 헤어지며 나누는 우정
사진첩에 남겨둔 그리움이나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린 훈장
조국에 기쁨될 아들의 권리이나
몸과 마음 못다바친 안타까움 있어
한생을 다시 살고싶은 아픔이나

추억은 기쁨과 아픔으로 엮여지거든
제 혼자 울고 웃다 생을 마치는
이것이 목숨 가진 인간의 추억이라면
조국에 무엇이 남는것이라

내 어머니 내 이름 용타고 불러주었듯
내 조국이 내 이름 장하다 불러주는
아, 그 한마디에 한생이 있구나
몸은 가도 두고 갈 나의 추억아

기쁨

김수범

평양의 하늘에는 구름한점 없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있었다. 공원속의 도시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수도의 무성한 가로수들은 소리나도록 설레었다. 저렇듯 푸르싱싱한 나무가 없다면 인간의 생활은 한결 단조로울것이다.

비행기의 활주로처럼 시원히 넓고 끝은 네거리 한복판으로 승용차 한대가 더위에 흐물흐물해진 아스팔트를 따라 달려갈뿐이었다. 정오의 해빛을 발산하는 그 승용차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앉아계시었다.

의자등받이에 기대신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좀 더 빨리 몰라고 하시었다.

그렇것이 방금 전국립업부문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다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식사도 하실념없이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그토록 기뻐하시는 까닭을 자세히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도 너무 기쁘시여 이 승용차로 항일혁명투사인 마동희동지의 어머니네 집에까지 오시는것이다. 이윽고 수수한 은회색 남방적삼차림으로 차에서 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활달하신 걸음으로 대문가에 다가가시더니 잠깐 걸음을 멈추시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인생의 온갖 풍파를 헤쳐왔고 이제는 또 년세까지 높아 어머니의 혈압이 높다는것까지도 고려하시는그이시었다.

그러기에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소리나게 여시었을 때문도 오늘날은 어머니를 너무 흥분시킬까 저어하시며 될수록 조용히 여시었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길부어머니가 마중나올것 같아서 지나가다 그저 들리신듯 집으로 먼저 들어가시었다.

까만치마저고리에 흰 머리수건을 쓰고 장관방을 걸레질하던 어머니는 분명 귀에 익은 음성에 급히 하던 일을 놓은듯 치마자락에다 젖은 손을 훔치며 놀라운 표정을 미처 풀지 못하였다.

《앙이, 내 집에 글썄 반가운 손님이… 이런 이런 변이라구야.》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들려보고싶어서 들린건데…》

《앙이, 그런데 어쩔문 그리두 똑같으신지… 나는 꼭 장군님으루 알았소다.》

어머니는 그 어데를 보나 친애하는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너무도 같으신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이 나라의 만백성이 그이를 위대한 수령님과 똑같이 따르고 모시는게 눈물겹도록 기뻐다. 길지 않을 자기 여생의 소원과 희망은 오직 거기에만 있기에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마음의 기둥으로 한번 지구를 통채로 떠받들어보고싶은 충동까지 느끼곤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다심한 어머니라 그이께서 이처럼 오시는 날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김정숙동지께서 함께 프락으로 들이서는것만 같은 혼자의 생각을 늘 현실처럼 믿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거목의 깊은 뿌리 같은 어머니의 그 생각을 리해하고도 남음이 있어 로인의 잔약한 두손을 뜨겁게 마주잡으시었다.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야 했던 항일혁명투쟁에서 아들 딸, 며느리와 남편을 잃고 일가문중에 혼자 남아 혁명을 계속해온 이 어머니야말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더없이 귀중하시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금년중에 제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두손을 그냥 마주잡으신 그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로인의 눈에는 물기 비슷한 정기가 돌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굳이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시더니 말씀하시었다.

《오늘 전국립업부문열성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아뿔싸!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을 그냥 서계시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뜻밖의 감격에 휩싸여 잠시 어쩔줄 몰라했던 자신을 탓하며 어머니는 그체서야 정히 마련했던 방식을 꺼내어 그이께 권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도리어 어머니가 그 방식을 깔게 한 다음에야 이야기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하에 열린 회의에서는 량강도 어느 립산사업소의 마동희천리마작업반장이 첫 토론을 하였다.

머리기름도 바르고 제긴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작업반장은 로동계급의 체취랄가, 아주 몸에 깊이 배인 송진냄새랄가, 어쨌든 일욕심과 손탁이 보통 드센것 같지 않았는데 토론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보아 자기 학력을 스스로 다 드러내는상실었다. 아니, 그보다는 난생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신 자리에서 술한 회의참가자들의 눈길

을 받으며 토론을 하자니 말 한마디가 굉장한 무게를 가진 립철기관차를 다루기보다 힘이 드는 모양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러운 웃으시더니 《토론원고를 읽느라하지 말고 동무들이 일하던 이야기를 자기 말로 하면 안되겠소?》 하고 물으시었다.

《예?!... 수령님! 사실 그렇게만 하도록 해주신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작업반장은 토론원고에서 눈을 떼더니 죄송하기 그지없는 표정으로 소리없이 웃었다. 그의 소박한 웃음은 마치 산관에서 가지고온 송진냄새를 온 장내에다 풍겨놓는듯하였다.

작업반장은 마침내 자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용기와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암만 들어도 피곤할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실로 일을 많이 하였다. 고생도 많이 해보았는가 하면 웃음이 나오도록 서투른 작업반장의 사업방법도 있었다.

《동무의 이야기가 아주 구수하구만... 그런데 방금 한 그 이야기를 다시 좀 해줄수 없겠소?》

《수령님! 다시 해올리겠습니다.》

작업반장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년간계획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때에 통나무를 스무대차나 련결한 립철기관차가 내리막길에서 점점 무서운 힘으로 마구 밀리우기 시작하였다. 제동기란 제동기를 다 썼으나 기관차의 바퀴들은 돌지 않으면서도 얼음관우의 썰매모양 사정없이 밀리기만 하였다.

어느 순간에 기관차가 탈선되어 허공 날아날지 알수 없는 위기일발의 순간, 벌써 철길에서는 불꽃이 일고 대차들의 기름통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워낙 짐이 너무 과한탓에 별의별 수단과 방법도 은을 내지 못하였다.

작업반장은 미칠것 같았다. 꼬리가 까마득한 통나무대차들을 돌아보니 불에 굵히우는 뱀장어처럼 버들쩍거리고 앞을 내다보니 전주대들이 다 누운것 같이 보였다. 죽음은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기관차는 이제 파철이 될것이고 10년째 넘쳐하던 년간계획은 금년에 와서 200립방이 모자라 못하게 될 기막힌 생각뿐이었다.

작업반장은 더 생각할사이없이 열아홉살밖에 안되는 견습공부터 문밖의 깊은 눈속에다 집어던졌다. 다음에는 협조원쪽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협조원은 작업반장의 허리를 그러안았다. 그는 울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했다.

작업반장도 그 말이 너무 고마와 마구 부둥켜안은채 불을 비비며 울었으나 끝끝내 무슨 결투를 하는듯이 힘내기를 하다 말고 협조원마저 내어던졌다.

기관차의 운전칸에는 작업반장이 혼자 남았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수 없었다. 죽는 순간까지라도 어떻게든 기관차와 통나무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살아돌아와 이 연단에서 토론까지 하고있는 작업반장이 아직도 바람이 난 그 립철기관차안에 그냥 있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듯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중한데 기관차와 통나무때문에 목숨을 내댄단말이요?》

작업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말씀에 저절로 목이 짹 메여 도저히 뒤말을 이어낼수 없었다.

이윽고 장내에 작업반장의 눈물젖은 목소리가 다시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 처자들이 있는 저도 살고싶었습니다. 그러나 변절자로 살 생각을 하니...》

로동계급의 뼈짚에서 나오는것 같은 작업반장의 량심적인 이야기가 하도 기특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박수를 쳐주시었다. 장내에서도 박수가 터졌다.

작업반장은 방금전까지 땀을 씻던 손수건으로 감격에 겨운 눈물을 훔치었다.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제일... 귀중하다는 사실은 실로 후손만대를 두고서도 그 은혜를 다 갚을수 없이 고마운... 사, 사랑인데.》

작업반장은 자기 고향도, 생일도, 몇살에 고아로 되었는지조차 모르다가 북창에 있는 한 자동차기업가의 집에서 목탄공으로 조수로 일할 때에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의 몸값이 나사들개 하나보다도 못하더라며 흐느껴울었다.

《우리에게 조국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모두가 고아... 고아였습니다.》

작업반장은 연락에다 얼굴을 묻고 더 어깨를 들먹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잠시 마음을 쓰시더니 사랑하는 자식의 어깨라도 두드려주시듯 조용히 작업반장을 부르시었다.

《그때 동무는 바람난 립철기관차에 혼자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소?》

한참만에야 겨우 연락에서 머리를 쳐든 작업반장은 잠시 자기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더니 겨우 대답을 올리었다.

《그때 제가 뛰어내리면 사람입니다. 우리 작업반은 마동희천리마작업반인데 마동희동지가 어떤 사람입니다. 조국의 생사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보위하기 위하여 신경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발로 남의 허가 아닌 자기 허를 꿇었습니다. 그런데 마동희동지의 이름을 가진 작업반장인 제가 기관차와 통나무대차들을 다 췌 팽개치고 뛰어내린다면 살아도 무슨 낯으로... 그래 죽

기내기로 애를 쓰노라니 마침 살 때라 이미 연락을 받은 도중 림철역에 술한 사람들이 쏘어나와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토론은 끝났다.

장내에서는 격동의 파도가 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박수를 쳐주시었다.

장내에서는 또다시 폭풍같은 박수가 터져올랐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길부어머니한테 전하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이께서 어머니를 찾아오시기전에 있었던 사실만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정중히 들으며 내내 감격을 금하지 못하시었다. 수령님께 것처럼 충직했던 마동회,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혁명의 새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강한 지조와 의리를 지켜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2천만동포들을 격동시키고 일제를 전률시킨 바로 그러한 아들을 낳아 항일성전에 바쳐준 장길부어머니를 생각하셨던것이다. 단순한 모성애로서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는데 조국이 것처럼 귀중하여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고 혁명에 온 일가를 바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인간은 적과 싸우는것보다 자기 감정과 싸우는것이 훨씬 더 힘든 경우도 있는 법이다. 원쑤와의 싸움은 한계가 있어도 자기 감정과의 싸움은 매 시각마다 불쑥불쑥 시작되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되기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그토록 깊은 생각에 잠긴것은 우리 당이 처음부터 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왔는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통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왔는가 하는 물음에 바로 그 마동회천리마작업반장이 자기의 실천행동으로서 대답한것처럼 생각되시여 가슴이 뜨거우시었다. 때문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작업반장이 그것만으로도 영웅의 자격이 있으며 우리 당은 웅당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한 그를 이제라도 학교에 보내주어야 하고 수많은 마동회를 키워 장길부어머니앞에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었다.

《그렇지. 그는 영웅이지. 당당한 영웅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절절한 의향에 더욱 기뻐하시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는 북받쳐 흘러내리는 눈물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훔쳐주시더니 잔약한 두손을 짹 마주잡으시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 눈물을 쏟으며 이런 말씀을 올리었다.

《항일전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나라에 한돌이 요다. 그래두 늘 우리 동회를 잊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이 너무 고마와서… 글썽 내 아들 동회가… 군복을 입구 싸운것은 겨우 일년인데…당이 이 늙은이한테 안겨주신 사랑은… 글썽, 아니 글썽 30년이 넘지 않소다.》

《어머니, 어머니! … 참, 이런 기쁜 날에 우시면 됩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웃고계셨으나 음성만은 무척 갈리시었다.

《눈물이 나와서 그러지 우는건 아니요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이라해되고도 남음이 계시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어데서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눈물부터 앞설 어머니가 아닌가! 그러나 어머니의 말처럼 인간생활에는 울음과 눈물이 서로 별개의 개념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안의 앓은뱅이 책상우에서 마동회동지의 자그마한 사진들을 집어드시고 한참이나 유심히 바라보시며 우리 혁명에 큰일을 해놓았는데 사진도 더 크게 확대해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어머니의 심장속에서는 너무도 위대한 은혜로움에 참아낼수 없는 경련이 일고있었다.

《어머니! 안경을 쓴 마동회동지는 이 사진에서도 심각한 얼굴이구만요. 하지만 산에서 싸울 때에는 노래도 아주 잘 불렀답니다. 노래중에서도 〈적기가〉를 제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에 어머니는 그만 참고 또 참아오던 흐느낌을 터뜨리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언젠가 우리 군대들이 왜놈들을 크게 이긴후… 잠간 집에 들린 동회가 온 가족들앞에서 〈적기가〉를, 〈적기가〉를 부르고 그 뜻을 깨우쳐주었수다.》

어머니는 바로 그 생각때문에 자기의 응석같이 주책없는 흐느낌을 선뜻 멈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자한 표정이신 그이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철부지시절에는 어머니한테 응석을 부리고 말년에는 도리어 자식한테 어머니가 응석을 부리는 법이라 생각하시더니 유심한 시선으로 흰 종이가 덮여있는 자그마한 밥상이며 그옆의 불통에서 곱돌장사귀가 끓는것으로 보아 아직 점심식사전임을 가늠하시었다.

사실 이 순간에도 대문밖에서는 운전사가 기다리고 집무실에는 술한 일감이 밀리고있을것이지만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대로 그냥 떠나가시면 로인이 식사를 건넬 걱정을 하고계시었다.

《어머니 ! 제가 기쁨김에 어머니의 지난날을 한가지 알아맞혀보랍니까?》

《예 ? !》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머리를 든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혁명을 하노라 밤낮없이 뛰어다니다가도 아무때건 불쑥 집에 뛰어들어서는 <어머니, 밥, 밥 ! ... 배가 고픈데 빨리 먹이야 또 가지요> 않습니까.》

어머니는 웃음어린 실눈을 지었다.

《그런 일은 푸술히 있었소다.》

《그럼, 한가지 또 알아맞힐가요. 그렇게 목이 메도록 급히 밥을 먹고 나가다니 어머니와는 한번도 맛상을 못해 보았지요. 도리어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보면 무서운 근심으로 가슴을 조이며 혼자 부뚜막에서 대강 요기를 하는체...》

《앙이, 어찌면 구차하기 그지없는 화전민 엠네들의 일을 그렇게도 신통히 알아맞히시오다.》

어머니는 웃음어린 실눈가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그러니 오늘은 기쁨김에 한번 저 아들과 맛상을 하고 식기전에 식사하는것을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내내 심각한 얼굴인 아들도 웃을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밥상을 드시여 어머니앞에 가까이 놓으시더니 굳이 수저를 쥐여드린후 콘로에서 펄펄 끓는 곱돌장사귀를 밥그릇결에 옮기시었다.

《앙이, 이제, 이제... 무슨 일이요다. 그 끓는 장사귀를...》

《어머니두, 별 말씀을 다 합니다. 어서 식기전에 식사를 하시기만 하면 나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또 한가지 기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식사를 안하시면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러시자 어머니는 별수없이 떨리는 손으로 감격의 눈물에 젖은 밥을 억지로 삼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도 자기 아들에게 너는 왜 인사를 올릴줄도 모르느냐-며 끼이끼이 목 멘 소리를 하였다.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자손이 제일 많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마동희작업반원들이 모두 마흔명이고 탁아소로부터 중학교까지 다니는 애들이 아흔여섯이니 글썄 어머니의 자손이 모두 열마입니까 !》

《에그, 이제 무슨 일이요다.》

잠간 밥술을 멈춘 어머니는 울수도 웃을수도 없는듯 이렇게 말씀을 올리였다.

《당에서 키운 자식들을 이 늙은이한테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당의 아들이였기때문에 마동희처럼 살려는 아들들은 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한번 그 자식들을 가서 만나보라고 하시었다. 아들들한테는 엄하게 훈시도 하고 딸과 며느리들한테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고 장난과 버릇이 곳은 손자녀석들은 할머니 무서운줄을 알게 더러 아래종아리를 회초리로 쳐보라고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는 자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껴보는것처럼 무한한 기쁨에 휩싸여 웃고있었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호방한 음성으로 웃으시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내니 나까지 배가 부릅니다.》

크게 만족하신 그이께서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시고 자리를 뜨시었다.

전국립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마동희천리마작업반장에게 공화국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그 소식이 전국에 보도된 열흘후에는 장길부어머니가 간호원, 안내일군과 같이 마동희천리마작업반을 찾아가기 위하여 급행열차로 평양역을 떠났다.

×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 무엇으로서도 도저히 멈춰세울수 없는것이 시간이지만 흘러간 세월속에서 생겨난 어떤 추억은 인간의 망각을 초월하며 퇴색할줄도 사라질줄도 모르고 옛날의 그 순간처럼 생동하게 되살아나는 때가 있다. 아마 그래서 유명한 추억들이 력사라는 수단으로 후대들까지 영영 기억할수 있게 만들었으리라 !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며 어느날, 당과 정부의 책임적인 일군들과 함께 대성산 주작봉에 있는 혁명렬사릉을 몸소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오늘을 안아온 렬사들을 추모하여 오래도록 묵상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중하를 어깨에 느끼시며 그냥 서계시었다. 깊은 사색과 원대한 구상으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정신적인 로동을 계속하시던 그이께서는 불어오는 바람에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날리시며 자신의 고향이고 성스러운 혁명의 땅이였던 저 아득히 먼 백두산발들을 사색과 상상의 자욱으로 밟아보시듯하시었다. 그러시더니 귀를 기울이시며 항일의 충성을 여기에서도 방불히 다 들으시는것 같았다.

깊은 명상에 잠기신 그이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렬사들에게 안겨줄 위대한 사랑을 구상하고계시었다. 당창건 40돐과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혁명렬사릉을 더욱 큰 규모로 개건확장하며 배경

도 지금처럼 소나무숲이 아니라 투사들이 피로써 지켜왔고 우리 인민이 넘겨받아든채 어제든 오늘든 매일도 혁명을 계속해야 할 붉은기발로 하실 결심을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다음 행사시간이 박두했습니다.》

수원중에서 누군가 그이께 정중히 말씀을 올리였다.

《일없습니다. 새로 창작된 무대예술작품들을 보여주는 시간이야 뒤로 좀 미루면 되지 않습니까. …렬사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소원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대의 정중한 자세로 서있는 몇몇 렬사들의 석상을 마저 돌아보시였다. 그러시더니 문득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장길부어머니구만요… 아들과 나란히 …》

그이께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번갈아보시였다.

《동무들 ! 얼마나 좋습니까. 년대순으로 석상을 세우던 판례를 떠나 우리가 이렇게 한것은 혁명투쟁을 하느라고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있지 못하고 서로 그리워하던 사정을 고려한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무들 ! 어머니와 아들의 얼굴에 소원이 풀린듯한 표정이 어리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서서 자기들의 념원이었던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을 경탄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 결을 떠났다고만 생각할수 있습니까. 여기로 찾아오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도 해주는 이 어머니와 아들은 분명 오늘도 우리와 혁명을 함께 하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와 아들이 과거도 같이 추억하고 옛날 싸우던곳을 함께 바라보며 그때와 오늘의 놀라운 현실을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념원을 계속 꽃피워 사회주의건설을 더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금 아들 마동희동지와 한창 유쾌히 이야기를 나누던 장길부어머니가 생시에 자신께서 집으로 찾아가시면 근엄하게 이야기를 듣곤하던것 같이 느껴지시였다.

허리에 두손을 올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몇년전 장길부어머니와 함께 마동희천리마작업반에 갔다온 한 일군을 돌아보시더니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시였다.

그러자 그 일군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듯 조용 조용 이야기를 하였다.

《…떠날 때에는 일주일안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마동희천리마작업반원들과 부양가족들, 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립산사업소를 낀 정거장

으로 쏠어나와 방금 렬차에서 내린 어머니의 옷자락에 마구 매여달렸습시다. 여기저기에서 〈어머니!〉 〈할머니!〉 하고 소리쳐부르는바람에 온 정거장이 감격의 눈물로 젖는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작업반장과 어머니의 상봉은 당장 렬차를 움직여야 할 기관사까지 두눈을 습벅이게 하였습니다.》

그 일군은 두눈이 불빛하게 상렬되어있었다.

《자 ! 이제는 주작봉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던 아들과 함께있는 어머니를 보아서인지 기본이 한결 좋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발길을 옮기고계셨으나 그때 어머니가 그 유명한 마동희천리마작업반의 립철기관차를 타고 산판에까지 가보았으며 《대가족사진》까지 찍구도 인차 떠나오지 못했던 사정을 생각하고계시였다. 집집마다 특식을 해놓고 모셔다가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하루밤씩 묵으며 보아야 한다는 강권에 못이겨 어머니는 근 한달만에야 평양으로 올라오셨었다. …

그이를 따라 주작봉을 내리는 수행원들은 누구나 말없이 가슴뜨거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성과 덕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태양과도 같은 은혜로움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은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에게, 우리 인민모두에게 그 무엇보다 귀중한 믿음이라는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실수 있는것 주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끝을 알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품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기에 당과 조국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충성의 천만대오를 지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그처럼 모시고 따르는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랑은 그이께 생존의 운명을 맡긴 수천수만의 전사들로 하여금 혁명의 간고한 시련의 고비도 고통이 아닌 랑만으로 느끼게 하고 모진 추위와 굶주림과 습막히는 불바다속에서도 한순간 그것만 넘으면 어차피 향유하게 될 고귀한 행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도록 해주게 하는것이다.

사색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웬 일인지 주작봉중턱에서 다시 또 멈춰서시였다.

《동무들 ! 잠간 저기를 좀 굽어보시오. 온 대성산유원지가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언제나 명절분위기입니다. 저것이 바로 인민의 행복이고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척 기뻐하시였다. 한량없는 그이의 기쁨은 하늘땅에 닿아 푸른 하늘이며 흰 구름 피어나는 산발이며 오펙이 무르익는 대지에 찬란한 태양의 빛발로 가득 차고넘치였다.

가사에서 시적발견과 형상성문제

김해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있는 노래 《단풍은 붉게 타네》(배현평 작사)의 가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을 안겨주고 있다.

꽃이 피는 봄이면 꽃이 그리워
단풍나무 한그루 하소연하네
봄이여 봄이여 내 일세에도
한떨기 꽃을 피게 해주렴
아, 한떨기 꽃을 피게 해주렴

온갖 열매 주렁진 가을이 오면
단풍나무 설레네 더욱 간절히
가을아 가을아 내 아지에도
향기론 열매 맺게 해주렴
아, 향기론 열매 맺게 해주렴

이 얼마나 소박하고 절절한 소원을 담은 가사인가!

얼핏 보면 가사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노래한것 같기도 하고 자연에게 부질없는 하소연을 간절히 하는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가사는 그 뜻을 되새겨보면 볼수록 깊은 의미를 안겨주고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아름다운 꿈도 소원도 많다. 화려한 꽃을 피우고 훌륭한 열매를 크게 맺어 일생을 값있게 빛내이려고 하는것은 우리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꿈이고 소원이다.

그러나 이런 소원, 이런 꽃을 어떻게 피워나가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사에서 단풍나무가 꽃이 피는 봄에게 자기의 일세에도 한떨기 꽃을 피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것은 마치도 인생의 청춘기에 자신의 희망과 포부를 한떨기 꽃으로 피우고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말해주고있는듯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피는 청춘기에 희망을 꽃피워 이름을 날리고 못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꾸짖거나 탓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례지는것이 아니며 더우기 그것이 차례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비록 청춘기에 꽃을 피우지 못해도 장년기에 가서 훌륭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하기에 가사에서는 단풍나무가 가을에 가서 자기 아지에도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설레이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이것 역시 인생의 장년기에 훌륭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말해주고있는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의 이러한 소원을 그 누가 탓하겠는가.

만일 가만히 앉아서 명예와 공명이 차례지기를 바라지 않고 아름다운 꿈과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그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생철학을 가사는 붉게 타는 단풍의 일세를 통하여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지난날 나라잃은 우리 인민들은 가을을 락엽과 결부시켜 만물의 황혼기로, 생의 로쇠기로 보면서 쓸쓸함과 허전함, 슬픔의 대명사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을을 붉게 타는 단풍과 결부시켜 행복이 열매맺는 계절로, 열정이 더욱 붉게 타는 계절로 보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풀리는것으로 확신하고있다.

시인은 가을과 단풍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은유적으로 노래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꽃과 열매를 갈망하면서 참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마침내는 꽃도 열매도 부럼지 않게 붉게 타는 단풍으로 온갖 소원을 다 풀수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봄 가을에 바라던 단풍의 소원
따사로운 해빛이 풀어주었네
열정의 그 일세 붉게도 타네
꽃도 열매도 부럼없이
아, 꽃도 열매도 부럼없이

가사는 비록 화려한 꽃도, 향기로운 열매도 맺지 못하였지만 열정으로 붉게 타는 일세로 단풍의 소원이 풀리는 형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의 소원을 꽃피우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현상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자기를 소문없이 꾸준히 가꾸어 붉은 열정으로 설레이는 단풍은 꽃중의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중의 제일 훌륭한 열매로 열렬히 긍정함으로써 당과 수령을 위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인간과 그 인생관의 진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형상하고있다.

가사 《단풍은 붉게 타네》는 이렇게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의 인생관을 긍정하는데만 머물지 않고있다.

시인은 그 누구도 단풍나무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였지만 따사로운 해빛은 그것을 풀어주었다

는것을 밝힘으로써 그 사상적내용을 더 한층 시적으로 부각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가사는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높은 시형상으로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그 예술적생명력이 좌우된다. 여기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부각할수 있도록 참신한 시적발견을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사 《단풍은 붉게 타네》가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가사는 그 누구도 풀어주지 못한 단풍의 소원을 따사로운 해빛이 풀어주었다는 시적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대 인민들의 보람과 참된 삶의 가치는 오직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만 빛내일수 있다는 사상을 뜻깊게 노래할수 있었다.

이러한 시적발견을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시인은 한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가질수 있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 간절한 념원들을 계절에 따라서 절절히 바라는 단풍나무의 소원에 비유하면서 감정을 축적해오다가 마지막절에 가서 여운있게 안겨오게 하였다. 다시 말하여 일찌기 꽃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따사로운 해빛의 덕분으로 모든 꽃과 열매가 다 스리진 늦가을에 단풍나무는 자기의 일세에 한송이 꽃이 아니고 몇개의 열매도 아닌 나무전체가 그대로 붉게 타서 꽃도 열매도 부럼없이 만산을 붉은 빛으로 장식할수 있었다고 노래하고있다.

하여 사람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꽃도 향기로운 열매도 오직 우리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영원히 빛내주는 우리 당의 따사로운 해빛아래서만 꽃피고 열매맺을수 있다는것을 천명함으로써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형상적으로 잘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가사에서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 열정의 일세가 붉게 타고있는 단풍나무의 모습을 통하여 당의 해빛아래 영원히 로쇠와 침체도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의 붉은 꽃을 피우고있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풍모를 보여주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은덕과 그 고마움을 절절하고 뜻깊게 노래하고있다.

이것은 곧 80년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가사는 이처럼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만 전사의 참된 삶이 꽃피나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정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여기에 이 가사의 깊은 여운과 철학적사색이 있다.

이렇듯 짧은 가사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인생관과 혁명적수령관을 시적형상으로 꽃피울수

있은것은 또한 그것을 세련된 시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사에서 의인화와 형상적비유를 쓰는 경우에는 의인화의 대상에 시인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담아 노래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가사는 1, 2절의 첫 두행에서 단풍나무의 소원을 제3자의 립장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다음 두행에서 의인화된 단풍나무가 직접 자기의 소원을 토로하게 하였다.

봄이여 봄이여 내 일세에도
한떨기 꽃을 피게 해주렴

가을아 가을아 내 아지에도
향기론 열매 맺게 해주렴

...

이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운 마음의 호소인가!

가사는 다른 가사와는 달리 의인화된 대상이 직접 감정을 토로하게 함으로써 뜻깊은 감정이 더욱 절절하게 안겨오게 하였다.

3절에서는 가사의 전체시행을 시인이 주정토로로 일관시켜 앞의 두절에서 노래한 감정을 결속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가사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봄이면 온갖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열매 주렁지는 수려한 강산의 풍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심히 스쳐보내던 단풍나무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안겨오면서 뜻깊은 정서를 더욱더 강렬하게 불러일으켜주고있다.

하여 마치 자기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호소하는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지를 그대로 노래하는것 같이 친근하면서도 절절하다. 가사에 흐르는 감정에서 주도적인것은 참다운 삶을 갈망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소박하고도 강毅한 감정세계이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풀어줄수 없는 소원까지도 꽃피워주는 우리 당에 대한 한없이 고마운 사상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세계는 그윽하고 은근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적정서에 맞게 시내물의 속삭임처럼 조용하면서도 뜨겁게 흘러들고있다.

가사에 흐르는 이러한 감정정서는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단풍나무에 대한 서글픈 감정이나 비관적인 정서가 아니라 소박하면서도 강毅하고 부드러운것도 뜨겁다.

이처럼 참신한 시적발견과 세련된 시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주체의 인생관과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풍만한 정서로 안겨주고있는데 이 가사의 매력과 생활력이 있다.

시인들은 이 가사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공을 널리 일반화하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시적발견이 있고 형상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신사동의 새 전설

리하성

아침에는 제법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선선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한낮이 가까와오면서 언제 서리가 내렸던가싶게 자글자글 피약별이 내려쬐이기 시작하였다. 풍요한 들판에서는 탐스러운 황금빛 귀밀보리이삭들이 춤추듯 와수수 설레이고 그 무르익은 향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마냥 들먹이게 했다. 풍년든 귀밀보리밭 한쪽 시내가의 버들숲에서는 칠삼을 즐기는 농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웃음속에 수줍음을 타는 듯 자리에서 일어선 분홍색머리수건을 쓴 외태머리처녀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달리는 자동차소리때문에 노래를 푹푹히 들을 수 없는 박주성은 운전칸의 차창밖을 내다볼뿐이었다.

혜산을 떠나 위연과 오시천을 통과한 자동차는 황토색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며 대오시천마을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박주성은 반원형으로 에돌아달리는 이 몇분사이에도 농민들의 흥겨운 오락회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마침내 박주성은 가속기관을 밟는 운전사의 어깨를 슬쩍 건드렸다.

《차를 좀 세워주요.》

웬일인지 처녀의 노래소리를 듣고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새라 차에서 성큼 뛰어내렸다. 처녀가 부르는 노래의 선율이 들려왔다. 그는 취한듯 노래가락에 놀리워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참 그 애가 노래를 잘 불렀다고 했지… 혹시 지금 노래를 부르는 저 처녀가 애타게 찾고있는 그 애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렇다면 내 오늘 출출 모르는 춤이라도 한바탕 추리라.)

거의 판이 난 지하죽을 신고 퇴색한 보위색바지에 소매짜른 베샤를 입은 박주성은 중년사나이답지 않은 흥분으로 가슴을 뒤설레이고있었다. 문득 걸음을 멈춘 그는 자동차쪽으로 고개를 돌려 운전사에게 발동을 끄라고 손짓하였다. 자동차의 둔탁한 소음이 사라지자 노래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나의 오빠여
지주놈 장리빛에 날 팔지 말고

박주성은 자기도 모르게 《너성해방가》의 부드럽고 청아한 노래가 울리는 오시천가의 버들숲으로 반달음을 쬔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갈념을

않고 여라문발자국 떨어진곳에 서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절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데서 오시는 손님인지 여기 와 앉으시다.》

얼핏보아 왼살쭉 나보이는 풍채좋은 아바이가 곰방대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고들 하십니다.》

가까이 다가간 박주성이 허리굽혀 인사를 하자 노래부르던 처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제동무들속으로 숨어버리고 좌중은 소리내어 웃었다.

《허허 처녀동무, 왜 그러오. 지나가다가 노래소리에 반해서 동무의 얼굴이라두 보려구 왔는데…》

풍절반 쉼어가며 이렇게 말한 박주성은 뒤꽂무니에 차고있던 타올수건을 뽑아 목덜미를 문질렀다.

《아니, 공산당 첫 파견원어른이 어떻게…》

아바이가 박주성을 알아보고 반색하여 맞이하였다. 1946년 3월초 혜산군에 다니러 갔던 아바이는 패공정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토지개혁법령을 지지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연설하는 그를 가까이에서 보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박주성은 아바이손을 뜨겁게 쥐어주며 그를 자리에 앉혔다.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박주성의 소박한 차림새며 격식없는 소탈한 행동에 의아해하였다.

한창 이러는데 그 아바이가

《귀한 손님이 온줄을 저 아주머니두 안것 같니다. 애 정옥아…》 하며 길쭉을 가리켰다.

방금 박주성이 온 두렁길로는 마흔살쯤 되어보이는 아주머니가 짧은 색시와 함께 점심그릇을 담은 광주리며 바깥쪽을 이고 들고들 왔다. 어느새 노래부르던 처녀와 몇몇 아주머니들이 마주 달려가 하나씩 받았다.

아마도 그들은 이웃끼리 품앗이를 하는것인데 주인집에서 점심을 차려오는것 같았다.

《허허 노래들으러 왔다가 점심까지 대접받게 되는데 아닙니까.》

《발머리에서 먹는 음식맛이 별미랍니다, 얼어진김에 쉬여간다구 함께 식사나 합시다.》

이렇게 말하던 아바이는 운전사를 데려오자고 했다.

《가만 두십시오. 인차 가야겠는데…》

박주성이 굳이 사양하였다. 어느새 눈치 빠른 외태머리처녀가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고있었다.

《우리 정옥이가 제일이라니까. 노래 잘 부르지, 일 잘하지, 인물 잘났지, 저 엘 데려가는 총각은 호박을 받아안은셈이지, 예그 실루 쫓쫓.》

농민들은 한바탕 또 웃었으나 박주성은 식사를 이고온 그 아주머니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혀를 차는 버릇이며 말수더구가 많은 이 아주머니를 어데선가 꼭 본것 같은 생각이 나서였다.

(어데서 봤을가?)

사람을 찾아 지하쪽 한켠레가 다 판이 나도록 함경북도일대를 거의 다 돌아다니던 나머지 이제는 박주성의 관심이 그런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았다.

《아버님, 정옥이가 〈녀성해방가〉를 어데서 배웠습니까?》

박주성은 처녀가 달려가는쪽을 건너다보며 로인에게 말을 걸었다.

《해방전에 신사동서 살 때 마을아낙네들한테서 들어배웠습지요.》

박주성은 그만 신사동이야기가 나오자 자기 귀를 의심하며 반문할듯한 표정으로 로인을 돌아보았다. 뜻밖이었다.

《가만, 저 실레이지만 신사동에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박주성은 로인의 대답을 재촉하는듯 성급히 물었다. 로인은 잠시 의아해졌다. 그러더니 미심쩍은 말투로 반문하였다.

《아니, 그건 왜 그렇게 캐여물수다. 예?!》

로인의 얼굴에 어색하면서도 활달한 기색이 떠오르자 박주성은 자기두 해방전에 신사동에 한번 가본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사람종게 말해주었다.

《아, 그렇소다. 그제 그러니까 일구삼팔년도 가을부터였는데 거기서 결국 8.15해방을 맞구 여기로 옮겨왔지요다.》

로인은 속구구를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이때 정옥이 운전사를 데려오는 바람에 박주성은 아쉽게도 더 물어볼수 없었다. 모두 그들 밀 평퍼짐한곳에 차려놓은 음식그릇주위에 둘러앉았다.

《허 이 아주머니가 무슨 잔치상을 차릴 잡도릴 한가부다》

《예그, 아바이 보겠음. 이 좋은 세월에 무엇이 모자라 못차리겠수다.》

로인의 말에 아주머니가 하는 대답이었다.

《운전사동무, 우리가 발이 길다보니 때맞추은것 같소.》

박주성이 우스개소리를 하자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지금 세월에서 아무 집에 간들 식사 한끼 대접 못받을라구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구 손님이 와두 걱정이 없소다.》

아주머니가 막걸리사발을 박주성에게 권하며 하는 말이였다.

《저는 막걸리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농말국수나 푸짐히 말아주십시오.》

박주성은 운전사를 의미있게 건너다보며 받았던 막걸리사발을 로인에게 권하였다.

《막걸리두 술이라구 못하겠수다. 한사발만 어서 내시우.》

로인이 재차 권하였으나 운전사의 보증으로 첫 막걸리사발은 결국 아바이한테로 넘어갔다. 모두 막걸리를 한사발씩 들이킨 다음 식사를 시작하였다.

박주성이 감자음식을 좋아한다는것을 알아 아주머니가 그앞으로 농말국수며 언감자떡을 무드기 가져다놓았다.

박주성은 자기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들을 유심히 굽어보더니 수저를 드는 좌중의 기쁨과 환희를 둘러보며 거의 본능적으로 입을 떼었다.

《이렇게 푸짐한 감자음식을 보니 별로 생각이 깊어집니다.》

《?!...》

로인은 의아한 눈길로 박주성을 쳐다본다.

《우리가 정말 백두산에서 싸울 때 이 감자가 없었더라면 어쩔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파견원어른두 김일성장군님의 부대에서 싸웠단말씀이시오 예?!》

로인의 경탄에 찬 이 물음은 좌중을 긴장시켰다. 박주성의 얼굴에는 어색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저 장군님의 품을 찾아간 덕분에 이만큼 잔뼈가 굵었습니다. 말이 낫으니 말이지 몇달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에 회의보러 간 우리들을 댁에 부르시여 1939년 5월 신사동에 나왔을 때 한 귀틀집에서 삶은 감자와 당콩을 대접받던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신사동에 나오셨됐수다?》

아바이가 자세를 고쳐앉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박주성은 좌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금년 5월 22일, 평양에서 무산지구전투승리 열흘 기념행사가 끝난 뒤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투사들을 댁에 부르시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시였다.

그날저녁 박주성은 출출하던 참이라 김정숙동지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달게 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몇술을 뜨고보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껏 수저를 들지 않으신채 무슨 깊은 생각을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동무들과 밥상을 마주하고보니 10년전 이날밤에 신사동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더니 신사

등을 생각하면 김로인과 노래를 잘 부르는 정옥이라는 소녀애가 먼저 떠오른다니며 이제는 정옥이도 처녀꼴이 잡혔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계속하여 해방이 되면 꼭 만나자고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고하시며 이번에 내려가면 김로인과 정옥이를 꼭 찾아달라고 박주성에게 부탁하시였었다.

박주성의 이 말에 깜짝 놀란것은 김로인이였다.

《아니 김정숙동지께서 우리를 찾으신단말씀입니까. 제가 바로 신사동의 그 귀틀집로인이구 저게 내 딸 정옥인데… 애 정옥아! 사람이 살다가 세상에 이런 경사로운 일두 있단말이나 영?!》

김로인이 박주성의 손을 와락 잡아쥐며 두눈을 습뻑하는데 박주성은 박주성대로 경탄의 눈길을 노래부르던 처녀에게로 던졌다.

《아 죽지 않고 살면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요.》

박주성은 김로인과 정옥이를 이곳에 두고 판곳으로만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 결국 그때 우리 집을 찾아주셨던 분이 바로 김정숙동지였단말이군요. 지옥갈던 그 세월 왜놈산림간수한테 못매를 맞아 어혈이 들었던 이 늙은것한테 웅담을 주시고 불쌍한 우리 정옥이 손에다 크림을 발라주신 분이…》

격정에 넘친 로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개울가에서 그릇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처녀의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정옥이가 아주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채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고있었다. 박주성도 운전사도 두눈을 습뻑이며 상봉의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실로 등잔밑이 어둡다는 조선속담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바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늙은것이 글썄 복을 받을줄만 알았지 의리를 지킬줄 몰랐단말이웨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집을 찾아주지 않으셨더라면 내 딸과 늙은이의 가슴에 민족재생의 희망찬 숨결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아남을수 없었을거우다.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제 행복에만 취해서 은인을 잊고 은인이신 그이께서 오히려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다니.》

정옥의 어깨를 부여잡고 눈가에 웃고름을 가져가던 그 수다스럽던 아주머니가 박주성에게로 다가왔다.

《혹시, 그럼 그때 목재소합바집에서 우리한테 〈녀성해방가〉를 배워주실 때 하모니카를 불던 분이 아니오다?》

박주성은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되물었다.

《예, 제가 바로 하모니카를 불던… 그러니까 아주머니두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저이가 바로 〈갑산집아주머니〉 우다.》

김로인의 말에 박주성은 이제야 옛모습을 알아 보았다.

《아, 갑산집아주머니! 그래서 아까부터 별루 낯이 익어보였군요.》

김로인과 정옥이, 박주성과 〈갑산집아주머니〉들은 물론 강가에 모였던 사람들모두는 감격에 겨워 어쩔줄 몰라했다.

싱그러운 강바람에 버들숲이 설레이고 강물은 흘러간 세월을 거슬러 흐르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있었다.

그날밤, 조선인민혁명군을 맞이한 신사동 목재소 합바집은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장작패는 소리, 웃음소리, 하모니카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로 집안밖이 떠들썩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을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동천가의 박우물에서 물을 길어오시였다.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보니 꼭 고향집에 오신것만 같아 감회가 깊으시였다. 두해전인 1937년 6월에는 도천리와 신파일대에서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보천보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하시였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국땅에 진군하여 보내시는 이 나날들이 그리운 고향땅에서 부모형제, 친척, 친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는것처럼 더없이 기쁘고 소중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부엌에 들어서시자 동자질을 하던 마을녀인들이 저마끔 물동이를 받으려 마주다가오며 만류하였다.

《아이구, 이제 그만두시우다. 먼길을 오시느라 구 피곤하실텐데. 쫓깁.》

문열에서 칼도마질을 하고있던 갑산집아주머니가 혀를 끝끝 차며 남먼저 물동이를 받아내리웠다.

《고향집에 온것 같아서 아무리 일을 해두 힘든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하실가.)

물동이를 제자리에 놓은 갑산집아주머니는 김정숙동지를 방으로 모셨다. 갑산집아주머니는 뒤따라 들어온 성심의 귀에 대고 그이께서 총도 잘 쏘시는가고 물었다.

《총알 열알에 왜놈 열놈을 잡는 명사수랍니다.》

녀인들은 눈을 크게 뜨며 탄성을 질렀다.

갑산집아주머니는 왜놈잡던 이야기나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허나 그이께서는 겸손하게 사양하시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심이 갑산집아주머니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다정하게 속삭였다.

《아이, 그렇수다!》

그는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며 남던저 그 사실을 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손뼉을 쳤다. 녀인들은 의아한 눈길로 서로 마주보며 영문을 몰라했다.

이윽고 갑산집아주머니는 녀인들을 향하여 김정숙동지의 노래를 듣는것이 어떤가고 제기했다. 집안에서는 순간 짹짹 그 환희로운 웃음판이 터지고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성심을 향하여 가볍게 눈을 흘기시었다. 성심은 웬일인지 뻥소니치듯 밖으로 나갔다.

호기심어린 못시선들이 그에게 쏠렸다. 몸에 꼭 맞는 초록색군복, 붉은 벌이 반짝이는 모자채양아래 영채도는 그윽한 눈, 설한풍에 깎슬은 서글서글한 얼굴,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는듯한 아름답고 억센 그 모습을 녀인들은 넋없이 바라보았다.

이윽고 성심이 하모니카명수 박주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주성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시었다.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꽃 못피운 원한
아느냐 그대여 녀성동무들

마당앞 황철나무에 날아든 밤새들이 흰 가슴을 봉긋이 내밀고 부리를 집쪽으로 기울였다. 나무가지에 집요하게 매달려있던 묵은 잎사귀가 부엌문가에 와서 잠깐 멈추었다가는 몸을 뒤채이며 사뿐히 자리를 잡는다. 탁탁 튀던 아궁속의 이깔나무 장작도 숨을 죽인듯하였고 조약돌을 굴리며 흘러내리는 사동천도 흐름을 멈춘듯하였다. 부드럽고 절절한 선물은 녀인들의 멍들고 메마른 가슴에 흘러들어서는 얼어 굳어진 심장을 포근히 어루만져 피를 끓게 하는것이였다.

숨죽였던 감정을 되살려주고 흘러간 시절의 가슴아픈 추억들을 불러일으켰다. 피기도전에 짓밟힌 숙절없이 흘러간 청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생활의 자국자국이 환영처럼 눈앞에 일른거린다.

돌이켜보면 이날 이때까지 어느 한 순간도 시름과 고통이 가서진적 있었으며 맑은 웃음이 피어본적 있었던가... 머리우에 인 하늘은 언제나 검은구름에 뒤덮여 숨가쁘게 낮추 드리워있었고 연약한 허리는 무거운 중하에 짓눌려 때이르게 휘어들었다.

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래를 배워달라고 줄랐다. 일손을 놀리며 한소절씩 따라불렀다. 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노래를 빨리 익혔다. 처음에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았으나 몇번 반복하니 제법이였다.

심장으로 부르는 녀인들의 합창소리는 집안을 울렸다. 키낮은 천반과 통나무담벽에 서로 부딪치고 튀어나며 소용돌이치던 거센 음향은 점차 비장

하고 장엄한 음조로 고조되다가 드디어 홍수처럼 와-벽체를 밀어 내고 프락으로 쏟아져나왔다.

탁 탁 아궁에서 장작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런데 정옥이가 왜 안보여요.》

보배가 생각에 잠긴 눈길로 줄곧 한곳을 응시하며 누구에게라 없이 말하였다.

《글쎄, 정옥이가 이 노래를 부르면 다 눈물을 흘릴거우다.》

갑산집아주머니가 녀인들을 빙 둘러살피며 말했다.

노래에서는 정옥이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올해 설날밤에 온 마을녀인들이 모여들어 웃놀이를 하었는데 진쪽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내기를 걸었었다. 그때 정옥이가 걸렸는데 뜻밖에도 노래를 기막히게 불러 일동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또한 돌기의 고달픈 년륜을 새기기 시작한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던 설날밤에 정옥이 부르던 그 노래소리를 녀인들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었다.

모두들 찾았으나 정옥이는 보이지 않았다.

《저녁때 일을 마치고 올라갔는데 아마 마을에 이런 경사가 난걸 모르는 모양이우다.》

보배가 몹시 서운해하며 하는 말에 갑산집아주머니가 급히 뒤를 달았다.

《아버지 병때문에 약달이느라구 못오는구먼.》

《왜 앓는가요?》

갑산집아주머니가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글쎄 어제 허가없이 부대발을 일꾼다구 왜놈 산림간수한테 죽도록 매를 맞았다우다. 참 기막힌 일이지오다. 쫓쫓.》

《그래요! 약쫓스러운놈같으니라구.》

녀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 치를 떨었다.

《정옥이네 집이 멀니까?》

오가는 말을 귀담아들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물으시었다.

《골짜기루 한참 올라가야 되우다. 글쎄 작년 가을에 이사왔는데 늙은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산전막에서 외롭게 살구있지오다.》

갑산집아주머니의 동정에 찬 덕두리를 귀담아들으신 그이께서는 군모를 고쳐쓰시었다.

《아니 거길 가시려구요?》

갑산집아주머니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물었다.

《예, 좀 다녀올가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방구석에 놓인 배낭을 집으시려 하시었다.

(배낭은 왜 가져가려 하실가?)

성심은 재빨리 먼저 배낭을 집어메었다. 밖은 지척을 분간할수 없이 캄캄하였다.

《이 밤중에 거기가 어데라구... 그리구 길이 여간만 험하지 않수다.》

갑산집아주머니는 자기가 공연한 말을 꺼내여 그이께 수고를 끼치는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며 굳이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벌써 문밖에 나서시였다.

김정숙동지의 결심을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알아차린 갑산집아주머니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떠나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이께 수고를 끼치지 않으시려는 마음에서 굳이 사양하시면서 길만 가르쳐 달라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동천이 흘러내리는 로은산 골짜기로 접어드시였다. 우중충한 잣나무숲을 지나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니 평평직한 화전이 펼쳐졌는데 적막한 집 한채가 길 왼쪽에 외로이 서있었다.

완만한 경사지에 덩실하게 놓여있는 작은 귀틀 집은 언덕쪽으로 비스듬히 쉼그려졌는데 기울어진쪽에 대각선으로 받침대를 버티놓았다.

집은 어둡이 물결처럼 감돌고있는 주위는 또 얼마나 한산한가. 이곳에는 꽃피는 봄과 못새 지저귀는 무더운 여름도 찾아들지 않으며 피약별마져 한번 쏘여본적 없는 북극의 동토대를 상기시켰다. 어디서나 생을 느낄수 없었다. 절명직전의 마지막 숨결로 가까스로 연명하는것 같았다. 피창문에는 불빛마져 없어 이 집에 사람이 산다고는 생각할수 없었다. 문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인기척을 내시였다. 숨을 죽인듯 조용하였다. 재차 주인을 찾아서야 안에서 부시력소리가 났다. 잠시후 누런 불빛이 피창문에 얼른거리고 문고리벗기는 소리가 들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앞서 들어가시였다. 토스레 옷을 걸친 아바이가 생기없는 뿌연 눈을 둥그렇게 뜨며 허리를 구부정한채 한손으로 문설주를 잡고 엉거주춤 서있었다. 갑자기 로인의 팔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었다.

간벽이 없는 방아래목에 방금 자다가 일어난 열네살가량 되어보이는 소녀가 겁에 질린 눈으로 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람루를 걸친 그 애의 창백한 얼굴이며 가냘픈 모습은 그늘밑에서 자란 죽대를 연상시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 부녀가 마을녀들이 온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녀자군대들이 들어서는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것을 직감하시였다. 왜놈의 폭정아래서 잠시도 기를 못퍼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엾으시였다.

희미한 등잔불이 가물거리리는 집안에는 사람사는집 같지 않게 싸늘한랭기가 풍겼다. 가장집물이라야 이부자리도 없고 작은 무쇠가마 두개, 땀질을 한 오지물동이, 이빠진 사발 몇개, 방구석에 놓여있는 초롱이 전부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쓰라린 심정을 못이키시며 로인앞으로 다가가시여 군모를 벗고 깊숙이 머리숙여 인사하시였다.

《아버님, 한밤중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조선사람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오늘저녁 마을에 들렀다가 아버님께서 여기사 외롭게 사신다기에 만나뵙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놈산림간수한테 맞은 상처는 좀 어땡습니까? 아프신데 어서 올라가 누우십시오.》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오는 김정숙동지의 절절한신목소리와 겸손하신 몸가짐에는 꾸밈없는 진정이 스며배여있었다.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감격과 놀라움의 빛이 어렸다.

왜놈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수백수천의 병력이 국경일대에 쭉 깔렸는데 그 삼엄한 경비진을 뚫고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로 들어왔단말인가! 두해전 여름 왜놈들이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압록강을 건너와 보천보를 친 통쾌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런데 산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고 왜놈 《토벌대》에 맞아 다 없어졌다던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번에 또다시 국내로 돌아와 왜놈한테 매를 맞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의지가없는 자기 집을 찾아주셨단말인가! 왜놈들 꼴을 안보려고 이 밤 한끝 신사동까지 와서도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사는 자기였다. 현대 여기서도 악착한 산림간수놈한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살아서 무엇하랴싶어 자살까지 하려고 한 자신이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예미가 남기고 간 사랑하는 정옥이를 두고 차마 혼자 갈수 없었다. 하여 실오리같은 희망도 신심도 생에 대한 한조각의 애착도 없이 그저 목숨이 붙어있으니 할수없이 살아갈뿐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상종해본 로인은 이밤중에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 다름아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임을 알아차렸다. 그럴수록 친척도 구면도 아는데 이렇게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겹쌍인 피로도 풀사이없이 시간을 내여 우정 찾아와 병문안까지 해주시는것이 한없이 고마웠다. 감동어린 눈으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던 로인은 창황중에 주어진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귀빈을 세워둔 자신을 질책하였다.

《일없소이다. 이 밤중에 구세먹은 통나무신세만도 못한 우리를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루추한 방이지만 어서 올라가시우. 애 정옥아, 어서 방을 좀 거두겨라.》

빠만 앙상하게 남은 로인은 기침을 켜켜기 하면서 량손으로 통나무담벽을 움켜잡으면서 절룩거리는 다리를 겨우 움켜지었다.

로인의 질책어린 목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정옥은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어안이 병병하여 우두커니 서있었다.

첫눈에도 남을 잘 믿지 않는 내성적인 소녀라는 것이 알렸다. 그 애는 한손으로 다른 손등을 쓸어만지며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동생의 불쌍한 정상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쓰라리시었다.

로인을 부축하고 방으로 올라가 조심히 자리에 앉히신 다음 정옥의 손부터 다정하게 쥐여주시었다. 정옥은 고개를 외로 돌리며 그이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어 뒤로 감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살을 저며내는 듯한 모진 아픔을 느끼셨다. 어린 나이에 험악한 세파에 부대끼다보니 성격마저 이지러져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정옥이, 거기에도 애 어린 작은 손은 강냉이속처럼 터슬터슬한 것이었다. 가락지처럼 실오리가 감쳐져있는 손가락 매듭들이며 밤송이에 찢린듯 무수히 갈라져 피딱지가 맺힌 만신창이 된 자그마한 손, 런던의 정이 북받쳐오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심이 메고있는 배낭을 달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모진 아픔을 통감하시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정옥이, 네 손이 어찌 그 지경이 되었니? 얼마나 아프겠니...》

정옥은 여전히 대답을 앓은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활동처럼 굵은 등을 한손으로 짚은 로인이 책망어린 눈길을 딸에게 보내면서 정옥이를 대신하여 하소하듯 말씀올렸다.

《에미없는 그 애가 온 동삼 목재소합바집에서 부엌일을 하다보니 손이 그 지경이 되었소이다. 이 늙은게 애비구실을 못한탓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옥의 가냘픈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한동안 말없이 서계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젖은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정옥이, 네 손이 그렇게 튼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책과 연필을 쥐고 한창 공부해야 할 손으로 험한 일을 하다보니 네 손이 그 지경이 된 것이나.

네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이 산속에서 쫓겨와 고생하는것도, 네 손이 그렇게 튼것도 다 왜놈탓이란다.

나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갖은 고생을 다했단다. 하나밖에 없던 동생마저 왜놈들에게 희생됐어. 그래서 원쑤를 잡고 조국을 찾자고 이렇게 총을 메고 나섰단다.》

로인은 걱정어린 얼굴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녀성의 몸으로 총을 메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선 그 고결한 뜻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명백한 리치로 가슴에 안겨오는 것이었다.

《과시 옳은 말씀입니다.》

정옥은 고개를 꼭 떨구었다. 뒤로 가져갔던 팔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아구리를 열으시고 무엇인가 더듬어찾으시더니 크림통을 꺼내시었다.

목재소합숙을 떠날 때 배낭을 메고온것이 얼마나 잘된 일이였는가를 비로소 깨달은 성심이 재빨리 크림통을 받아 투쟁을 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옥의 연약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자리에 앉히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정하게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었다.

《정옥이, 손에 크림을 바르자요.》

정옥은 그이께서 하시는대로 공손히 몸을 맡겼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설처럼 희고 부드러운 크림을 꼭 찍어서 정옥의 손등과 손가락들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문지르시었다.

정옥은 밤송이로 찢르듯이 온몸을 지긋게도 자극하던 모진 진통이 저도 모르게 가셔지고 점차 찢찢하고 터슬터슬하던 손등이 부드럽게 누그러지는 촉감을 은연중 느꼈다. 방안에 떠도는 그윽한 향기와 따스한 온기가 겨우내 얼었던 몸을 취해 노그라지게 했다. 눈보라가 광란하는 캄캄한 수림속에서 추위와 아픔, 고독과 절망감에 휩싸여 방황하다가 구원의 손길을 만나 봄별이 한창 무르녹는 꽃동산에 와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보니 돌연 어머니생각이 났다.

여섯살 잡히던해 봄이였다.

마당에서 사금파리로 장난을 하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엉엉 목놓아울었다. 밭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허이허이 달려왔다.

《엄마, 엄마 손 아파...》

어머니를 본 정옥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피 흐르는 손을 흔들면서 응석을 부렸다.

《얼마나 아프겠니.》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피흐르는 손가락을 치마폭으로 씻어주고 입으로 호호 불었다. 그래도 피가 멎지 않아 손가락을 머리로 쳐들게 하고 부엌으로 안고 들어갔다. 성냥접질을 벗겨 상처를 처매준 어머니는 다시 후더운 입김으로 불어주었다.

그 이듬해 봄부터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약한침 못써본채 여름에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칠년세월, 모진 세파에 부대끼며 인정에 주려 살아온 정옥은 지금 친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더 살뜰한 육친의 정을 온몸으로 통감하고있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수모받던 일들을 하소하고싶었으나 목이 메어 열수 없었다.

그이의 따뜻한 손길이 구정물과 찬바람에 만신창이 된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질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진정할수 없었다.

량손에 크림을 다 발라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크림통을 정옥의 손에 꼭 쥐여주시었다.

《정옥이, 매일 아침저녁 손을 깨끗이 씻고 이걸 바르면 인차 나올거예요.》

정옥은 말없이 옥돌을 다듬어만든것 같은 동그란 크림통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머리를 쳐든 정옥은 맑은 이슬이 가랑가랑 맺힌 눈으로 그이의 손에 도로 쥐여주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옥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크림통을 도로 그 애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정옥이, 이 크림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녀대원들에게 주신거예요.》

《그렇게 귀한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장군님께서는 내가 이 크림을 동생한테 주었다고 말씀드리면 잘했다고 치하하실거예요.》

《언니!》

정옥은 김정숙동지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으면서 훌쩍 훌쩍했다. 정적이 깃든 방안에서는 정옥의 흐느낌소리만이 들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여 정옥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로인의 주름잡힌 눈썹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다.

성심이 초조한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았다. 그이께서는 성심의 눈길에서 시간의 촉박을 느끼시였으나 몸부림치는 불쌍한 부녀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배낭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솔뚜껑 여닫는 소리가 가볍게 들리고 이어 내내가 떠돌았다. 정옥이를 손짓하며 부르신 그이께서는 그 애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이시였다.

《가마에 아버지 진지를 안쳐놓았으니 찾으시면 인차 대접해요. 그러구 이걸 아버지 병치료에 써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유지에 쓴 자그마한 물건을 정옥의 손에 꼭 쥐여주신 다음 떠날 차비를 하시였다.

《아니 이 일을 어찌나.》

정옥은 아연실색하여 구원을 청하듯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제가 너무 제생각만 하다보니 주인구실을 못했어요.》

정옥은 그이앞을 막아나서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제서야 사연을 깨달은 로인은 축축히 젖은 눈을 습뻑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늙은게 무슨 존재라구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시는 혁명군의 군량미를 축낸단말이웬까. 우리가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로인은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집에 오셨다가 이렇게 훌쩍 떠나시면 우리 마음인들 얼마나 괴롭겠소이까. 아무리 시간이

바빠두 비록 흡식일지언정 우리가 주인된 도리를 하게 해주시오.》

로인은 절룩거리며 방구석에 있는 감자초롱을 들려고 하였다. 정옥이가 재빨리 방으로 올라가 초롱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을 도로 벗으시였다. 이것을 본 정옥은 나느듯한 기분으로 아침에 먹으려고 불켜놓았던 당콩을 다른 가마에 안쳤다....

하늘의 못별들도 작별을 아쉬워하는듯 고요히 빛을 뿌리고있었다. 귀틀집을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모자를 벗으시고 김로인께 작별인사를 하시였다.

《아버님, 조국이 광복되는 그날까지 몸성히 세세요. 해방된 조국땅에서 다시 만나뵐것습니다.

병치료를 잘하십시오.》

로인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며 김정숙동지의 손을 잡았다.

《구름속에서 태양이 솟아나면 세월이 든다는 말을 듣구 살아왔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기쁜 날은 처음이우다. 산전수전 다 겪는 가운데 서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제일 서러운것은 나라 없는 설움이였습니다. 이렇게 름뜰한 조선인민 혁명군을 보니 새 힘이 막 솟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로인의 말에서 몸부림치는 조국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계셨다.

《저희들은 아버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조국광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겠습니다.》

아버님,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은 반드시 광복됩니다. 아버님과 같이 가난한 조선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그런 세상이 꼭 옵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나 장군님을 받들고 싸울 때 광복의 날은 더 빨리 다가올것입니다. 그날을 믿구 억세게 싸워주세요.》

《이 몸은 비록 늙었지만 **김일성** 장군님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껏 싸우겠습니다.》

정옥이도 그이의 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몰랐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으나 몇년을 사귄것보다 더 친근해졌고 이 세상에서 친어머니처럼 몸가까이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이 작별이 더 아쉬웠고 떨어지기가 괴로웠다. 허나 마음은 비운 뒤의 하늘처럼 개운했고 큰 바위를 의지한듯 든든했다. 그리고 보다 더 소중한것은 이 짧은 시간에 자신이 무엇인가 크고 귀중한 진리를 체득한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였다.

《저두 언니처럼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어요.》

《정옥이 그렇게 결심해주니 정말 고마와. 조국이 해방된 다음 다시 만나서 이 밤을 회상하자요.

그러구 병치료를 잘해요.》

김로인과 정옥은 석별의 정을 목새기지 못하여 언덕길을 종종히 내려가시는 김정숙동지를 오래도록 바라우고있었다.

멀어져가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정옥은 그때까지도 무심히 손에 쥐고있던 물건을 아버지한테 드렸다. 김로인은 기름종이에 싸것을 조심히 펼쳤다. 순간 김로인은 눈을 동드렇게 떴다. 웅담이었다.

《애 정옥아,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또 어데 있겠니. 이 크나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느냐.》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웅담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은 두 부녀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

차창밖에 지루하게 서있던 역명판이 서서히 물러가자 정옥은 호 한숨을 내쉬며 제자리에 와앉았다. 그에게는 몇분의 정차시간이 몇시간맛잡이로 길어보였고 렬차는 달리는것이 아니라 기여가는 것 같았다. 생각같아서는 저 하늘의 기러기들처럼 쉬지 않고 단숨에 훨훨 평양으로 날고싶었다.

문득 정옥은 당반을 올려다보았다. 혹시 덤비기 잘하는 사람들이 내리면서 짐을 헛갈리거나 앉았는지, 짐에 변동은 없는지 해서 자주 올려다보는 것인데 매번 공연히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로 눈길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마 실로 아구리를 단단히 꿰맨 두개의 생광목자루는 여전히 그대로 제자리에 놓여있었다.

생긴것처럼 불룩한 짐을 들고 이고 진 뚱뚱한 중년의 아주머리가 두리번두리번 좌석을 살피며 다가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리는 객차의 모서리들에 짐이 부딪치곤하였는데 그와 때를 같이하여 비난의 목소리들이 울리곤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정옥은 너인에게 마주 다가가 짐을 받아들고 옆좌석을 권했다. 방금 섰던 역에서 손님이 내리고 좌석은 비어있었던것이다.

《아이구, 이런 고마올데라구야. 걸불안이라구 마음씨가 비단결같구만.

글쎄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나들일가는데...

그래 체네는 어데까지 가나?》

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는 비단옷을 입은 정옥이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며 고마움에 어쩔줄 몰라 하였다.

《응, 대오시천서 평양까지!》

너인은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김로인과 정옥이를 번갈아보더니 벗어놓은 배낭에 손을 가져갔다. 배낭끈을 푸느라고 한참 갑자르던 너인은 이고장 특산물이라면서 보기만해도 구미가 도는 크고 살진 계를 권하는것이였다.

《어마나...》

정옥은 영겁결에 환성을 올렸다. 그렇게 큰계는 난생처음 보았던것이다. 계를 들고 호기심에 넘쳐

들여다보던 정옥은 친정집에 가져갈걸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면서 사양했다. 너인은 배낭에 가득 찼으니 넘려 말라고 하였다.

창턱에는 이미 놓을 자리가 없었다. 할수없이 과일구럭이며 간식봉지들을 다른곳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옥은 이미 렬객들이 자기들에게 베푸는 인심과 환대에 익숙해졌다. 고향역두에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떠난 이 길은 행복으로 충만한 영광의 로정이였다. 온 렬차칸이 그들을 알고있었고 관심과 호의를 돌려주었다. 렬차원은 한시간이 멀다하게 찾아와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 물어보았고 렬차판매원은 제일 크고 잘 여문 과일구럭을 골라주었다.

어찌 그뿐이라!

울창한 수림과 열매주렁진 과일나무들, 철길옆의 국화꽃들마저 그들을 반겨맞았다. 손을 흔드는 농민들, 오가는 길손들,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그들을 바라주는듯싶었다.

와- 환성을 지르며 마주 달려온 파도마저 백사장에 줄지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꽃잎이 떨어지도록 꽃다발을 마구 흔들어대며 그들을 전송하는 듯하였다.

온 나라가 보내는 환호와 축복속에 황혼의 장막이 차창밖에 드리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옥의 가슴속에는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먹이 차오르고 벌써부터 상봉의 환희와 기쁨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듯하였다.

정옥은 무사태평하게 끓아떨어진 아주머니를 깨울가봐 저어하며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다.

의복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만 흰 옥양목바지저고리에 회색조끼를 받쳐입은 아버지는 전혀 판사람같이 보였다. 해방전 낡은 토스레바지적삼에 빼만 앙상하던 모습은 간곳없고 풍만한 체격과 열기에 넘친 얼굴은 나이에 비해 십년이상 아버지를 젊어보이게 했다.

《저는 김정숙동지의 품에 안기면 울음부터 터칠것 같아요.》

김로인은 딸의 행복에 겨운 모습을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혼자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무슨 면목으루 김정숙동지를 만나뵈겠니. 우린 사랑을 받아안기만하였지 만분의 일두 보답하지 못했구나.》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있었다. 밤하늘에서는 못별들이 반짝이였다. 마치 잠못이루는 그들의 길동무를 해주는듯...

드디어 렬차는 분기역에 도착했다.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하여 그들은 여기서 평양행 급행렬차를 갈아타기로 했다. 지나온 길은 비록 멀지 않았으나 대륙을 지나온듯 멀어보였고 집을 떠난지 일주야도 채 못되었으나 몇달이 지난것처럼 생각되었

다. 그러나 이제 몇시간후이면 평양에 도착한다는 의식이 지루감을 지워버렸다.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눈앞에 박두하고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열차가 정차하기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서두르게 했다. 여기서도 그들은 열차원의 방조로 객들사이를 뚫고 맨 선창으로 내릴수 있었다. 분기역의 플랫폼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차에 오르는 사람, 내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갈아타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룬 역은 사람들의 웅성소리, 기적소리,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운동이 정지되고 소란스러운 음향이 칼로 자른듯 일시에 사라졌다. 움직이던 급행열차도 환차작업중이던 기관차도, 붐비던 승객들도 모두 얼어붙은듯 그자리에 굳어져 전주대의 고성기에서 울리는 방송원의 엄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김로인도 정옥이도 팽목자루를 안은채 화석이 된듯 굳어져 비애에 가득 찬 방송원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팔에 실리는 자루의 무게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서있었다.

방송원은 거둬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를 반복하여 전하였다. 추도곡의 비장한 선율이 비수의 일격마냥 가슴을 때렸다. 그들은 망연자실하여 안고있던 자루를 맥없이 떨어뜨리며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자루가 터져 배개통같은 감자알들이며 알알이 영근 당콩알들이 콩크리트바닥에 흩어졌다.

김로인은 감자알을 움켜잡고 땅을 쳤다. 말로써 표현할수 없는 통절한 비애가 눈물로 되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어쩌면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인사로 받아주시지 못하시고 그렇게도 갑자기 가신단말입니까!

조국이 해방되면 잘살게 된다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리도 간곡히 외우시더니 모두다 땅을 분여반구 행복에 넘쳐있는 이때에 우리 곁을 떠나신단말입니까.

한평생 전우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오신 김정숙동지께서 흰밥 한그릇이라도 드시고 단 하루밤이라도 발편잠 편히 주무셨다면 이 가슴이 이다지도 쓰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지. 차라리 내가 대신 갈수 있다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정옥이 당콩을 움켜쥔 주먹으로 동가슴을 치며 실성한 사람모양 도리머리를 저었다. 온 역두가 다 밀려온듯 겹겹이 둘러싼 군중을 향하여 포박포박 부르짖었다.

《아니야요. 우리 어머니는 가시지 않았어요...》

정옥은 눈물어린 얼굴을 쳐들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은듯 시뿌연 하늘가 저 멀리로 기러기떼가

썰기대형을 짓고 처량한 소리를 지르며 남쪽으로 날아가고있었다. 계절조의 구슬픈 합창소리는 음산한 가을하늘가로 오래오래 긴 여운을 남기며 울려갔다.

이것은 1949년 9월 22일 아침 고원역두에서 일이었다.

×

승업한 정적속에 줄곧 앞을 응시하고있던 수만 군중은 갑자기 해일을 만난 파도처럼 뒤설레이며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신파의 높은 언덕 만년대리석연단에 나서신것이였다.

준엄하였던 항일대전의 나날 만주광야와 백두산록의 설한봉에 끄는 군복차림의 거룩하신 모습 그대로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손에 군모를 힘있게 거머쥐시고 설레이는 군중을 향하여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의 한길을 따라온 우리들은 삼십년대의 그 충성, 그 의리로써 영광스러운 땅을 받들어 전진할 때 우리 혁명은 중국적으로 승리할것입니다.

여러분!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앞으로도 깊이깊이 깨우칠 사명을 지닌 까닭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있으며 사십여년전에 입은 군복을 아직도 갈아입지 않았습시다...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성은 고조에 달하고 감격의 파도는 산천이 떠나갈듯 격앙되였다. 신파땅이 생겨 처음보는 인산인해였다. 이 인파의 맨 앞서열에서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감격에 눈물짓던 정옥은 갑자기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연설을 마치시고 수만군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자기를 알아보신것이다.

《정옥아, 네가 왔구나! 이게 몇해만이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계셨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 사십여년이 지났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제날의 모습 그대로이시였고 자기 또한 열네살 신사동소녀 시절모양 그대로 만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량팔을 벌리시고 대리석연단을 내리시여 정옥에게로 다가오고계셨다. 순간 군중의 파도는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순식간에 고요해지고 수만의 긴장된 눈길만이 이 눈물겨운 상봉의 장면을 놓칠세라 응시하고있었다.

정옥은 김정숙동지께로 마주 다가가려 하였으나 화석이 되어 굳어진듯 움직여지지 않아 안타까이 선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하였다. 이윽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옥이를 포옹하시였다. 정옥은 그이의 자애로운 품에 얼굴을 묻고 훌쩍 흐느꼈다. 량볼로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정옥의 손을 꼭 쥐여주시었다.

《이젠 손이 트지 않니?》

정옥은 목이 꺾 메여올라왔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때 크림을 발라주신 다음부터 트지 않아요.》

《아버지는 왜 보이지 않니?》

《아버지는 전쟁시기 전선원호사업을 하시다가 폭격에...》

《그래?!》

김정숙동지께서는 여간만 놀라시지 않으셨다. 그러시더니 안색을 흐리시며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었다.

《참 훌륭한 아버지를 애석하게두 잃었구나. 오늘의 이 승리와 행복속에는 아버님의 공적도 들어 있다는것을 길이 잊지 말아라.》

《아버지는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면서 어머님의 은정을 길이 잊지 말구 장군님께 충성다하랴구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전 이젠 어머니결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어요.》

...아마도 김정숙군의 높은 언덕우에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담아 김정숙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그무렵부터였을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김정숙동지의 동상주변을 소담한 붓나무비 자루로 정성담아 쓰는 사람이 있었다. 이 일은 곳은비 내리는 여름날과 눈보라 사나운 겨울날에도 똑같은 시각에 계속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사적지관리원은 눈우에 찍혀진 발자국들을 보고 이것이 한사람의 소행이 아님을 깨달았다. 드디어 관리원은 이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과 만날수 있었다. 그들은 반백의 할머니로부터 유치원꼬마에 이르는 십여명의 한 가정이었다.

흘러간 시절의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는듯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이윽도록 우러르는 할머니는 누구에게라 없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었다.

《사람이란 의리를 잊어서는 안되지요. 의리에는 반드시 충성이 뒤따라야 하고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이 뒤따르지 않고 보답이 없는 사람의 생애는 산 죽음입니다.》

우리 어머니

최정용

두볼을 쓸어주시며
한시절의 눈비 가리워준
그런 사랑이 아니랍니다

품에 안아
한두자식의 앞길을 열어간
그런 은정도 아니랍니다

나라 잃고 부모 잃고
북간도의 피바다에 버림받은 아이들
자애로운 품에 안으시고
시련의 언덕길 넘어오신 어머님

해방의 기쁨
강산에 넘치던 그 나날에조차
그리시던 고향 못잊으시던 일가친척
아니 찾으시고
하루같이 만경대의 원아들을 찾으시여
다심한 정 기울여오신 어머님

짧으셨어도
길게만 생각되는 그 한생애
모진 설움, 참기어려운 고통은
자신께 당겨오시며
어머님의 심장은
혁명의 미래 위해

언제나 뜨겁게 고통치셨으니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도 풀수 없는
아, 김정숙어머님 그 사랑속에
혁명의 새세대로 자라난 오늘
걸음마다 순간마다 그려집니다
순결하고 열렬하신 그 모습

사무치게 느껴웁니다
행복에 겨워 우리 텅구는
들국화 만발한 가을날 들길에
어머님 오르셨던 조국진군의 그 길과
뜨거이 잇닿아있고

우리의 어린것들이
노래부르며 오르는 배움의 총계가
어머님 한몸 방패되시여
수령님 안녕 지켜주시던
대사하의 그 언덕에 받들려있기에...

우리 사는 오늘에
꽃이면 아름다운 꽃들만 피어나라고
노래면 기쁜 노래만 넘쳐나라고
눈보라 만리, 불바다 만리길
웃으며 헤쳐오신 어머님의 그 사랑

아, 혁명의 미래 위해 바치신
그 한생, 그 심혈
못잊어 차마 못잊어

조국이 부릅니다 조선의 어머니
인민이 따릅니다 우리 어머니!

봄날의 눈꽃 외 2 편

(중국) 량상천

3월에 조선에 왔네
진달래는 보이지 않는데
꽃잎처럼 흩날리는
봄날의 눈꽃을 만났네

어디서 내려왔나
버들꽃처럼 가벼이
내 얼굴에 내렸네
만사람을 즐겁게 하여 주며

천리마동상으로부터 날려내려왔나
텔레비죤방송탑에서 날려내려왔나
높이 솟은 개신문으로부터 날려내려왔나
새로 지은 고층살림집으로부터 날려내려왔나

아마도 저 멀리 백두산에서
날려내려온것이리라
따스한 봄날의 눈꽃이여
3천리에 꽃바다 활짝 피라 너 재촉하는듯

못잊을 사과

(중국문학예술계련합회대표단 녀단원 리옥여동지는 조선전선에 직접
참군하여 싸우던 나날에 체험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내 오늘 다시 조선에 와
탐스러운 붉은 사과를 볼 때
못잊을 한쪽의 목각
《방금 딴 사과》를 다시 보는듯
노래 《방금 딴 사과》를 내 다시 듣는듯
그날의 그 뜻깊은 사과를 생각해 하네

나는 그때 조선방문 위문단원으로
싸우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순회공연을 다녔네
먼곳에서 포소리 울려오고
가까운곳에선 불길이 타버렸다

가끔 배낭을 열어볼 때마다
탐스러운 사과알들이 나를 반겼다
소녀의 얼굴마냥 둥글고 윤기돌고
그 붉은 마음처럼 불타고있는 사과알

준엄한 그 나날에
얼마나 손에 넣기 어려운 사과였던가
누군가가 나 몰래 슬며시 가져다준것인가
나는 얼마나 그 주인을 찾았는지 몰라라

아! 알고보니 나와 함께 동행한
인민군 녀전사
한알한알 사과에 뜨거운 우정을 담아
나의 배낭속에 넣어주었다.

나는 두손으로 그 사과 꼭 그러안고
구슬같은 눈물 떨구었네
내 붉은 그 사과알 받쳐들자
불같이 뜨거운 피가 끓어넘쳤네

한가정의 언니와 동생처럼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네

나는 그 사과 소중히 몸에 간수하였네
최내가 나도록 갈증에 시달릴 때도
이 사과알만 보면
여전히 맑은 노래소리 울려나왔네
추위와 굶주림은 더욱 두렵지 않았네

이 친선의 과실
세월은 멀리도 흘렀건만
나는 오늘까지 이 사과향기
달디단 그 즙을 마시며 살아왔네
그날의 그 사과맛을 영원히 잊을수 없네
진귀한 사과야!
못잊을 사과야!

(※ 목각이란 조선소녀가 방금 딴 사과를 말을 타고 편지를 가져가는 지원군전사에게 주는 장면을 새긴것이다. 후에 작곡가가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으며 그것이 류행되었다.)

제 맥

하늘에 흐르는 구름 막을수 있다더냐
굽이치는 강물을 자를수 있다더냐
조선은 하나의 땅, 하나의 반도
민족의 혈맥을 어이 끊으랴

눈길 들어 바라보는 산천, 굽어보는 강토
한줄기의 군사분계선이 가로 갈라놓았나니
이 오래고도 심한 상처
오늘까지 피를 흘리고있구나

오랜세월 한줄기로 뻗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통하던 철길
허나 그것은 황량한 수풀속에 누워있고
레루는 이미 녹이 쓸었구나

불우한 한알의 나무씨앗
불행히도 두 궤도사이에 떨어져

이미 30여개의 년륜을 새겨안고 자랐으니
분노의 가지는 구름덮인 하늘을 치뚫고 뻗었구나

남쪽에서 몰아오는 비바람 향해 규탄하는 그의 목소리
북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목메이는 그의 목소리
민족의 혈맥, 통일의 념원
막을수도 없다! 끊을수도 없다!

내 바라노니 흐르는 구름마냥 자유로이 오가기를
흐르는 강물마냥 끊임없기를
하나로 이어진 피줄, 통일된 강토우에
꽃피는 봄 언제나 함께 맞기를 바라노라!

(필자는 조선방문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대표단
성원임)

하늘엔... 땅우엔...

박 철

은희는 노래부르고
철국이는 이야기하고...
하루일 끝낸 돌격대원들
떠들썩- 제방길에 올랐는데
누군가 터치는 가벼운 탄성
-저봐요. 기러기가 날아가요!

순간 노래도 이야기도 끊어졌다
고개를 쳐드니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가
끼룩- 끼룩-
바빠들 날아가누나
갈테면 가라지
다감한 이야기가 먼저 이어졌다
잘가라 기러기야
은은한 노래도 다시 울린다

아, 하늘엔 계절을 따라 날아가는 기러기떼
때마침 썰물이라 무연한 간석지에
꿈을 날리며

노래를 뿌리며
땅우엔 제방을 따라가는 돌격대원들

간다, 젊은이들
이 저녁도 바람찬 바다길을
고향의 동구길처럼 즐거이 가누나

사랑으로 닳을 내린 땅
심장으로 숨결을 주는 땅
가을이 오면 어퍼리
겨울이 오면 어퍼리

아, 어이 알수 있으랴 하늘의 기러기야
당이 부른 간석지
바다 제방 그리고 숙소가
청춘들 삶의 나래편
따뜻한 계절이 숨쉬는곳인줄
하늘엔 드바빠 날아가는 기러기떼
땅우엔 활기로운 돌격대의 흐름

《꽃다발처녀와 함께》

박창민

극장으로, 공원으로, 집으로...

씩씩하게 활개쳐가던 사람들도 여기선 스스로 걸음을 늦춘다.

한초도 어길수 없는 명령시간을 지켜 바빠 가던 병사도 여기선 절로 걸음을 멈춘다.

한없는 승엄함과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 고여올라 마음 절로 걸음 멈추게 하는 개선문!

그앞에 서면 크나큰 환희와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조국이 광복되어 40 뙀!

경사스러운 대축전을 앞둔 개선광장은 명절처럼 흥성거린다.

락원의 강산에 펼쳐진 꽃바다위에 개선문이 등실 떠있는듯, 환희로 설레는 행복의 물결우에 개선문이 실려있는듯.

개선문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 없다.

좋은 날 좋은 시절에 쌍을 못는 신혼부부들이 개선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록음방초 우거진 공원도 아니 들리고 꽃향기 그윽한 유보도도 다음으로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여기를 찾는것은 이제 하나의 제정된 로정처럼 되어있다.

20 성상 피어린 혈전의 언덕을 넘어 광복의 봄을 안고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여기로 오게 하는것이라.

개선문을 돌아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내앞에서 웬 어머니가 손녀인듯한 처녀애와 주고받는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기때문이었다.

《할머니! 아버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린곳이 저기나요?》

《그래, 저기다.》

《아버지원수님께서 개선연설하실 때 할머니님 젊었나요?》

《그럼 처녀때였지.》

《해해 할머니가 처녀래...》

귀가 번쩍하는 말들이었다.

(아니, 그럼 저 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연설하실 때 꽃다발을 드린 처녀란말인가!)

가슴을 치는 거대한 충동에 이끌려 나는 그 어머니를 만났다.

맞았다. 광복된 조국을 안고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맞이하던 력사의 그날, 삼천만 인민이 울리는 열화같은 감사의 정을 가득 담은 꽃다발을 아버지수령님께 드린 녀성이었다.

그는 모란봉구역 개선거리 전우동에 사는 《꽃다발처녀》로 불리우는 최탄실어머니였다.

《조국해방 40 뙀이 가까와오니 정말 감회가 깊겠습니다.》

《예, 40 년전 일이지만 어제일만 같습니다.》

눈물이 글썽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앞에는 력사적인 감격의 그날이 펼쳐졌다.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안으시고 해방된이 강산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우리인민은 얼마나 크나큰 격동으로 설레었던가.

《금수강산을 진감시킨 40 만의 환호성!》 당시의 《평양민보》가 전한 군중대회장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평양에 력사가 깊어 4 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 만이라 하나 이와 같기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기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 림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암담한 그 세월 백두산 장수별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꿈결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뵈게 되는 행복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최탄실녀성의 가슴은 쿵쿵 뛴뛰었다.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아무 한일도 없는 자기가 삼천만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장군님께 꽃다발을 드리게 된것이 아닌가! 그때 그는 22살의 꽃나이 처녀였다.

드디어 수천년 조국력사에 처음보는 감격의 시각이 왔다.

설레는 바다위에 솟는 태양인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며 장군님께서 주석단으로 나오시였다. 《만세!》 《만세!》...

삼천리 강산을 뒤흔드는 만세의 환호성! 격정에 목메여 우는 감격의 울음!

최탄실녀성은 달려나가 장군님께 삼가 큰절을 올리고 꽃다발을 드리였다.

그것은 삼천만이 올리는 최대의 감사였으며 열렬한 환영과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였다.

그의 두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그것은 일제의 학정아래 신음하던 3천만 우리 인민에게 보내시는 인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두다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호응하는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또다시 터져올랐다.

아,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시여 20년만에 조국으로 개선하신 전설적영웅 **김일성** 장군님!

불쌍한 겨레들이 눈물로 바래드리던 그 길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크나큰 기쁨을 안고 오셨구나!

조국에로의 길은 멀지않아도 해방을 안고오신 그 길은 얼마나 멀고도 준엄하였던가.

한 식솔이 단란히 모여앉아 살기엔 나라 없는 설음이 너무도 컸고 한 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하기엔 3천만 겨레의 신음소리 너무도 가슴 울려 조국광복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20성상!

짓밟힌 강산에 해방의 봄을 가져오시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바람세찬 이국땅에 묻으셔야 하는 가슴아픈 고통과 슬픔도 참아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나라도 자유도 이름도 모두 빼앗긴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우리 겨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불행도 달게 여겨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40년 세월이 흘렀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서자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부르심 받들고 조국은 얼마나 위대한 전변의 역사를 수놓아왔는가.

해와 별 빛나는 락원의 이 강산은 주체의 조국으로 그 이름 찬란하고 지난날 이름마저 빼앗겼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지도자동지들을 모신 영광과 존엄의 상상봉에 높이올라서게 되었다.

그 영광속에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최탄실녀성은 두해전에 60돛 생일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던 그 나이, 그 시절에 산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코 《꽃다발처녀》라고 사랑스럽게 부른다.

《지금도 내 마음속엔 개선연설을 하시던 장군님의 젊으신 영상이 새겨져있지요.》 뜨겁게 울려오는 그의 말이였다,

그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넘쳐흐르는 절절한 심정이며 하나로 바라는 마음이기도 한것이다.

젊으신 장군님의 영상!

세월은 흘러도, 이 세상의 모든것은 다 변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도 수령님께서만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진 그날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계시옵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축원의 마음은 흐르는 세월속에 더욱 깊어만가고있다.

조국의 어제와 오늘, 우리 인민의 지난날과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여기 개선문앞에 서있으니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의 머리위에 넓게 트인 저 푸른 하늘, 하늘 높이 솟아오른 저 은빛지붕들, 웃음소리 높은 저 공원이며 유원지들... 이 땅에 이룩된 그 모든것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창조된것인가.

우리 과연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을 밝고 밝게 웃으며 사는것인가.

그 물음에 대답을 주는가.

개선문기둥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이 확 안겨온다,

《1925~1945년》

골목길의 발걸음소리

(중국) 위빙곤

역 배민옥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뽕얀 안개비발은 바람결에 흩날리며 골목길에 깐 청석판을 흠뻑 적셔놓았다.

낮의 소음도 어느덧 정적속에 갇히고 골목길은 고요에 잠겼다. 자그마한 방안에 흰히 커진 탁상등의 누르무레한 불빛은 탁상우를 조용히 쓰다듬는다. 책상우는 온통 책과 잡지 그리고 원고지들로 덧쌓여있다. 원준은 손목시계에 시신을 멈추고 손에 쥐었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온다. 그다! 멀리서부터 들리는 발걸음소리가 가까와진다.

씩씩씩 점차 가까와진다. 그가 온다. 그것은 분명 소가죽구두의 스킵는 소리이다. 아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소리인가! 온다. 분명 그다... 아니 아니야, 그의 발걸음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또 천천히...

이렇게 저절로 부정해버리고나서도 원준은 초조한 마음으로 귀기울였다. 혹시나 하여 문을 열었다. 아니 민매가 아니었다.

론문은 더 써내려갈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조금해났다. 벌써 여덟시가 지났는데 민매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다. 실로 견뎌내기 어려운 분분초초였다.

그는 침대에 드러누웠다. 뽕얀 먼지가 푸실푸실 날아내릴것만 같은 천정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매번 토요일마다 민매는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은 왜서...?

틈사리를 노리던 북풍이 침대머리의 자그마한 창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그의 흐트러진 머리를 살랑살랑 휘저어놓는다. 목을 움츠린 그는 한여름에 시끄럽게 구는 모기를 쫓듯이 무심결에 손을 뻗내저었다. 마치 북풍을 몰아내기라도 하듯...

원준은 계속 상념에 잠겼다. 어느덧 그의 사색은 또 이름없는 강기슭으로 이끌어간다. ...

그것은 그가 《광활한 일터》(농촌)에 내려갔을때 일이다. 그날 그들은 비료를 실어오라는 파업을 받고 배에 올랐다. 그런데 방금 떠난 배가 강의 중심에 이르렀을 때 그만 뒤집히고말았다. 얼마전부터 《개발해염》을 배워왔지만 아직 익숙되지않은 민매는 몹시 당황해났다. 그는 몇번 허우적거리다가 물밑에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민매

에게로 급히 헤엄쳐간 원준은 민매의 손을 잡고서기를 쓰고 강기슭까지 헤어나왔다. 간신히 물넉까지 민매를 밀어냈지만 자기자신은 물에 가라앉았다. 조금해난 민매는 사위를 둘러보며 사람 살리라 고함쳐 불러보았지만 광막한 대지는 대답이 없었다. 민매는 상심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때 원준이가 물위로 헤엄쳐나오지 않는가... 그는 물에 뒹다 가라앉았다 하며 이악스레 강너까지 헤어나왔다.

《정말 놀라 죽을뻔했어. 난 동무가 돌아오지 못할줄 알고...》

민매는 물에 흠뻑 젖은 머리채를 쥐여짜면서 말했다.

《난 죽지 않을줄 알았어. 물에 가라앉아서도 난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말이야.》

원준은 후더운 미소를 띄웠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요? 동무도 나처럼 겨우 〈개발해염〉이나 배우기 시작했는데...》

민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칼에서 짜낸 물방울을 뺨 털어버렸다.

《화학쟁이는 그 어떤 위험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단말이요. 그건 아마 항상 위험한 화학실험을 하기때문이겠지. 그리고 난 죽기 싫소. 난 자신이 화학분야에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꼭 거둘수 있으리라는 어렵פות한 예감을 가지고있단말이요. 그런데 죽는다는건 얼마나 슬픈 일이요.》

원준은 심분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듯 우스개소리를 했다.

원준은 화학을 사랑하였다. 중학교에 다닐 때 그는 민매와 한반에서 공부하였었다.

어느 하루 화학과목 학습을 끝낸 동무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영화 《꽃파는 처녀》를 보러갔지만 원준은 혼자 교실에서 유리병과 빈통줄임통 그리고 밀가루와 사탕가루, 초 등을 가지고 비교적 복잡한 화학실험에 몰두하였다. 그날저녁 식사를 하고난 민매와 학급 간부들이 교실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교실에 들어서는데 교실 뒤구석에서 돌연 요란한 폭발소리와 함께 빈통줄임통이 공중에 날아올랐다. 동무들은 깜짝 놀랐다. 원준이가 화학실험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옷

에 여러개의 폭탄구멍을 남기었으나 화학실험은 성공하였었다...

강물은 고요히 흘렀다. 매미도 노래하기에 지쳐 버렸는지 조용히 쉬고있었다. 그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짜내어 뒤집힌 작은 배를 강기슭에까지 끌어들였다.

한숨 돌리고난 그들은 폭 젖은 옷들을 말리우려고 밀짚모자를 쓰고서 해바라기를 시작하였다.

《동무는 지금도 화학공부를 하고있는데 그 화학공업학교에 시험칠 작정인가요?》

민매는 원준을 지켜보며 물었다.

《글쎄 그렇게 꿈은 꾸지만 되겠는지 두고보아지. 우린 아버지가 일찍 세상쓰시고 어머니는 가내 공장에서 일하고있다고.》

그는 쓰겁게 웃고나서 입을 다물고말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학시험을 치는데는 학업성적외에도 다른 《퇴물사업》이 있어야 한다는걸 알고있었던것이다.

《조동하든지 학교에 시험치든지, 어쨌든 난 동무와 함께 있을래요.》

숨을 돌릴새 없이 겹싸게 말하고난 민매는 얼굴을 화짝 붉히고 나무밑으로 토닥토닥 뛰어갔다.

원준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평시에 그렇게 침착하던 처녀를 바라보았다.

반나절만에야 긴 숨을 몰아쉬던 원준은 병긋이 웃으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행복한지 놀랍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매미는 또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지야... 지야...》(알았다. 알았다.)

원준은 나무밑의 민매를 불렀다.

《민매, 빨리 가자구!》...

그후 그들이 탄 작은 배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몇번이나 뒤집혀졌었으나 10월의 황금바람이 그들에게 리상의 돛을 달아주었다. 그들은 다시 성시로 돌아왔다.

얼마후 민매는 화학공업학교에 시험처 붙었지만 원준은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자 생활이 곤란하여 리발사로 배치받게 되었다.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가까와왔다. 민매는 행장을 꾸리기에 바빠 돌아갔다. 그러는 그에게 아버지는 말하였다.

《민매야, 이젠 정황이 변했는데 너와 원준의 관계를...》

어머니도 직방치기로 물었다.

《대학생처녀가 리발사 남편을 얻을수야 없지 않니?》

민매는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물건을 정리하던 것마저 잊은채 서있었다.

《물론 지금은 족보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여론이나 너희들의 앞날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게 아니냐?》

또 아버지의 리지적인 말소리가 들려왔다. 민매는 입을 옥물고 대답이 없었다.

《우리에겐 너 하나밖에 없단다. 널 이만치 키우기가 조련치 않았단다. 어쨌든 우리를 봐서라도 얼굴 깎일 일이야 하지 말아야지...》

어머니는 여전히 직선적으로 말했다.

민매는 눈길을 떨군채 다시 행장을 갖추기 시작했다.

원준이도 처음엔 마음이 번거로웠다. 일하다 짬만 있으면 늘 작은 침대에 누워 이름모를 강기슭의 아름다운 전경을 추억하곤하였다. 그 추억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던지, 아예 깨끗이 잊어버리든지, 마치 그 매미의 단조로운 노래소리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어쨌든 그것은 것처럼 향기 그윽한 애룩한 추억이 아닌가!

처음 이러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 실오리처럼 피끗피끗 머리속에 나타났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실오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가슴속에 길이 자리잡았다.

아름다운 너자대학생과 보잘것 없는 리발사,련애는 그만두더라도 어찌다 함께 걸어도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할것이다.

무엇때문에 민매에게 이렇듯 크나큰 정신적부담을 줘야 하는가!

이 모든것을 생각할 때 그의 온몸은 무서운 진통으로 얼어들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이 귀중한 사랑을 영원히 단념해버리리라는 굳은 결의가 뿌리내렸다. 그러나 매번 토요일 밤마다 골목길에서 그 익숙한 발자취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또 조급히 문을 열어젖혔으며 그 모든 사연을 잊어버리고만는것이였다.

세월은 하루하루 흘러만 갔다.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저녁 것처럼 오래동안 끌어오던 솔직한 담화는 끝내 시작되였다. 그날 작은 방안에는 여전히 누르스름한 탁상등이 조을고있었다. 그는 일부러 적지 않은 고급 당과류와 빵들을 준비하였다. 그래야 기쁘게 만났다가 기쁘게 갈라질수 있지 않는가...

민매는 여전히 제시간에 왔다. 그는 오늘따라 특별히 아름다왔다. 연한 곤색원피스에 방금 감은 검은머리채를 희디흰 손수건으로 뒤에 꽂쳐맨 그의 얼굴모습은 더욱 풍만하고 생생해보였다. 그의 어깨에는 그의 몸매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둥근 멜가방이 메워져있었다.

오느라고 지쳤는지 얼굴은 붉게 상기되였고 아직도 깊은 숨을 몰아쉬는 코방울이 팔딱팔딱 오르내렸다.

《오늘은 동무의 생일도 아니고 나의 생일도 아닌데 왜서 이리 많은 당과류를 차려놓았어요. 무슨 중요한 소식이나 있는 모양이지요?》

민매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바람으로 그 억실 억실한 눈길을 들어 원준을 지켜보며 물었다. 마치 또 그의 얼굴에 모든 사연이 적혀있는듯...

원준은 억지로 웃어보이며 말했다.

《민매, 난 오래전부터 동무와 잘 의논해보려고 생각했소.》

처녀는 멜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원준을 슬쩍 쳐다보고는 원준이옆에 놓인 작은 결상에 앉았다. 그리고는 제일 맛있는 초코레트사탕을 집어 들어 입에 넣었다.

《자 이렇게 마주앉았는데 말해보시지요.》

이렇게 말을 때는 민매의 태도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나 원준이가 말하려는 모든것을 벌써 다 알고나있는듯싶었다.

원준은 잠시 주저하다가 끝내 입을 열고야말았다. 긴장되어 말하는 그의 이마전에는 땀방울이 내뿜혔다.

《민매, 난 몇번이나 생각해보았소. 우리들에겐 결합될 기초가 너무나 약하단말이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소. 때문에 난 생각하기를...》

이렇게 간신히 흘러나오던 말소리가 멀리 멈춰 버렸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기 시작했다. 기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민매는 앞의 말을 듣고서도 그 뒤말을 너무나도 확연히 알고있으니말이다.

원준은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방불히 들었다. 것처럼 오래동안 숨겨오던 마음속의 고통을 털어놓았지만 통쾌한지 피로운지 자기 자신도 헤아릴수 없었다.

민매는 제일 맛있는 사랑 한알을 골라서 원준에게 내밀었다.

《동무도 잡수세요. 먹으면서 말하세요. 동무가 한 말은 매우 중요해요. 나도 벌써부터 동무와 얘기해보려고 벌써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점이 일치하단말이지. 그럼 됐소. 적지 않는 시끄러움을 덜게 됐으니말이요.》

원준은 민매가 주는 사랑을 천천히 받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일치하다니요. 완전히 다르단말이예요.》

원준은 방금 입에 넣으려던 사랑알을 든채 멍하니 민매를 바라보았다.

민매는 서둘러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청년남녀들의 사랑도 남자들의 초소가 어딘가? 부모의 직위가 어떤가? 하는것을 앞에 놓고 따지는 융속적인 사회적풍기가 있는데 그래 이것이 호상결합의 믿음직한 기초란말이예요? 사랑은 영원히 풍요한 전야처럼 아름다와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서리만 내리면서들어 버릴거예요. 원준동무, 그렇지 않아요.》

원준은 그의 이 말이 깊이 심사숙고한후에 흘러나온것임을 잘 알고있었다.

원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찼다. 그러나 민매의 사랑이 진지할수록 그는 민매를 위하여 더 생각해줘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사랑이란 결코 지나간 우정에 대한 추억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것은 끊임없이 깊어갈 래일에 있는것이기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계속 발전할수 있을까? 민매가 정말 추호의 자극도 받지 않는단말인가? 이런 생각에 파묻혔던 원준은 툭 털어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민매, 나는 동무가 속된 처녀가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소. 그러나 바로 그것을 잘 알기때문에 동무와 의논해보자는거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도 진정한 벗으로 되어 사랑을 계속 발전시켜나갈수도 있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동무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정신적부담만 더해줄것이에요.》

원준은 서글픈 웃음을 띄우고서 두손을 깎지끼여 무릅우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민매, 우린 객관적현실을 존중해야 하오.》

민매의 표정도 점차 심각해졌다.

《〈화학은 광활한 사업이다. 나의 한평생을 화학연구에 바치겠다.〉 고 하던 동무의 그 말을 나는 아직 잊지 않고있어요.》

《그렇소. 난 그렇게 말했고 또 그렇게 믿었소. 그러나 나는 지금 이름없는 리발사밖에...》

원준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머리를 깊숙이 떨구었다.

《동무가 한탄해야 할것은 지금의 직업이 아니라 모든것을 바쳐 화학연구사업에 종사하리라던 그 정신이, 간고분투의 정신이 없어진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끼친 천하없는 격정거리란말어예요.》

원준은 두눈을 휘둥글하니 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열빠진 사람처럼 서있었다. 그것은 그 무슨 연구에 골몰해서가 아니라 민매의 말에서 너무나 큰 자극을 받은것때문이었다.

《원준동무, 나는 동무의 그런 정신상태때문에 오래도록 고민하였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였단말이예요.》 민매는 등실한 멜가방을 열고 거기에서 화학자료집 몇권과 화학실험기구 등을 꺼내놓았다.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할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자료철 한권을 펼치여 원준에게 내밀었다.

원준은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사람의 머리칼 특히 동양인의 머리카락엔 여러가지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여있다...》

밤은 깊었다. 책상우에 당과류와 빵도 인젠 몇개 남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모태였다면 이렇게 식욕이 당기지 않았을것이다.

민매가 간후 원준은 그 몇권의 화학참고자료에 모든 사색을 쏟아부었다.

《단백질은 여러가지 아미노산으로 결합되어 고분자화합물을 이루고있다. 그런데 아미노산을 포함하고있는 유기산은 단백질을 구성한 기본단위인 아미노초산, 알라닌, 로이신산으로 구성되었다...》

원준은 고난의 행군길에서 첫 걸음마를 떼었다.

매번 토요일저녁 여섯시가 되면 골목길에서는 언제나 그 익숙한 발걸음소리가 울려오곤하였다. 어떤날엔 다른 한 발걸음소리도 함께 울려오곤하였는데 그것은 민매가 화학공업학교에서 원준을 위해 청해온 교원의 발자취소리였다.

어느 한 일요일저녁, 원준은 고민에 싸여 민매가 올 시간조차 잊고있었다. 그의 작은 침대밑엔 파손된 계기들이 가로세로 놓여있었다. 처녀는 여전히 제시간에 도착하였다. 이런 광경을 띄어본 민매는 성이 나 쏘아붙였다.

《동무의 의지, 자아희생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동무는 그저 평탄한 길에서나 걸어갈 재목밖에 못돼요.》

《용서해주오. 민매, 난...》 원준은 머리를 떨구고 한탄하였다.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준은 자기네 리발소 책임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찌뽕찌뽕 말했다.

《리발사의 직업은 머리깎는것이란말이요. 알겠소? 그래 다른 공공이를 한단말이지. 뭘 머리칼에서 암모니아를 뽑는다구? 흥 정말 미꾸라지가 하늘을 날아오른다더니... 머리칼은 뭘니뭘니해도 머리칼이요. 수매하면 한근에 16전이구. 아미노산 한근에 얼마가야? 흥 그것을 알아선 뭘해! 머리를 잘 깎겠나 아니면 그 돼먹지않은 연구를 하겠나, 빨리 하나를 선택하게, 한자리에서 두가지 생각을 해서는 경질테니...》

《그럼 동문 행정시간에 실험했나요?》라고 민매는 물었다.

《아니 그 사람은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진단말이요. 지어는 퇴근후 시간까지도말이요.》 원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매는 기분이 상하여 돌아갔다.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후 원준은 너무나 상상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리발편의봉사사업소 부속공장》에 조동하라는 지시였다. 그가 하여야 할 일은 리발기계를 수리하는것인데 그 일외에도 사업시간을 짜내어 머리칼에서 아미노산을 뽑는 실험을 하라는것이였다.

편제는 여전히 리발사였다.

그리고 거기엔 조건이 붙었는데 일년안에 현저한 성과를 얻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리발관에 되돌아가 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것이다. 그 소식

을 들은 원준은 실로 온몸을 옥죄이던 속박에서 벗어난듯한 환희를 느꼈다.

민매가 다시 그 작은 방에 나타났을 때 원준은 두눈에 기쁨의 빛을 띄우며 친절하게 민매의 손길을 부여잡았다.

《민매, 이제 두고보오. 내가 어떻게 해내는가!》

민매는 호기심에 가득찬 의미심장한 눈길로 원준을 지켜보면서 머리를 갸웃거렸다.

《동무는 무엇이 그리 기뻐요?》

원준은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시나 읊는듯이 웅쳤다.

《우리 편의봉사사업소의 지배인은 위대한 인도주의자요. 그이는 내 마음속 고충까지 헤아려보고 나에게 화학실험을 계속할 조건을 마련해줬단말이요. 민매, 날 축하해주오!》

민매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방긋 웃었다.

《축하해요. 그러나 나도 한마디 깨우쳐주지요. 동무네 지배인은 또 위대한 현실주의자란말이예요. 그는 동무가 머리칼에서 제련해낸 신성한 기물질로 공사의 지출을 적게 하련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뭘? 신성한 기물질? 그렇지. 우리 지배인이 기물질에 대해 아주 관심이 깊더군.》

원준은 머리를 굽적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동무네 지배인은 일찍 자기가 책임지고 머리칼에서 기물질을 뽑는 실험을 하였다더군요.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짜던지 그걸 맛본 사람은 온몸이 오싹해나서 덜덜 떨었대요. 그때문에 우에서는 금지령을 내리고 다시는 실험을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지배인동무는 늘 그 일을 아수하게 생각한대요.》 민매는 마디마디를 론리정연하게 엮어내려갔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알고있을까? 원준은 민매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민매는 입을 오후리고 신이 나서 웃어댔다.

《아, 원래 그가...》 원준은 그제야 모든것을 깨달았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걱정을 참을길 없어 한참이나 곁상에 주저앉았던 원준은 다감하게 말했다.

《민매, 난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난...》

민매도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감격에 눈물짓는 원준을 바라보았다.

3년이 지났다. 그간 원준은 가지가지 시련을 이겨냈다. 그는 끝내 시험에 성공하였다. 그가 생산해낸 상품은 국제무역회에 전시되었고 외국무역회사로부터 수십톤의 예약을 신청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이 작은 공장은 국내외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제부문으로부터 공장을 확장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전문생산에 투입할 과제를 받았다. 원준은 공장의 생산을 책임진 부

지배인으로 임명받았다. 이와 동시에 원준은 성의 큰 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인재를 귀중히 여겨 연구소에 와 사업하라는 것이었다. 부지배인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연구소로 갈 것인가?

원준은 그 어느곳이든 좋았다. 그러나 그는 급히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민매가 와서 결정할 것을 기다렸다. 그는 민매가 그 매혹적인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며 《동무는 부지배인으로 일하세요. 나의 리발사동지.》라고 하든가 아니면 《동무에게는 연구소가 적합해요. 나의 리발사동지.》라고 하는 그 조용하고도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상기해보았다.

민매가 뭐라고 하든지 다 좋았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면...

원준은 이 모든 사연을 담은 정열에 넘친 편지를 민매에게 보냈다. 그런데 왜서인지 민매는 오늘날따라 나타나지 않았다.

원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희롱하던 북풍도 어느덧 숨어버렸다. 언제부터 세지가 시작했는지 휘뿌리는 비방울은 창문유리를 요란스레 두드리면서 아래로 줄줄 흘러내린다. 눈물처럼...

밤은 깊었다. 골목길에서 울려오던 발걸음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는다.

《그가 나의 편지를 받지 못했을까? 그에게 이보다도 더 중한 일이 또 있단말인가?》

원준은 작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가지가지 무료한 추측으로 마음을 바재였다.

골목끝에서 조용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원준은 나는듯이 달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비옷을 입은 민매는 뒤통이 조금 높은 비닐신을 신고 어깨에는 여전히 둥글한 가방을 메고있었다.

《민매!》 원준은 미칠듯한 흥분에 싸여 민매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비옷을 받아들고 마른 신발을 찾아주며 원준은 설새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난 동무가 꼭 오리라 믿었소. 꼭 올것이라고 말이오!》

민매는 폭신한 수건으로 폭 젖은 머리칼을 닦으며 대답하였다.

《꼭 오구말구요. 칼을 빼들고 기다린다 해도 오고말걸요. 동무의 편지 세통은 다 받아보았어요. 그바람에 얼마나 바빠 돌아쳤는지...우리 리발사동지께 좋은 직업을 택해드리여야지요.》

원준은 저으기 아연해졌다.

《뭇때문에 바빠 돌아쳤을가?》

민매는 한쌍의 빛나는 눈길로 원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마치나 그의 얼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찾아주려는데...원준은 그런 눈길앞에서 더욱 얼떨떨해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알수 없는 초조감이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민매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너무나 상상밖의 말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원준, 닌 곰곰히 생각해왔어요. 난 동무가 여전히 공장에 있으면 해요.》

《뭐? 그건 왜서?》

원준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동무가 멀지않아 대학을 졸업하겠는데 내가 그래 공장에서 리발사편제로 일해야 된단말이요?》

민매는 웃으며 물었다.

《리발사편제가 어때서요? 이 민매는 여전히 민매고 〈풍년든 전야〉는 모진 서리에도 시들지 않았어요. 원준동문 잘 생각해보세요. 직위가 중요하냐요 사업이 중요하냐요?》

《직위와 사업은 호상 련결되는것이요! 민매 난 정말 동무의 의사를 모르겠단말이요.》 원준은 고동스럽게 얼굴을 찌프리고 결상에 주저앉아 마음을 진정할길 없어 화학잡지들을 뒤적이었다. 기실 그 작디작은 공장을 떠나려는 목적도 민매를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민매는 차잔을 조용히 놓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는 원준의 손에서 잡지를 받아쥐고 한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다.

《가령 동무가 부지배인으로 된다 합시다. 공장의 건설설계로부터 생산에 투입할 때까지 이 2년 반동안의 시간을 동무는 잘 아지도 못하는 그 실무적인 일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될거예요.》

원준은 민매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으나 그의 얼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사색이 내비쳤다. 그럼 연구소엔 갈수 있지 않는가? 그의 눈길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민매는 머리를 흔들었다.

《동무는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동무는 아직도 외국어를 모르고 학력도 너무 어리단말이예요. 다시말하면 전면적인 지식이 약하단말이예요. 그러므로 동무가 연구소에 간다 해도 단독적인 연구과제를 해나갈수 없어요...》

원준은 당황한 눈길로 민매를 지켜보았다.

민매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말라요. 나는 이 모든 걸 조사해보았고 또 많은 사람과 물어도 보았어요. 그러다나니 오늘 저녁엔 이렇게 늦어울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난...》 원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자 보세요.》 민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두실한 멜가방을 열고 거기서 몇권의 자료를 꺼내어 원준에게 넘겨주었다.

자료에는 동양사람의 머리칼엔 또 한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매우 뽑아내기 어렵다는 내용과 그의 리용률이 매우 높다는것이 적혀있었다. 그것

은 어떤 약물의 원료로 되는데 국제시장에서 수천 달러에 한키로씩 팔린다는 것이다.

원준은 놀라며 말했다.

《동무의 의사들 알만하오. 공장에 남아서 이 아미노산을 뽑아내는 실험을 계속하라는거겠지. 그런데 그건 정말 어렵소. 그건 마치 망망한 바다에서 배타는 것과 같단말이요. 그 새로운 항행에서 또 배가 뒤집힐지 어찌 알겠소.》

민매는 익살스럽게 대답했다.

《동무는 벌써 〈개발혜염〉을 다 배우지 않았나요? 나도 이제 졸업하면 공장에 오겠다고 지원할래요. 그게 리발사편제는 뭐든 어쨌든 동무와 같이 〈개발혜염〉을 치겠단말이예요. 만일 배가 뒤집히면 동무가 또 구원해주겠지요. 그러나 난 과거처럼 강기슭에서 울지 않을래요. 왜냐 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가 빠져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말이예요.》

원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민매의 손을 힘껏 잡았다. 민매는 웃으며 물었다. 《동의해요?》

원준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두해반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것이요. 그 시간이면 많은 일을 할수 있을거요. 부지배인을 하기보다 우리 함께 실험하는것이 더 나을것이요. 시간을 타서 외국어도 배우고 그때 가면 우리는

〈개발식〉이 아니라 〈자유영〉혜염까지 배워낼거요.》

민매는 흡족하여 웃었다. 그는 원준의 대답에 만족하였던것이다. 얼마후 원준은 민매의 손에 입맞추고는 정답게 웃었다.

《민매, 동무는 왜서 나를 그렇게 지극히 생각하오?》 처녀는 통쾌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동문 아직도 이름없는 강기슭의 나무우에서 부르던 매미의 노래소리를 기억하겠지요.》

《기억하구말구. 정말 단조로웠지. 지야 지야(알았다 알았다.))》

《그래요 단조로와요. 그러나 정말 알려니 간단치 않구만요. 그날부터 나는 동무의 마음속 모든 것을 알고 동무의 우점을 살려나가도록 도와주며 부족점을 보충해주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좁힘을 기울였을뿐이예요.》

민매는 깊은 사색에 잠겨 조용히 말했다.

《동문 정말 좋은 처녀요. 만약 이 땅의 처녀들이 모두 동무같다면 인류는 얼마나 행복하겠소!》

《또 허튼소리를 하누만요.》

민매는 원준의 어깨를 정겹게 툭 쳤다.

밖에 비는 멎었다.

골목길에서는 또 발걸음소리가 울리더니 점차 멀어졌다.

누르무레한 전등불빛이 탁상우를 조용히 쓰다듬는다...

내 집으로 오는 길

김정철

무엇을 표적으로 삼고 왔느냐
누구의 안내를 받았느냐
중국에도 한끝 해남도에서
연연 수만리
내 집으로 오는 길

세월은 흘러 강산도 변했다
집들도 새 집, 길들도 새 길...
집을 떠나사는 내 자식조차
때때로 길을 헛갈리는
내 집으로 오는 이 길

물어선 무엇하리
어제날의 지원군 라동무야
전승기념일을 함께 보내자고
중국인민대표단으로
그대는 지금 내 집을 찾았거니

나도 한눈에 알아보았다.
미국놈이 지른 내 집의 불을 끄려
숨가빠 달려오던
그날과 다름없는 그 걸음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내 어린것의 생명을 지켜

쏟아지는 총탄속에
서슴없이 방패로 막아서던
변치 않았구나 그 어깨는
예나 지금이나

포연속에 함께 심은 어린 사과나무는
그대의 소망대로
저렇게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졌고
그대의 얼굴이 마주웃는 저 박우물
날마다 친선의 정을 담아 함께 마셨거니

그 무슨 표적이 필요하랴
누구의 안내가 필요하랴
다름아닌 그대의 희망이 활짝 꽃피는
조선의 이 뜨락
다름아닌 우리의 기쁨이 가득 어린
중국의 그 토방

오, 우리는 새겼노라
서로의 심장속에 영원한 주소를
영원한 친선의 한길우에
곧바로 뻗어있어라
내 집으로 오는 그대의 길은
그대 집으로 가는 나의 길은

행진곡 1번

(한 중군작곡가의 이야기)

정기종

언제부터였는지... 바야흐로 열병식이 한창이던 그때에야 나는 처음으로 두볼이 눈물에 젖어있음을 감촉하였다.

눈앞에서는 장쾌한 구령소리와 함께 지휘군도들이 번쩍이고 주석단을 우러러 받들어총을 한 전사들이 전투에서 위훈떨친 영광의 군기를 앞세우고 발걸음 높이 나아가건만... 나는 울고있다.

무한궤도의 역센 발톱으로 달려온 투쟁의 년대들을 주름잡는 각종 구경의 포탑들결에서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전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광장을 뒤흔들던 발구름소리며 취주악, 각종 포차와 무한궤도의 우르릉소리로 합류된 그 장엄하고도 거창한 행진곡을 새겨가면서 나는... 울고있다.

아마도 인생말년에 이른 나로서는 조국해방 40돐기념 열병식에 나선 저 전사들앞에서 그리고 조국의 위력과 그 무장력의 불패성의 이 시위앞에서 눈물을 보이는데는 온당치 못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허나 나는 눈물을 감추지 않는다. 그것은 벽찬 격동과 환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경건한 아픔을 동반한 추억의 눈물이기때문이다.

...세월을 거슬러 추억의 노를 저어간다. 1950년 10월... 험한 령길... 대오가 가고있다. 총창도 나무도 발밑의 땅도 홀려간다. 인적을 모르던 산줄기, 험한 룡선을 타고 불에 그을린 군복을 입은 병사들, 배낭뿐인 정치공작대원, 홀로 남았던 간호원처녀와 부상병들이 가고 중절모를 눈두덩우에까지 눌러쓴 나 역시 무거운 발걸음을 북으로 옮겨가고있다.

발밑에서는 해묵은 락엽들과 함께 가끔 적들이 뿌린 뼈라도 밟히군한다. 눈아래 먼 대도로에서 적땅크들이 거만스럽게 포신을 돌려가며 먼지기등을 말아올리는것을 보게 되는 때도 적지 않았으니 적들도 북으로 북으로 밀려드는것이였다.

그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평행선과도 같은것이였다. 허나 수학상의 평행선은 사림점이 없어도 우리는 조만간에 어느 한곳에서 격렬한 판가리를 하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어느 령마루에서 문득 대오가 멎었다.

《왜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글쎄... 이제 알게 되겠지.》

마른 잔디밭으로 번져가는 불길처럼 웅성웅성하는 소음이 파도쳐오는 가운데 극도로 지쳤던 나

는 그만 선택로 잠들어버린다. 꿈결에서처럼 나는 《제2전선》, 《최고사령부의 명령》하는 청높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독립구분대들과 대오에서 떨어진 동무들은 새로 편성되는 부대에 편입하게 됩니다.》

나는 꿈을 꾸는듯했다. 가까이에 있던 전사들의 말소리도 귀결에 듣는다.

《뭐라구? 이제 뭐라 했나?》

《새 군복을 공급한대요. 야 정말 꿈만같지요?》

《면도부터 해야겠수다. 덕수아바이!》

《헌데 이걸 어떻게 민다? 면도칼을 잃었으니.》

《걱정할게 있소. 적후투쟁인데. 그것두 적들것을 뺏어써야지.》

누군가 엄한 목소리로 《조용하시오!》 하고 나직이 웨친다. 그러자 나는 아까의 청높은 목소리가 《여기에 악기를 다뤄본 동무들이 있으면 대렬 3보앞으로 나서시오!》 하고 웨치는것을 들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것은 그때였다. 모두 일시에 나를 바라보는것을 느꼈고 그러자 다음순간 나로서도 영문을 모르면서 몇걸음 앞으로 나섰다.

《동문... 누구신가요?》

새로 지은 솜동복을 가뜰히 줄라입은 젊은 소좌가 이렇게 묻자 독립려단참모장이 나를 대신하여 설명했다.

《작곡가선생이요. 종군나오던 길에 후퇴가 시작되어 아직 부대에 편입하지 못했소.》

《아, 그래요?》

젊은 소좌는 초라한 나의 행색을 눈여겨보더니 허로 입술을 감빨았다.

《좋습니다. 마침 잘됐군요. 이제 한동무 붙여 줄테니 가서 군단장동지를 만나십시오.》

《군단장동지름요?》 나는 놀랐다. 《군단장동지가 절... 찾는단말인가요?》

젊은 소좌는 웃었다.

《그렇만한 일이 있습니다. 군단장동지가 반가와할겁니다.》

소좌가 붙여준 자동총수와 같이 참모부로 찾아가던길에서야 나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자상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만나게 될 군단장은 얼마전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직접 만나뵙고 적후투쟁을 벌일 데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단장은 전락상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부대와 구분대들이 통과하게 될 주요 산릉선들에 군관들을 파하여 북으로 향한 대오를 멈춰세우고 최고사령부의 새로운 전투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적후투쟁을 위한 부대정비와 대렬편성사업을 시작하였다.

《군단장동진 우리들에게 악기를 다뤄본 사람들도 찾아내라고 명령했지요.》 자동총수의 말이였다. 《아마 군악대를 크게 조직하려는가봐요. 이틀전에 사단군악대가 하나 도착하긴 했는데 정원의 반수밖에 안되는 인원만 남았나요. 게다가 대고하고 또 무슨 큰 악기 하나는 형편없이 찢어지구 마사지구해서 췌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 보고를 듣자 군단장동진 무섭게 성을 냈지요.

《군악대장이 누구요?》 하고 불러내더니 <동문군악대장은 고사하고 우선 병사의 자격이 없소. 찢어졌건 쭈그러들었건 동무에겐 그게 무긴데 버리고 오다니. 그래 무기도 없이 오는 병사를 동문봤는가? 덜된녀석!》 하면서 당장 처벌을 주라고 명령했답니다.》

자동총수는 내가 저으기 놀라는 기색을 보이자 먼저 선량한 미소를 지어보이는 것이였다.

《선생님, 그렇다구 걱정하진 마십시오. 우리 군단장아바인 성이 낫을 때엔 범처럼 무섭다구들 하지만 그럴 사람들이야 따로 있지요. 우리 전사들 하구는 팔씨름도 곧 잘한답니다.》

물론 40고개를 바라보는 나하고는 팔씨름이 아니라 달리 나울것이 분명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쩐지 조마조마해지는 마음으로 내가 군단장을 만난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고삭은 초가이영들우에 동이만큼씩한 흰 박들이 무겁게 실려있는 농가들을 지나 전사는 군단장의 거처로 나를 데려갔다. 현대 공교롭게도 그때 군단장은 울바자처럼 둘러선 군관들앞에서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말하고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별의별놈들이 다 나타나거든. 그래 그 간상배놈들이 얼마나 흠쳐냈소?》

자동총을 거머쥔 중위가 대답했다,

《무려 두 달구지나 실어냈습니다.》

《취새기같은놈들! 인민들이 배를 굶으면서도 숨겨놓은 국가랑곡을 흠쳐가다니. 그래 어떻게 했소?》

《주모자놈은 처단했습니다.》

《잘했소. 우린 사람들에게 비록 적후이긴 하지만 인민군전사들이 있는곳엔 공화국정권이 있고 공화국의 법과 질서가 있다는걸 보여줘야 한단말이요!》

내가 군단장의 눈에 뜨인것은 그때였다. 그러나 몹시 흥분하였던 모양으로 그는 나를 얼핏 스쳐보고 다시 자동총을 거머쥔 중위에게 계속했다.

《전투경계를 대도로 계산까지 전개하십시오. 보란듯이 기관총들을 증강배치하고 한놈도 얼씬 못하게 하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 구분대들에서는 전투기술기재와 탄약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보고해야겠소. 특히 박격포와 반땅크총들은...》

여기서 군관들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이 다시 나에게 와 멎었다. 문득 하던 말을 끊고 군단장은 엄격한 눈초리로 부관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기회를 기다리던차인지라 부관은 재빠른 말씨로 나에게 대하여 보고했다.

《그렇소?》 군단장은 반색했다. 《반갑습니다. 음악가선생.》

좀 비뚤사하게 이마언저리쪽으로 구부러진 굵은 눈썹을 치켜들고 군단장은 나를 눈여겨보더니 물려서있던 군관들에게 좀 기다려달라는 의미의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때 웬일인지 나는 군단장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종절모에 자주 마뜩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듯이 느껴졌다.

《선생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보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러나 즉시 나는 대답을 달리했다.

《아니, 임무를 주십시오. 군단장동지.》

내가 병사들식으로 차렷자세까지 취해보이자 군단장은 실눈을 짓고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뒤에서있던 부관에게 급히 고개를 돌리며 목직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곧 군복을 공급하도록 하오. 벌써 그랬어야지... 종절모를 쓰구야 무슨 일을 해내겠소!》

그리하여 나는 군복을 입었다. 전시환경에 맞게 군단에서는 나에게 종군작곡가의 직분에 알맞는 대위의 군사칭호를 적용하기로 토의결정하였다.

《좋소. 아주 좋소!》 다시 군단장앞에 나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임무를 주겠소. 동무도 이미 들어 알겠지만 이제부터 우리 군단은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적후투쟁을 벌리게 되요. 여기서 동무가 할 일은 군악대를 하나 잘 꾸리는 거요. 음악가이니까 이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동무가 더 잘 알게요. 우선 임무에 착수하십시오. 사람들을 선발하고 부족한 악기를 보충할 안도 세우시오. 빠를수록 좋소. 제기되는게 있으면 직접 나한테 와도 되요. 모를게 있소?》

《알았습니다. 군단장동지!》

이리하여 나는 삽시에 종절모를 쓴 한 사민으로부터 군복입은 병사로 되었으니 나의 삶의 교향곡 2악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대렬일군들을 쫓아다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중절모를 쓰고 벗어섰던 산마루, 후퇴하는 부대와 구분대들이 통과하게 될 그 령길에도 나서게 되었다.

크고작은 구분대, 개별적전사들도 멈춰세운다. 장군님의 제2전선방침과 명령을 전하고 끝으로는 이렇게 호소한다.

《여기에 악기를 다뤄본 동무들이 있으면 대렬 3보앞으로 나서시오!》

기타, 하모니카, 퉁소를 분다고 하는 전사들은 흔했어도 내가 찾는 나팔수는 없었다. 다음날 저녁무렵에야 나는 책임자를 한명 찾았다.

어데선이 가혹한 결전을 치르었음에 틀림없는, 불에 그을리고 팔소매가 너덜너덜 찢겨진 보병대와 나는 마주 서있었다.

《동무들중에 악기를 다뤄본 동무가 있으면 나서시오!》

모두 자기 귀를 의심하는듯했다. 아마도 《장군님의 명령》 《적후투쟁》하는 충격적인 소식에서 불현듯 악사를 찾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엔 그들이 걸어온 천리로정을 더듬는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았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하고 나는 부르짖었다. 《그런 동무가 없습니까?》

마침내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중에서 얼굴이 거무스레하고 갱뿔한 소대장이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아, 동무요?》 하고 이미 여기서 중절모 쓴 나를 불러낸바 있던 젊은 소좌가 물었다. 《무슨 악기를 하오?》

《취주악기를 할줄 압니다. 하지만 난 소대장입니다. 공병소대장! ... 날 신호병으로 뽑아갈 생각이야 아니겠지요?》

나는 반색했다. 그런 책임자를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그런게 아니요. 지금 군악대를 조직하고 있소.》

나는 뜻밖에 나타난 책임자가 꿈결처럼 사라질까봐 겁내듯 팔을 벌리며 서둘러 다가갔다.

《가만!》

문득 공병소대장의 거칠고도 위압적인 목소리에 흠칫 벗어섰다.

《이제 뭐라구 했습니까. 그러니 날 거게루 끌어가자는겁니까?》

《끌구가다니... 그런게 아니요. 저...》

나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를 마주한 소대장의 눈빛은 감때사나왔다. 그는 마치 내가 자기의 무기를 뺏으려 한것처럼 권총집을 꼭 틀어잡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됐습니다. 다시 상기시키지만 전 소대장입니다. 그러구 당장 적후투쟁이 시작되는데 날 어디로 끌어간단말입니까.》

얼음장같은 침묵이 깃들었다. 차디찬 산바람이 불어지며 묵묵히 서있는 병사들의 어깨우에 가랑잎들을 쥐어뿌렸다.

그때 대렬 맨 끝쪽에서 누군가 《소대장동지, 가지 마십시오!》 하고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그 류다른 어조에 피곳 머리를 돌린 나는 간호원처녀에게 부촉되어있는 한 부상병, 그것도 두눈을 봉대로 감고있는 전사를 보았다. 앞못보는 그 전사는 가슴 한쪽을 한팔로 꼭 그러쥐기까지 했는데 그 절절한 몸짓이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가슴속울분을 터뜨려보이려는것과도 같았다.

《가지 마십시오. 소대장동지, 우리가 그런 일이나 하자구 이 먼길을 왔어요? 락동강에 묻고온 우리 동무들이 알면... 뭐라구 하겠습니까, 예!...》

고압전류가 흐르는듯 짜릿한 걱정이 파문지어오는 가운데 아무 말도 없이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있는 소대장을 대신하여 이번엔 간호원처녀가 입을 열었다.

《됐어요. 소대장동무가 가진 어데루 가겠어요. 락동강에서... 우리 같이 복수를 맹세하지 않았어요. 걱정 말아요. 소대장동문 그 어데두 가지 않아요.》

또다시 침묵... 나는 목구멍까지 좁아진것 같았다.

복으로 가던 구분대들을 척후전선으로 돌려세우는 리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온 젊은 소좌 역시 아무 말없이 묵묵히 서있었다. 그러자 우등지를 넓게 퍼든 단풍나무 저쪽에서 대오책임자인 듯한 군관이 더는 논의할것도 없다는듯 별안간 갈린 목소리로 구령을 웨쳤다.

《대대-좌로 돌았! ... 날따라 앞으로 갔!...》

대오는 룡선을 내리기 시작했다. 터슬터슬 짓겨진 군복자락들과 기관단총, 로획한 미식소총들이 눈앞으로 지나갔다.

나는 거칠고도 갱뿔한 공병소대장과 눈을 싸맨 전사 그리고 앞못보는 그를 꼭 부촉해가는 대오속의 유일한 처녀병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준엄한 전략적 일시적후퇴의 천리길을 헤쳐온 중대와 대대들의 한 축도였다...

젊은 소좌가 가까이 다가왔다.

《왜 설복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겠는데요.》

《...》

불시로 지금까지 잊고있던 줄움과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드는것을 느꼈다. 비로소 나는 적후투쟁이라는 간고하고도 무거운 임무에 비할 때 내가 하는일이란 극히 작은, 거의 보잘것없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작곡가로서의 나는 수백수천발의 총포탄에 비할바없는 전투적음악의 힘에 대하여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력설할수도 있다. 허나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필요하단말인가.

저 눈을 찌맨 전사에게? 아니면 자기 소대의 반수 이상을 잃고 풀무처럼 썩썩 단검을 내뿜고있는 저 소대장에게?...

나는 저도 모르게 똥신을 내린 대오를 따라갔다. 무엇때문에 그들을 따라섰던지... 공병소대장을 따라가 설복하고 요구하고싶었으나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대는 이미 독립려단의 여러 구분대들이 자리 잡은 마을로 가고있었다. 준엄한 전쟁의 포연이 아직도 이 산골짜기 외진 촌락에는 미치지 않은듯 굴뚝마다 미여지게 연기가 솟구쳐오르고 텅텅 샅샅이 여닫는소리에 개짖는 소리, 극성스럽게 밀려다니는 더벅머리애들의 새된 웨침소리로 부산스러웠다.

마을입구에서 대대는 벗어섰다. 지휘관들은 군복옷깃을 바짝 쥐여당기며 구령을 질렀고 전사들은 대오를 맞추었다. 바로 그때 나를 발견한 간호원처녀가 놀란 소리를 질렀다.

《어마나, 저 군관동지 봐요. 우릴...따라왔어요!》

그러자 눈을 찌맨 전사가 나 있는곳과는 전혀 반대쪽을 향해 머리를 핵 돌렸다.

《누구말이요. 예? 누가 따라왔단말입니까?》

《저... 아까 소대장동무더러 군악대에 가자고 하던...》

만약 그때 갱뿔한 공병소대장이 비난에 찬 눈길로 나를 쏘아보며 대렬에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극히 난처한 처지에 빠질변했다.

다시 대오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을 때 봉대로 눈을 찌맨 전사가 분개에 찬 음성으로 배알듯 말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제-길! 어떤 량반인지 한번 보기래두 했으면!...》

조약돌같이 날아온 그 말마디들을 들은 순간부터 더는 대오를 따라설념을 못했다. 비록 군복은 입었을망정 그들과 똑같은 구령에 발맞춰나가는 한 전사로 되기엔 상당한 간격이 있는듯싶었다.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대오까지는 불과 몇발자국 일것이나 그것은 내가 걸어온 인생행로의 전부와 맞먹는것일지도 모른다...

어데선가 호기있는 말투레질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어둑스레한 동구길로 말탄 두사람이 나타났다. 앞서 달려오던 기수가 나를 발견하고 먼저 고삐를 쥐여당겼다. 어슬쩍이었지만 모자에 두른 금줄로 미루어 그가 군단장임을 알아본 나는 황급히 길가턱에 비켜서며 모자를 벗어들었다.

《아, 음악가선생!》

군단장은 말에서 내리더니 뒤따라선 부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여기서 뒀하시오?》

그 은근한 어조로 미루어 나는 군단장이 똥을 하는것이라고 단정했다.

《군단장동지, 말씀을 낮추십시오. 전 선생이 아니라 그저 보통...》

군단장은 신중하게 침묵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연자망처럼 느리고 묵직한 그 어조에서 엄한 질책을 감촉했다.

《음악가선생, 선생과 똑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충고합니다만... 그건 중절모가 아니라 군모입니다.》

나는 그제서야 두손으로 받들고있던 군모를 황급히 눌러썼다.

《헌데 여기서 뒀하시오? 말은 일은 잘되어갑니까?》

나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분명치 않게 떠들거린 다음 방금 도착한 대대에서 적임자를 한명 찾긴 했었는데 그를 리해시킬수 없었던 사유를 꽤 길다랗게 늘어놓았다. 군대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 장황한 보고를 다 듣고난 군단장은 《흠, 흠》 하면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나에게 함께 걸자는 손짓을 했다.

《마침 나도 새로 도착한 대대에 가던길입니다. 그런데... 음악가선생, 이제 내가 지원포사격을 알맞춤히 해줄테니 다시 설복시켜보는데 어떻습니까?》

《...》

나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무슨 수로 어떻게 그 공병소대장이나 눈을 찌맨 전사를 감동시킬수 있으랴. 내가 재간껏 설복시켜본땀자 그것은 달빛처럼 빛은 있을지언정 열은 없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쓴맛을 본바 있는 나로서는 군단장이 《왜 용기가 나지 않는가요?》하고 물었을 때에조차 대답을 못하고말았다.

《허허... 역시 중절모로군.》 군단장은 걸음이 뜬 나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무람하지 마시오. 허물없이 하는 통이니...》

불시로 따듯한 신임과 우애가 나를 일싸주는듯리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를 만난 이래 군단장이라는 군사적직무를 넘두에 두지 않고 스스로없이 말할수 있었다.

《제가 말은 일이니 아무튼 꼭 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군단장은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그렇지만 음악가선생,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나는 보통 전사라구 해도 용감한 싸움군이면 존경하게 된단말이요.》

얼마후 나는 군단장과 함께 한때 민주선전실로 꾸린 청석기와집 퇴우에 앉아있었다. 술한 전사들이 우리를, 아니 군단장을 둘러싸고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단지 열성적인 한 청강생에 불과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그자리에서 군단장은 전사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오래도록 대대가 걸어

은 로정과 그들이 겪은 전투와 가슴속에 품고있던 생각들을 듣고있었다. 이야기도중에 군단장은 비좁게 둘러선 전사들 뒤쪽에 서있던 앞모 보는 전사를 발견하고 그를 가까이 불렀다.

《어데서 눈을 상했소?》

《락동장에서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상했습니다.》

전사의 대답은 낮았다. 그가 못다한 말을 갹뿔한 공병소대장이 이어주었다.

《군단장동지, 그때 놈들은 부교를 놓고 자동차 종대를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걸 폭파해버릴 임무를 받고 한개 구분대가 나갔는데…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엔 이 동무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 락동장에서 예까지 눈을 싸맨채 왔단 말이지!》 군단장의 음성 역시 낮았다. 《그 먼길을… 장하오!》

《아닙니다. 군단장동지.》 불현듯 전사는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 《전 그날 강기슭에 쓰러진채 일어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소대장동지와 이 간호원동지가 구원했습니다. 그리구 오늘까지 간호원동진… 천리길을 부축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태 애를 먹이기두 했지만 간호원동진…》

나는 처녀를 눈여겨보았다. 열어놓은 방문안쪽에 켜 광술불빛이 열추 비쳐준 처녀의 얼굴은 해쓱하니 여위였었다. 처녀는 다소곳이 눈길을 내려 깔고있었는데 그 파리한 어깨만으로도 얼마나 고된 길을 걸어왔겠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군단장도 더욱더 처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파리한 그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고맙소. 간호원, 정말 고맙소.》

《군단장동지!》

《고맙소, 나로서는 이 말밖엔 더 할게 없구만. 정말 동무야말로 용감한 전사구 훌륭한 간호원이요.》

처녀는 머리를 수그렸다.

《그래 군대나오기전에 뭘했소?》

《교원이었습니다.》

《교원?》

《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데 삼봉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음… 그러니 거게가 교장이겠지?》

《그렇습니다.》

처녀의 작은 어깨를 한동안 묵묵히 다독거리던 군단장은 이윽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엄숙히 말했다.

《간호원동무, 군단장의 권한으로 동무에게 감사를 줍니다!》

처녀는 허리를 펴면서 무어라고 재빨리 속삭였다. 군단장의 널찍한 잔등에 가리워있어 나는 그것을 푹푹히 가려들지 못했으나 성실한 복무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간호원의 직무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전사의 본분을 다할 굳은 결의를 말했으리라는것만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군단장은 계속했다.

《장군님께서 바로 동무들을 믿고 적후전선을 퍼시였소. 나어린 이 전사나 간호원과 같은 이런 전사들의 힘을 믿으시고 조성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여나가실 적후투쟁방침을 제시하시었소.》

크나큰 걱정을 말로는 다 표현할길 없는듯 군단장은 눈을 싸맨 전사와 간호원을 두팔로 힘껏 다그어안았다.

《어떻소, 힘들었지!… 피로울 때두 많았구. 응?… 그렇지만 이제부터 또다시 본대나게 싸우게 됐소. 제2전선이요! 시련도 많겠지만 우린 꼭 이겨!… 그러니 큰 싸움을 앞두고 동무들은 먼저 군의 소로 가야겠소. 이젠 명령이야. 가서 눈을 치료하라구… 왜 말이 없소?》

《군단장동지, 저를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두 눈을 살리지 못할바엔 동무들곁에서… 탄약이라두 섬겨주면서…》

《무슨 소리요? 눈을 살리지 못한다구 누가 그래? 무조건 살려내라구 군단장이 명령하는데두?!…》

그것은 무슨 일이건 명령만 내리면 오직 수행하는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있을수 있는 웅당한 본격이었다.

《할수 있소. 해낼거야. 그렇게 믿어야돼!… 내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적후에 제2전선을 퍼실 구상을 하실 때 장군님께서 뭐 따로 남겨둔 예비군단이라도 있어서 그런줄 아요? 보다싶이 군단장을 보냈을뿐이야. 그런데도 벌써 큰 군단이 조직되고있지 않는가!…

물론 동무는 대오에서 영영 떨어질가봐 그러겠지만… 걱정 말라구. 그동안 우린 대렬을 정비하고 대렬훈련도 하자는거요. 목표가 뚜렷하게 내다보일 때 사람들은 침착하게 걷는 법이거든. 그래 한편으로는 군악대도 보충하기 시작했소. 난 적후투쟁의 첫걸음을 열병행진으로부터 시작하자는거요. 장군님께서 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첫 사열식을 하실 때처럼 나팔을 울리며 열병식을 한단말이요. 말하자면 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의 첫걸음을 떼여주실 때 시범하여주신 그대로요!》

여기서 군단장은 잠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는듯 입가에 미소를 그리더니 불현듯 주먹을 내흔들며 박자를 쳐보였다.

동무들이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그의 입에서 뜻밖의 노래가 목직한 쇠소리로 울려나왔다.

《〈유격대행진곡〉이요. 조선혁명의 행진곡이지. 예나 지금이나 우린 이 곡조에 맞춰 걸어왔소. 그래 이번에도 〈유격대행진곡〉의 주악에 발맞

취 열병식을 한다음 거계서 곧장 싸움터로 나가자는거요. 알만한가? 장군님의 뜻으로 전 군단의 발걸음을 맞추어 출발한다는거요. 그런즉 제2전선의 포성은 〈유격대행진곡〉으로 시작되는셈이지…》

처음으로 군단장은 나를 돌아보았다.

《어떻소, 음악가선생?》

물론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거기에 보충할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솔직하게 말하여 작곡가인 나로서도 그렇듯 심오하고 명확하게 어느 곡조의 의의를 한두마디로 분석할념을 해본적이 없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군단장은 수척했으나 화기에 넘쳐있는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검사해서 말하는데 지금 군악대를 보충하자니 인원과 악기가 부족하오, 군악이 찢찢 울리지 않고서야 무슨 열병식이겠소. 동무들 가운데 혹시 책임자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악기를 구할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면 얼른 내놓소.》

짧은 시간에 방대한 사업을 조직해야 할 군단장으로서 분과 초들이 귀중한 때였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초조감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그의 모든 관심과 넘려는 군악대의 보충정비에만 귀착되어있는듯싶었다.

잠시후 전사들 가운데서 제일먼저 입을 연것은 간호원처녀에게 부촉되어있는 눈을 짜맨 전사였다.

《군단장동지, 책임자가 있습니다.》

군단장은 저으기 놀라는듯했다.

《그럼… 동무가?》

《아닙니다!》

이번엔 두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나는 살갗이 거무스레하고 눈초리가 날카로운 갱깃한 공병소대장이 한발 앞으로 나서는것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았다.

《소대장이? … 무얼 할줄 아오?》

《해방후 공장싸클에서 나팔도 불고 손풍금도 다뤄보았습니다.》

《그렇다? 하하… 아주 좋소.》

《그렇지만 군단장동지.》 하고 공병소대장은 나를 흘금 결눈질했다. 《전 절대 소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열병식이 끝나면 곧 돌아오게 허락해주십시오.》

《음…》

군단은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그럼 또 한가지 제기할수 있습니까?》

《뭐요?》

《부족한 악기도 해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80리쯤 가면 삼봉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관악기 한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간호원처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동무가 대준거지. 처녀교원?》

《그렇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허…》 군단장은 굵은 눈섭을 잔뜩 치켜올렸다. 《군단장이 묻는데 소대장한테만 귀뜸한다? … 이젠 도대체 언제부터 둘사이에 그런 버릇이 생겼소?》

가벼운 웃음이 물결치는 가운데 해쓱하던 처녀의 얼굴은 구은 가재빛으로 익어갔다.

《아닙니다. 군단장동지, 그런게 아니라 전 정말…》

몸둘바를 몰라하는 처녀의 얼굴에 광술불빛이 춤을 추며 어룡거렸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추억의 갈피에 깊이 새겨둔 처녀의 모습이였다.

이윽고 군단장은 충분히 휴식을 한 구분대전사들을 보낼수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하여 공병소대장은 필요한 악기를 수월히 골라올수 있도록 자기를 보내줄것과 역시 자기 대원들을 선발하게 해달라고 거듭 제기했다. 군단장은 승인했다. 끝으로 그는 대대의 지휘관인 상급부관을 불렀다.

《동문 즉시 독립려단참모부로 가시오. 대대는 독립려단에 배속되니만큼 거기서 차후지시를 받소. 그리고 식사후엔 저 전사동무를 군의소로 호송하도록 하오. 군의소엔 나도 말해주겠소.》

군단장이 떠나간 다음 얼마 안있어 특별임무를 받은 습격조가 선발되였다. 이런 일에 경험없는 나로서는 무엇을 도와야 할지 잘 몰랐지만 남보다 더 바빠 돌아치며 군사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술한 무익한 조언들을 주고 거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던중 공병소대장에게 대고만은 그러면 일이 있어도 구해달라는 부탁을 곱씹어하려고 그를 찾아가다가 우연히 그가 간호원처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동문 가지 않아도 될걸 그랬소. 지도에서 위치만 찍어주면 되겠는데》

소대장의 이 말에 처녀는 재빨리 속삭였다.

《안예요. 전 꼭 가야 해요.》

《마을사람들은 거계두 적들이 차지했다구 말하더구만.》

《그렇겠지요.》

《우린 혹 위험한 처지에 빠질는지도 모르요.》

《그릴수도 있겠지요.》

《제발 좀 심중히 들소.》

《걱정 마세요. 동무랑 함께 가는데… 다 잘 될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고집쟁이!》

《됐어요. 또 다투겠어요.》

어느 농가의 굴뚝쪽에서 철늦은 귀뚜라미의 애절한 하소연이 시작되자 울바자너머 저쪽에서 아직 잠들지 않은 병아리들이 정열적으로 화답하였다.

나는 돌아섰다. 날카로운 공병소대장과 비둘기처럼 결백한 그 간호원처녀가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왔는지 물론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엄혹한 시련의 날들에 그들의 우애가 싹트고 견고해졌으리라는것만은 서슴없이 말할수 있다.

그때 말탄 기수가 우리를 향해 곧장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나는 소대장에게 특별히 당부하려던 말을 끝내 못한채 그들을 바라봤을는지도 모른다.

말탄 기수는 군단장 부관이였다.

《작곡가선생, 어데 있습니까. 소대장동무나 간호원동문?...》

소대장이 소리쳐 대답하자 말에서 뛰어내린 그는 옷주머니에서 종이접이를 꺼내들었다.

《소대장동무, 군단장동지가 써준것이요. 간호원동무한테 특별히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교직원중 누구든 꼭 찾아서 전해주라더군요.》

우리는 머리를 모으고 부관이 커준 전지불에 종이를 퍼들었다. 크지 않은 종이였다. 달필로 품명과 수량을 써놓은 인수증... 놀람에 찬 눈길로 나는 그것을 거듭 읽었다.

...

우와 같은 수량을 정히 인수함.

1950년 10월 ○○일

조선인민군 제○○○군부대

부대장 ×××

간호원처녀는 그것을 정히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금 줄음과 피로를 잊었다. 나는 전사들과 어떻게 담화하며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때 《오다곡마단》의 나팔수로 있었다는 마사원아바이와 군악대출신으로서 경력을 숨기고 중기중대의 어엿한 부사수로 군적을 새로 올린 트롬본수까지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른새벽엔 군의소에 들렀다. 그때까지 눈을 싸맨 전사는 잠못들고있었다. 내가 자기 소개를 하기가 바쁘게 전사는 나의 두손을 더듬어 꼭 움켜잡았다.

《선생님, 어젠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말 마오. 내가 오히려... 그래서 찾아왔소. 그대 진찰은 받아봤소?》

《...》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점점 더 아프게 움켜잡는 손으로 미루어 나는 본의아니게 그의 아픈 상처를 찢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넘려 마십시오. 선생님.》 마침내 그가 하는 말이였다. 《다 잘될겁니다.》

다 잘될것이다! ... 지난밤 얼굴이 해쓷한 간호원처녀도 그렇게 속삭였었다...

《선생님, 이제 〈유격대행진곡〉이 우리에게 되면 나도 꼭... 가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꼭 오시오.》

《그런데... 왜 아직 아무 소식도 없을가요?》

나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불행보다도 적구로 떠나간 동지들의 신상을 넘려하여 잠 못드는 그의 유순하고도 뜨거운 마음에 눈곱이 찢터해짐을 느꼈다.

《곧 돌아올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구... 난 그렇게 믿소.》

부지불식간에 나 역시 간호원처녀가 하던 말을 그대로 옮긴것이였다...

공병소대장과 그 일행은 아침 늦게야 도착했다. 뒤늦게야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편곡하던것을 멈추고 민주선전실쪽으로 달려갔다.

먼저 토방마루에 놓여있는 나팔들과 대고를 본 순간 무작정 그것들을 한아름에 그리안을것처럼 다가갔다. 그러다... 문득 화석처럼 굳어져버렸다.

토방마루에 놓인 담가 그결에 말뚝처럼 박혀선 소대장과 전사들 그리고 끝으로 병사용 솜동복을 걸친채 담가의 머리말에 앉아있는 군단장을 보았다.

담가엔 간호원처녀가 누워있었다. 흐트러진 앞머리칼은 땀에 절은채로 이마에 달라붙어있었고 가까스로 쳐들린 한팔은 경련적으로 떨고있었다. 그 가는 팔회목을 군단장이 잡아주었다.

《군단장동지, 인수증은... 맡기고 왔습니다. 마침... 수위를 보던 아바이가 남아있어서...》

《응...》

《군단장동지, 군단장동진 몫시... 바쁘실텐데...저때문에 이렇게...》

《간호원, 난 네가 돌아왔다기에 우정 온거야.》

《고맙습니다. 군단장동지, 그런데 어서 행진곡이 울렸으면... 거기에 발맞춰 나두 같이...》

《그래 같이 가자.》 군단장의 목소리도 어느덧 갈려있었다. 《우리 발맞춰서 승리의 열병장까지 꼭... 같이 가자!》

처녀는 애써 미소를 그려보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마지막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그는 머리를 반쯤 쳐들며 누군가를 찾았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선 공병소대장의 거치른 손을 꼭 잡아쥐고는 그만 머리를 떨구고말았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처녀가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싸우다 치명상을 입었는지 다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 다만 위급한 순간 대고를 버리면 무사할수도 있었던 그때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것만을 들었다. 처녀는 그것을 버릴수 없었던것이다. 적후투쟁의 첫걸음을 찍어줄 행진곡은 그 북소리로 시작되는것이기때문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제2전선련합부대들은 《유격대행진곡》의 장쾌한 주악에 발맞춰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그날 전사들은 지금까지의 열병식관례에 없는 보병삽까지 허리에 찬 완전무장을 한 차림으로 기관총총차를 어깨에 멘채, 머리에 붕대를

감은채 열병식에 나섰고 그길로 곧장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날 전례가 없는 일은 또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군악대에 봉대로 두눈을 싸맨 대교수가 서있은 것이었다.

《나에게 복을 맡겨주십시오.》

열병식을 앞둔 전날 앞뚫보는 그 전사가 찾아와 한 말이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 그제 쉬운 일이 아닌줄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심장의 박동에 맞추면 될 게 아닙니까 !...》

...나는 그날의 열병식을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대열병행진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

다. 얼마나 많은 꿈과 소원, 못다한 임무와 념원이 저 전사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는것이라 ! ...

그날 적후에서 있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열병식에 나섰던 많은 전사들이 지금은 우리곁에 없다. 공병소대장은 후날 팔공산지역 적후투쟁시기 보병중대를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리고 제2전선연합부대들의 열병식을 사열하고 그들의 앞장에서 싸움터로 나갔던 그날의 군단장도 오늘은... 없다.

그러나 전투에서 용맹떨친 저 군기들과 나란히 그들은 나아가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되고 오늘도 계속되는 조선혁명의 첫 행진곡-《유격대행진곡》에 발맞춰 보무당당히 나가는 저 무적의 대오속에 그들은 살아있다! ...

잊지 못할 전우여

황승명

산벼랑에 붉게 타는 단풍을 보니
잊지 못할 지원군전우여
두고 간 그 마음이
갈수록 불타는가

그리워 조용히 더듬으면
이끼덮인 바위도 추억에 잠긴듯
류창한 그날의 나팔소리와 함께
정다운 그 모습이 눈앞에 어리누나

바위도 불에 타던 이 령마루
싸우는 우리를 돕자고
《항미원조》의 기치높이
달려온 그 길은
몇천 몇만리

고맙다는 우리의 인사말에
도리어 나무람을 앞세웠더라
항일의 기나긴 세월
중국의 광야에서도 함께 싸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손시늉 절반으로
주고받는 말은 짧았어도
마주보는 서로의 눈빛에는
얼마나 간절한
공동의 념원이 불타고있었던가

불타는 그 가슴으로 화구를 막으며
열어준 돌격로를 따라

만세 높이 달려갈 때
행복한 웃음을 입가에 날리며
바라보던 이 산천이여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밀보리 푸르른 사천성의 발머리나
유전의 탑들이 숲을 이룬
대경의 어느 구내길을 걸느냐

산기슭에 펼쳐진 저 과원을 보아도
행복의 웃음이 떨기져내리는
락원의 저 창가를 보아도
두고간 그 마음이
갈수록 꽃피는듯

아, 우리 함께 어깨결고
피로써 지켜낸 땅이기에
희망도, 미래도
하나의 념원속에 꽃피거니

그대들을 못잊는 우리의 이 마음
오늘도
4개현대화로
그 땅우에 함께 피어나고

우리를 못잊는 그대들의 마음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비약의 나래가 되어
이 땅우를 함께 날으네

나에게 다오

리효신

그대들을 찾아 나는 왔다
북부철길 위훈의 주인공들
시와 노래의 창조자들이여

내 어찌 먼저 펜을 돌려
나에게 다오
그 삶을, 그 정대, 그 쇄메를
그대들 그 무기 붓으로 삼고
벌써 내륙의 산야에 강하에
불같은 노래를 새겨오지 않았던가

나에게 다오
당의 뜻 꽃피워온 그 나날들에
청춘의 땀과 맥박 스며배인
혈육마냥 정들었을 그대들의 무기
잡기만 해도 툭 툭 피가 통할

그 열정의 무기를

나 또한 그붓
혁명의 필봉으로 잡고
그대들 새겨온 위훈의 노래를
소박하나 지성껏 시편에 담으리니
이 노래 순간이라도
청년영웅 그대들의 심장에 통한다면
시인된 나의 영에 얼마나 클것이라

아, 북부철길 열혈의 청년들이여
그대들처럼
원고지 아닌 온 조국강산에
전변의 노래 끝없이 수놓아가리니
나에게 다오
그대 청춘시인들의 그 심장의 붓을!

청춘과 행복

김휘조

여기서 멀어라 내 정든 집은
날 기다려 언제나 열려있던 문
조금만 늦어와도 왜 이제 오느냐
어머니 마중나오던 고향집은 멀어라

어디나 험한 산 손내밀면 달을듯
 시내물은 바쁜듯 발밑을 굴러가는
예와서 내 처음 더듬던 생각
내 어이 왔던가 집을 멀리 행복 멀리

허나 정녕 행복을 멀리 왔더나
오늘도 착암기 틀어쥐고
마음속에 묻는 생각
행복이란 무엇, 청춘의 행복이란 무엇

나의 일터여 험치 않구나

버들가지 휘늘어진 유보도로 걷던 걸음
차디찬 한겨울 눈을 헤쳐가는 길
길아닌 바위에 철길을 내며 가는 길

허지만 우리를 여기로 부른
당의 믿음 산보다 높고높은곳이여
내 만일 포근한 생각이 깃든
고향이 그리워 여기를 떠난다면
아들아 잘 왔구나 고향은 다정히
내앞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눈바람 가려주며 걱정도 많던
다심한 그 목소리로
《애야 수고했다》 살뜰한 이 한마디
어머니는 나에게 하지 않으리라
당앞에 아들구실 못한자식

내 어머니들 어이 사랑담아 부를거나
 나의 일터여, 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격대 친근한 내 동무들과 같이
 흔들리는 마음 연약한 마음은
 버럭과 함께 골짜기에 처넣고
 암벽이면 뚫고가리라, 눈이면 헤쳐가리라
 닦아놓은 길로만 걷는것이 어찌
 참된 행복이더냐
 바위우에 눈우에 찍은 내 발자국

굽이굽이 번쩍이는 철길로 남아
 아침저녁 조국의 재부를 실어올 때
 차바퀴소리 노래를 굴리며 올 때
 아, 나의 창조물
 시원히 뻗은, 철길을 바라보며
 나는 말하리라
 기쁨을 누리는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을 창조하는것이 정녕 행복이라고
 더 큰 행복을 찾아 나는 여기 왔다고

미 소

서동린

땀에 젖은 머리 시원히 감고
 처녀는 압록강가에 노을 안고서서
 그 검은머리 고이 빗어넘기며
 또 하루 더 굽이쳐간 로반을 바라보네

산허리 감아돌고 절벽턱을 누벼간
 멀리도 흘러간 그 길에서 눈길 못떼며
 처녀는 부푸는 마음 못견디는듯
 그윽히 미소를 짓네

피어나는 그 꿈, 그 기쁨 물어볼가
 내 다가가 말을 해보자 해도
 차마 다가가 묻지 못하겠네
 고여번지는 저 미소 흐리울가봐

헐치 않은 나날을 두줄기철길로 남겨놓고
 그우에 미소를 실어보는 처녀
 내 정녕 무엇을 묻고 말하랴
 처녀의 소리없는 미소
 내 듣고싶은 말 다 하고있는데

앞서걸은 자욱

강창영

내 처음 배낭을 풀던 자린가
 가슴을 불태우던 우등불자린가
 너는 첫 발파의 메아리로
 내 낯설은 자연과 첫 통성한곳

바위에 계곡에 푸른 덩불우에
 너는 청춘이 길을 내고 앞서간 자리
 북방의 장설우에, 눈얼음우에
 개척자들의 첫 발자취 찍어간 자리

수수천년을 잠자던 바위도
 광광 종발파로 흔들어깨우며
 가파로운 날벼랑우에
 험산 계곡우에
 구름을 헤집고 너를 이어놓았나니

돌이켜보면 가슴 후더웁구나
 첫 정을 박던 나날
 아득히 높아만 뵈던 산메부리도

이제는 내 뛰놀던 고향언덕처럼 정들었는가
너는 진한 땀을 흘리며 내 가슴이 넓어진 자리

품은 뜻과 주고받은 약속도
청년돌격대 붉은 기발아래서
아름다운 꿈으로 자라
너는 청춘의 한 계절이 굽이쳐간 자리
너는 빛나는 한 시점이 꽃피난 자리
한층 두층 웅벽을 쌓으며
한치 두치 암벽을 헤치며
너는 땅을 받드는 맘속에
드팀없는 주추돌을 고여주던 곳

너는 그 어느 구간에서나
엄격한 요구와 공정한 말로
성실한 나의 로동을 평가해주며

량심의 한점 그늘도 벗겨주었더라

때로는 시련의 암반이 되어
때로는 험악한 벼랑이 되어
나의 의지와 용감성을 시험하며
너는 나의 투지를 버려해주었더라

누구에게는 화선입당의 영예로
또 누구에겐 청년영웅의 칭호로
너는 청춘의 가슴가슴에
빛나는 새삶의 이정표를 새겨주었다

아 먼먼 세월이 흘러도
조국앞에 뿔뿔이 남길수 있는
너는 나의 량심이
억만년 흔들리지 않을 자리 !

개통렬차 달리는 그날에

권래여

옛말하며 돌아가자
개통렬차 달리는 그날
훈장과 메달을 절령거리며
오늘에 못다한 이야기 그날에 나누자

서로 다투던 승벽도
그날엔 끝을 보고
서로 숨기던 사랑도
그날엔 터놓고 다 말하자

한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젊은 날의 꿈을 나눈 벗들아
그날을 위해 너와 나 아낀것 있다면
우리 어찌 어깨결고 한차를 타고가랴

로반을 막아서는 천길벼랑끝에
너와 나 허리바 결기를 주저했다면
기다리는 고향집 정든 문턱을
우리 어찌 가벼이 넘어설수 있으랴

스무살 안팎에 먼길 떠나온 우리
작은 키를 탓하던 일 어제같아도
개통렬차 타고가는 그날엔
장가들기 맞춤형 나이되리니

아, 짧지 않은 세월의 눈비를 맞으며
이 철길에 바친 청춘을 두고
온 조국이 자랑하는 이야기
표창보다 더 뜨겁게 들을수 있는
뿔뿔한 영웅이 되어 다같이 돌아가자

까 치

리계심

우산장창작실 13각앞에는 푸른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듯한 림림하고도 수려한 뽕뿌라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갖가지 나무가 푸르청청한 우산장 끝안에서도 이 뽕뿌라나무는 류달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데 군사지휘관이 보면 대뜸 지도우의 독립수로 삼고 싶어할만큼 유묘하게 눈에 띈다.

이른봄이면 신록을 피우는 잎잎에 봄정기가 깃들어 비발치는 예지런듯 반짝거리는 그 발랄한 생기... 여름이면 윤택미를 자랑하는 그 호합진 잎잎에 무성하는 생명이 설레이고 찌는듯한 한여름에도 미풍을 실어오며 미소짓는 그 살랑거림...계절따라 자기 특유의 미모를 자랑하는 이 나무에서 겨울에는 또 색다른 운치를 찾아낼수 있었는데 2층집 모양의 두개의 까치둥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생활에도 리로우며 보기에 또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이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맵짠 날 아침에 창작실앞을 산책하던 나의 시선이 그 까치둥지에 가 멎었다. 그때 나에게는 하나의 의혹이 생겼다. 저 까치둥지를 어쩌서 나무중턱에 틀었을까 하는 동심과도 같은 질문을 나는 함께 걷고있던 동무에게 던졌다. 두만강기슭태생인 그 작가는 몹시 추운 겨울에는 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새들이 낮추 둥지를 튼다고 대답해주었다.그렇사한 소리라고 흥미있게 듣고있는데 뒤따라 오던 다른 동무가 우리의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그 까치둥지는 여러해전에 튼것인데 나무가 자꾸 자라다보니 중턱에 걸리게 되었다고 장담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후에 이 두 이야기중에서 어느게 옳은가 하는것은 까치자신이 증명하러 나선것 같은 감을 느끼게 되었다. 까치의 2층집에서 퍼그나 높은 붓끝같이 생긴 나무우듬지 가까이로 까치들이 연해연방 날아오르고있었다. 신통히도 부리마다에 가느다란 나무꼬챙이를 물고 가서 원줄기 아지사이에 가로세로 걸쳐놓고는 다시 어디론가 날아가는것이였다. 까치들의 성실한 로동에 의해 나무우듬지가 가까이에 탐탁한 둥지가 생겨났다. 까치들은 높은 아파트가 부러웠는지 나날이 변하는 도시와 마을을 한눈에 굽어보며 살고싶었는지 아니면 3층집에 세상을 내려는건지... 아무튼 이 추운 겨울에 우듬지

에 집을 지은 까치들은 된 추위를 예감해서 둥지를 낮추 틀었다고 하던 이야기를 반박한 결과를 가져온것이다. 이랬던저랬던 나에게는 이 나무에 까치의 3층집이 생긴것이 무등 기뻐다. 왜냐 하면 아침 까치의 울음소리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소리이기때문이다.

새벽에 까치가 울면 오늘은 어느 작가가 새 작품을 안고 오려나... 평양에서 그 무슨 새소식이 있려나... 혹시 집에서... 이처럼 은근히 희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에서 오는 생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헌데 옛날과 달라진것은 농촌이나 산촌에서만 들을수 있던까지의 울음소리를 평양의 한복판에서 자주 듣게 된것이다.

아빠트창문을 열면 대동강유보도 푸른 숲에 깃든 둥지에서 까치들이 새벽노을 비친 강반우로 무리지어 날아오르는것이 보인다. 까치들이 제 세상이 노라고 활개치는가싶다.

사람들과 전차들이 끊칠 사이 없는 큰길의 잔디밭에서 윤기 자르르한 긴 꼬리를 출라거리며 겁도 없이 자유로이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풀씨를 쪼아먹는 까치-

그것은 어린시절 고향마을에서만 보던 향수속의 까치가 아니였다. 일찌기 갓은 시름에 짓눌려 피는 물속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새의 울음에서나마 한가닥 희소식을 그려보던 그 마음을 안고올던 까치는 더더욱 아니였다.

나는 어느 봄날 아침에 진달래꽃이 떨어떨기 연두빛 잔디 언덕에 활짝 피어난 인민대학습당의 돌층계를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까각까각까각...》하고 요란스럽다 할만치 무리지어 울어에는 까치소리에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였다. 인민대학습당의 청기와 아름다운 추녀밑 란간에서 수십마리의 까치가 숨박꼭질하듯 한동안 희희낙락하더니 그 어떤 선물에 맞춰 춤이라도 추는듯 자못 흥겨웁게 대원무를 펼치고 돌아가는것을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가도 그 어떤 촬영가도 상상할수 없고 그릴수 없는 참으로 희한하고도 황홀한 화폭이며 기름진 전경이였다.

어쩌면!!...

저 까치들은 이 웅장화려한 청사를 저들의 보금자리로 여기는지... 저들이 마음껏 즐길수 있는 원무장이라고 생각했는지...

농촌이나 산촌과 떼어놓을수 없던 향토적색채가 농후한 추억속의 새가 어떻게 되어 변화한 수도평양 그 어디 가나 이렇듯 무리를 지어 깃들게 되었을까?

록음이 우거진 맑고 깨끗한 공원속의 도시, 리상속의 락원도와도 같이 아름다운 여기 평양에 깃든 새들의 우짖음...

새들이 락원을 새삼스래 발견한듯한 희열과 환희가 나를 떠받들어주었다.

록음이 하도 좋아서만 까치들이 모여드는것일까...?

까치도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념원속의 희소식이 아니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태어나는 새라 새로운 기쁜 소식 전하러 평양으로 날아오는것이겠지...

그리고 날에날마다 시각마다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그 사람 그 은덕을 환희와 감사에 넘쳐 노래하고싶어 모여드는것이겠지...

산촌의 뽕뿌라나무에 층층이 깃든 까치둥지를 두고, 향토색 짙은 새들의 대이동을 두고 내 마음은 나날이 꽃피어나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전변하는 우리 시대를 앞아가는 새시대 까치를 보는 심정이다. 그때면 내 마음은 저 푸른 하늘높이 설레이는 우산장의 무성하는 뽕뿌라인가싶다.

백두산의 여름길

조대현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먼먼 천리길이어도
즐거이 갈수 있는 길이라
혼자서도 갈수 있는 길이라

언제나 마음속에
고향길처럼 하야니 뻗어있어
온 나라가 신념과 의지로
넓고도 곧추 댕아놓은 길이라

백두산의 여름길은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푸른 이빨나무
천연의 병풍을 둘러친 길
한그루 나무조차도
투사의 모습으로 마중오더라

백두산의 여름날씨
해빛은 푸른 숲과 어울려 웃고
발밑에 부석은 옥돌같이 희더라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꽃
여기서는 여름 한철에 다 피더라

자주 내리는 백두산소나기
여기서는 그어가지 않더라

서서 맞아도 좋아
걸으며 맞아도 좋아

백두산의 여름길은
물으며 갈길도 아니더라
걸음마다 전적지로 이어진 길
답사행렬이 백두에로 꼭 닿은 길

짧어 한때나 걸을
그런 길은 더욱 아니더라
견고보면 다시 견고픈 길
못걸으면 일생에 한이 되는 길

백두산의 여름길 더없이 좋더라
구름장을 들부시며 내리친 저 우뢰는
항일의 령장 우리 수령님께서
15성상 올린 백두의 총성을
순간에 다 들려주려는가

푸르른 계절이건만
엄혹한 30년대
그 눈보라 시절을 못잊게 하는
백두산의 여름길이라

랑 만 외 2 편

백 하

두 그물 건지니
어장이 터질듯
목통마다 채웠건만
그래도 성차지 않아

방수복 걸친채 벌렁
흔들리는 사령탑우에 누우니
시원히 뻗친 장화코우에
금빛 달이 올라았는데

밤하늘에 허영게 내닫는
은하수의 별무리, 별무리...
마치도 정어리떼인양
이리 기울면 이리로 달리고
저리 기울면 저리로 쏠려

아, 저 푸른 하늘에

칠렁 그물을 던져
억만리 은하수도
한 기망에 모조리
건져내고싶음이어

종구나, 정어리잡이
기쁨은 바다에 넘치고
꿈은 하늘에 뻗쳐
랑만속에 사는 정어리잡이

바다를 다 푼들 성차라
하늘을 다 푼들 성차라
어버이수령님 불러주신
보람찬 정어리잡이에
담이 커지네
가슴이 넓어지네

하늘이 웃네 바다가 웃네

고기를 다 푸니
자주빛 그물 붓장밑에
흰눈이 내렸는가
옥진주가 깔렸는가

장화목이 빠지는
정어리의 은빛 비늘무지
숫눈길인양 폭폭
발목을 문으며 걸어보네

은구슬을 밟고가는듯
청보석을 헤쳐가는듯
아, 가슴에 터지는 환희
그 언제 이런 희열을 맛보라

건고 또 걸어보자
어버이수령님 펼쳐주신
정어리의 어장 가득히
《복눈》이 한자나 내렸구나

바다풍년이로다
정어리대풍이로다
눈처럼 쌓인 이 은비늘무지
온 조국땅에 보여주고만싶어

은구슬인양 듬뿍듬뿍
내 두손에 높이 떠올리니
하늘이 웃네 바다가 웃네
온 조국이 웃네

겨울나라에 왔노라

여름나라에서 곧장
겨울나라에 왔노라
배우에선 땀에 젖었더니
어허, 뼈속까지 얼어드는
랭동공장 저장실

한자나 앓은 성에
하얀 얼음벽사이로

휘영청 넓은 랭동실에 들어서니
산같이 쌓인 정어리판대기들
그물속에 감돌던
그 모양 그대로
얼음속에 잠들었구나

또다시 나의 눈앞엔
피리치며 움직이누나

정어리떼정어리떼...
바다의 정어리
여기에 다 밀려왔구나

봄, 여름에 찾아와
가을철엔 간다더니
겨울나라에 밀려든

이 나라의 정어리

아, 우리 수령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 크나큰 얼음집 지어
이 땅우에 사시절
정어리풍년을 펼쳐주시었구나

땅과 함께

리동후

흘러간 세월
흘러갈 앞날을 두고
한순간도 떼어서 생각한적 없다
땅과 함께 나의 삶 나의 운명
언제나 같이하고있음을

아마도 이처럼 흔들릴수 없는
내 가슴에 고인 진정은
나서 처음 고향산촌이 안겨준
맑은 물과 공기와 오향의 단즙을 마시며
내 넋을 키워온 탓인가

꽃이 피는 산천
록음질은 숲속의 시내가
무르익은 가을의 산언덕
고향이며, 너의 향수에 취해
내 단꿈을 꾸었나니

그 몇십세기 네우에 세월은 흘렀어도
이랑의 갈피갈피에
후더운 눈물과 피가 스배이고
원한 품고 쓰러지며 바라던 갈망
세상 그 누구도 시원히 풀어주지 못했더라

하지만 나는 보았다 처음
분여받은 제 땅에 씨를 뿌릴 때
고역에 절어 엉킨 이마의 주름을
장군님 사랑의 해발이 가져주는
환희로운 그해 그 봄을

나는 보았다
오향을 키우던 땅의 주인들
원쑤의 포화에 발이랑이 패일 때
서리발 총검높이 싸움터로 내달려
목숨으로 지켜낸 젊은이들을

아, 땅이며
진정 너는 씨를 뿌려
열매를 익히라고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었다

사랑과 증오의 격전속에 수호한
너는 계급의 전취물이였다

너를 빼앗기면
목숨도 고향도 잃는것
조국과 내 운명이 하나로 이어진
너는 삶의 영원이였고
우리의 소원이며 행복의 모든것이였다

그때문에 이른아침 들길에 나설 때
풀잎에 아롱진 이슬방울도
우리예겐 그토록 소중한 구슬로 보이고
들에 넘치는 기계화의 동음소리를
영원한 축복의 노래로 듣는것 아니던가

오, 그때문에 오늘도
무성하게 숲을 가꾸고
물길을 다스리며
파원의 열매를 익히는 마음들
당의 뜻 꽃피워감은
얼마나 보람차고 숭고한 사명이라

땅이며, 너의 훈향을 맡으며 자라
진정 이 가슴에
조국애의 싹이 트고
원쑤를 향한 저주의 불이 일고
너를 위한 열정 식어질줄 모르나니

나는 살리라
비 개인 하늘에 무지개가 비끼고
선경처럼 둘러앉은 마을길로
달마다 아름답한 행복이 실려오는
아름다운 락원의 요람들 위해

사랑도 기쁨도 함께 누리라고
청춘의 활력을 부어주는 나의 조국
바쳐가리, 그대 위한 나의 신념
영생의 진리로 새겨안고
땅이며, 영원히 너와 함께 !

시문학의 서정성에 대한 생각

조성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서정성

시론의 초석을 이루는 시의 본질적특성의 규정은 창작실천을 좌우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시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제문제들이 저마끔 다르게 창작실천에 구현되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세계 시문학사에서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각이한 규정과 이해에 의하여 각이한 시문학의 조류와 류파들이 나타났으며 시문학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간 례들이 허다하였다.

따라서 시론의 중요성을,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배일수 없으나 칼날에 날을 세워주는 솜술에 비기는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옳은 시론이 없이는 특히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옳은 리해가 없이는 창작실천에서 시문학의 개화는 기대할수 없다.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서정시로 하여금 서정시로 되게 하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독창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들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고전적정식화를 요약하면 시의 고유한 특성은 서정성이며 시란 곧 정서의 표현이라느것이다.

그러면 서정이란 무엇이며 정서란 무엇인가?

서정이란 주어진 대상에서 환기된 느낌과 생각, 회포 등 주관에서 생기는 감정심리적반응에 대한 일반적총칭이다.

정서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과 증오, 희망과 실망, 안정과 불안, 원한과 투지 등 주어진 대상에서 환기된 서정의 구체적표현이다.

서정성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여 그것이 시문학의 독점물인것은 아니다.

서정성은 문학의 정신인바 그것은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 관통하면서 혈액을 따라 순환하는 혈액순환이 인간생명을 부지하게 하는것처럼 문학에 생명을 부여하는 기본요소이다.

그것은 문학의 그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자체내에 주관적요인을 유기적으로 내포하고있는것과 관련되는바 묘사되는것에 대한 작가의 평가와 판단이

감정심리적반응으로 표현되며 그것이 없이는 예술적생명을 상실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서정성을 떠나서 문학은 존재하지 못한다. 시를 문학의 문학이라고 하며 문학의 어머니라고 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문학 일반을 관통하는 서정성이 어찌하여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되며 전자와 후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서정성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것은 시문학이 생활에 대한 열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그것이 생활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직접적이며 오직 정서를 통하여서만 표현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이여의 문학형태들에서는 서정성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차적인것은 아니며 더우기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시문학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차적일뿐만아니라 그것이 전부인것이다. 즉 시문학은 곧 서정이며 서정을 떠나서는 시문학은 존재할수 없다는 의미에서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서정성이라고 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시문학작품의 내용이 규정되는것이다.

서정시작품의 내용은 주어진 대상자체인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환기된 사상감정 즉 서정인것이다.

따라서 대상은 그자체로서는 의의를 가지지 못하며 모든것은 주관이 대상에 어떠한 의의를 부여하는가에 의존한다.

여기서는 주어진 대상이 주관속에 용해되어 변생하는것이다.

여기서는 그자체로서의 대상, 그자체로서의 생활현실이 시인에 의하여 인식된 서정적현실로 될 때에야만 의의를 가진다.

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서정성은 또한 서정적내용의 세분성을 규정한다.

시인은 동일한 시간에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속에 있을수 없다.

따라서 시인의 서정은 하나의 작품에서는 오직 주어진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점의것이며 그것을 넘을수 없다.

이로부터 개별적작품에서는 생활을 전개된 형식으로 전체포괄적으로 담을수 없으며 주어진 대상과 주어진 시점에서 일정하게 세분된 사상감정을 담을수 있을뿐이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서정성은 또한 서정시작품의 분량과 길이 즉 그 형식을 규정한다.

는 서정적묘사방식의 특성을 소홀히 하거나 여기였을 때에는 시의 본도에서 이탈하게 된다.

시에서의 사상과 서정성

문학에서의 사상 즉 형상적사상은 생활의 내용을 생활의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는 사상이다.

형상적사상은 사상의 논리적체계가 아니며 그것은 사상의 논리적체계보다 더 폭넓고 생동한것이다. 문학에서 사상적깊이와 넓이는 그 어떤 리론이나 지식의 길이와 넓이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에 대한 사상적 립장과 생활에 대한 해석의 형상적집오성과 파악의 예리성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꿰뚫지 못하고 읽고 들어서는 사상, 심장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사상은 죽은 사상이며 문학의 사상이 아니다.

문학의 사상은 논리적개념과 같이 감성적인 구체성을 털어버리고 추출하여 얻어지는 일반적인것과는 달리 감성적인 구체성을 그대로 보유한 일반적인것이다.

그것은 감성적형태를 띤 사상으로써 그 기초에는 감정, 정서가 놓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 정서적인것을 떠난 사상은 메마른 개념밖에 주지 못하며 추상성을 면할수 없다. 예술에서는 감정의 흐름을 타고 정서적으로 밝혀지는사상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며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는것이다.》

사상은 있으나 정서적바탕을 가지지 못한 사상은 문학의 사상이 아니며 그것은 메마른 개념밖에 주지 못하며 추상성을 면치 못한다.

문학의 사상은 감성적인 구체성을 가진 사상이며 정서를 통하여 밝혀지는 사상이다.

문학일반에서의 사상과 정서와의 호상관계는 이러하다.

이로부터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하는 시문학의 경우에 있어서 사상과 정서와의 유기적인 밀착관계의 절대성이 더욱 선명하게 된다.

정서를 떠난 사상,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는 사상은 시의 사상이 아니다. 시의 사상은 납득시키고 리해시키는 사상이 아니라 체험시키는 사상이며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사상이다.

시의 사상은 논리체계를 갖춘 그 어떤 사상이 아니며 묘사된 대상에 대하여 시인이 참가하는 설명이 아니다.

시의 사상은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는것도 아니며 시련의 어느 한 대목의 선언에서 부각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시형상전반의 정서를 통하여 밝혀지며 시가 끝났을 때 완전하게 밝혀지는것이다.

따라서 서정시작품에서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정서와 분리될수 없다.

훌륭한 서정시작품에서는 정서가 어디에서 끝나고 사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구별할수없다.

여기서는 정서가 사상을 부각시키고 사상이 정서를 타고 흐른다.

따라서 시의 사상이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오기 위하여서는 서정적구도가 감정선을 타고 감정조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언어적표현이 운물을 동반하여야 하며 그 성격은 서정적주인공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서정적성격은 대체로 서정적주인공 《나》를 통한대상에 대한 그의 평가와 서정적반응에서 표현된다. 서정적주인공 《나》를 시인자신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시인의 내면세계를 예술적일반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성격속에 구현한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시인은 자기의 형상들을 우연한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전형적인것으로 승화시킬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이 시인의 내면세계의 일반화된 성격으로서의 《나》로 제시되거나 제2인칭으로서의 《너》로 제시되거나 제3인칭으로서의 《그》로 제시되거나를 막론하고 서정적성격은 시인의 내면세계의 높이와 깊이의 표현이다.

왜냐 하면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하는 서정시작품에서는 시인은 자기자신의 내면세계를 개방하지 않고서는 시대정신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밝힐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소여 시의 사상정서적 높이와 깊이는 시인의 내면세계의 높이와 깊이에 의존한다. 그 시인의 시작품은 그 시인자신의 키를 넘을수 없다.

시인의 키는 그의 사상미학적준비정도에 따라 성장하며 그것은 그의 창작적사색의 높이와 깊이를 규정한다.

정서란 목적도 지향도 없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다. 정서는 사상의 표현이며 사상은 사색의 결실이다.

따라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서는 진지하고 심오한 창작적사색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깊이가 있고 감동을 주기 위하여서는 시인의 창작적사색이 깊고 진실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 시적사색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창작은 사색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심오한 창작적사색이 없이는 작품의 철학적심도를 기대할수 없다.

시인의 창작적사색 즉 시적사색은 창작적사색일반의 공통성과 함께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시적사색이 이여의 형상적사색과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그것이 서정적이며 정서화된 사색이라는 데 있다.

정서속에 용해된 사색만이 시적사색이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반응으로서의 정서적사색은 전개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밀도가 높은 압축된 형태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시적사색은 또한 정수적인것을 선별하고 그것에로 침투하는 사색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들은 자기가 체험한 생활감정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것만 담아야 하며 그것을 함축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해내야 한다.》

시에서 핵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끌어들이면 내용에 중심이 없게 된다.

시적사색은 자기가 체험한 생활감정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것만을 선별하고 모든것을 그에 복종시키며 그것을 정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사색이다.

시적사색은 또한 주어진 지적대상에 대한 정열적인 침투와 열정을 동반하는 사색이다. 여기서는 사색이 그대로 열정이며 열정이 그대로 사색이다.

때문에 시작품을 정열의 결정이며 열정의 결실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시에서의 사상과 서정성 그리고 서정성과 시적사색의 호상관계의 특성은 이상과 같다.

우리 시문학에서 만약 사상이 직선적으로 로출되어 읽을 맛이 없고 읽어볼 때뿐이고 한번 읽고나면 잊혀지고 뒤에 남는것이 없는 저조한 시작품들이 나타나고있다면 그것은 시의 사상을 사상일반과 동일시하며 시적사색을 사색일반과 혼돈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시의 사상은 심장에서 움트고 시적사색에 의하여 형태를 갖추는것이다.

시형상의 본질은 그것을 음미하는 과정에 시의 사상을 감성적으로 파악하게 하는데 있다.

심장에서 움튼것이 아니라 두뇌에서 생겨나고 모든 감성적요소를 털어버린 사유는 시인에게 필요치 않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은 줄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밝혀지는 시적사상은 줄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작품의 사상은 철학적이 아니라 구호적이며 시적사상이 아니라 논리적사상이다.

여기서는 사상이 직선적으로 설명과 서술로 도해되며 시문장은 음률적측면이 무시되고 의미적측면만이 강조된다.

이와 반대되는 다른 편향은 작품에 정서적분위기만 있고 사상이 모호한것이 그것이다.

시에서의 정서란 정서를 위한 정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으로서의 정서를 말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실주의예술에서는 예술가의 형상적사유과정에서 이성적인것을 절대화하는 리성주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감성적인것을 절대화하는 감성주의도 배격하며 오직 감성적인것과 이성적인것의 통일을 인정한다.》

시에서의 정서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상을 내포한 사상의 표현으로서의 정서일 때만이 가치를 가지는것이다. 리성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는 정서, 시인의 열정과 사상적반응의 표현으로 되지 않는 정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적정서가 아니다.

창작에서 사상은 현실에서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탐구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다. 더우기 대상자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표시하며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문학의 경우에 있어서 사상은 시인의 창작적사색에 의하여 탐구되며 획득되는것이다.

시인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면 하는것만큼 시의 사상은 깊어지고 풍부해지며 시인의 창작적사색의 깊이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거기에는 원소자인 대상자체밖에 남을것이란 없다. 결단 번치르르하고 무엇인가 심오한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의 행복상을 노래하라고 하면 행복이란 단어의 라벨로 시의 사상을 대치하는 작품들을 내놓게 되는것은 진지한 창작적사색을 기울이지 않는 안일한 창작태도에 기인하는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자에 제시된 그대로가 시의 전부이며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은 류사성을 면치 못하는바 거기에는 시인의 개성적인반응과 시인의 개성적인 창작적사색이 깃들어있지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복사이며 현상에 대한 기록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자연주의적경향인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작품의 사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시에서의 사상과 서정성의 호상관계와 시적사색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창작실천에서 그것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더 잘 구현하여 사상예술성 이 높은 우수한 서정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서정의 표현으로서의 정서는 순간적인 충동과 격정으로부터 흘러나오기때문에 길어질수 없다.

동일한 작품에서 한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정서로부터 다른 정서로 바꾸어 가지 않는 한 서정시작품은 짧막해질수밖에 없다.

짧막하기때문에 외우기 쉬우며 외우기 쉬운것은 시인이 체험한 순간적 충동과 격동을 독자 역시 순간적으로 체험하기때문이다.

이상의것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서정성의 기본내용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서정적묘사방식의 내용과 형식의 기본특성들이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어기었을 때 시는 자기본도에서 이탈되며 시 아닌 시가 나타나게 된다.

만약 시문학에 아직도 대상자체의 복사와 확인, 기록과 전달의 범위를 얼마 넘지 못하는 작품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로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하는 시문학의 서정적묘사방식의 특성에 대한 옳은 이해와 그것을 창작실천에 옳게 구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탐구가 부족한것과 관련된다.

아무리 의의있고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아무리 세련된 시문장형식으로 재생시켰다하여도 그것은 시가 아니다. 시인의 《묘술》은 대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에 있는것이다.

대상을 제시만하고 거기에 대하여 할말이 없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다.

서정시의 본도는 대상을 안고서 처음부터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서정적주정이다. 대상은 따로 제시되는것이 아니라 서정적으로속에서 밝혀지는것이다.

그러나 서정시에서도 서사적요소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장엄하고 아름다운 오늘의 우리 사회주의현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 경우에도 서정시작품에서는 대상자체의 제시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것만큼 독자들이 대상자체 즉 대상이 가지고있는 사건이나 이야기 등 서사적내용을 빨리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이것을 위하여 서정시작품에서는 제목에서 그것을 제시 혹은 암시하거나 그것으로 부족하면 제목아래에 부제를 달아 그것을 보충하거나 그것으로도 석연치 못할 때에는 한두련의 서정적정황 또는 서정적계기를 도입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대상이 가지는 의의와 아름다움 즉 대상자체의 내용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는 작품은 서정시로 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상에 대한 칭송과 찬양, 열렬한 호모와 사랑을 노래하는 송가나 대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 지지와 반감을 노래하는 정론시의 경우에는 대상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전면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상은 복사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역사적사실은 전달기록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시인의 립장과 관점, 견해와 주장 등 서정적조명에 의한 정서적착색을 띠고 나타나는것이다.

대상자체와 서사적내용이 보다 전면에 나서는 서정시나 담시의 경우에도 그것이 서정시인것만큼 역시 서정적묘사방식에서 례외로 될수 없다.

서정시는 많은 경우에 대상 그자체가 제시되며 시인의 주장과 서정적토로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서정시에서 의무적으로 시인의 견해나 주정토로를 덧붙일 때에는 서정시의 면모를 상실한다.

여기서는 서정성이 대상에 대한 선택과 그것을 취급하는 립장과 관점에서 나타나며 정서적인 묘사를 통하여 구현된다.

담시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시이다. 이것은 거의 대상자체의 전개이다.

여기서는 거의 시인의 간섭이 없이 서사적내용이 전개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것은 이야기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의 선택과 그것을 취급하는 립장과 관점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상감정이다. 따라서 아무리 흥미있고 기발한 이야기라고 하여도 그것이 야기시키는 사상감정이 정서적이고 의의있고 심오하지 못하다면 담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우리 시문학에서 아직도 서정이 메마르고 읽기에 따분한 장황한 작품들이 나타나는것도 역시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하는 시문학의 묘사방식의 특성을 옳게 살리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서정적묘사방식의 특성은 서정적내용의 세분성을 규정하며 이로부터 서정시작품은 길어질수 없는것이다.

물론 서정시작품의 길이는 그 서정적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길어질수 있으며 길어도 장황성을 알지 못하는 좋은 작품들이 적지 않다.

서정이 메마르고 읽기에 따분한 장황성은 대체로 주어진 구체적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을 전체포괄적으로, 전개된 형식으로 끌어들이거나 한 정서로부터 다른 정서로 옮겨지는것과 관련된다.

주어진 대상에서 촉발된 구체적감정에서 벗어나날 때 거기에는 추상적사변과 미사려구가 서정을 대신하게 마련이며 따라서 표현에서 서술과 설명을 면치 못하며 분량에서 장황성을 초래하게 되는것은 응당한 귀결로 된다.

송가나 정론시에서 역사를 종횡무진으로 포괄하며 생활의 이모저모를 폭넓게 취급하고있으나 그것이 서정시로 되는것은 역사와 생활을 전체포괄적으로 전개된 형식으로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역사와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립장과 태도, 그것을 한 시점에서 취급하고있는데 있는것이다.

따라서 서정시작품은 그 어느 형식을 막론하고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으로부터 흘러나오

가사

내 한생 못잊는것은

조성래

꿈도 많았던 내 젊은 그 시절
마음속에 간절히 그려본것은
아, 명예보다도
당원의 값높은 이름이었네

불비 헤치던 준엄한 그 나날
이 가슴에 소중한 간직한것은

아, 훈장보다도
당원의 깨끗한 량심이였네

참된 삶을 준 그 은정 고마워
자나깨나 내 한생 못잊는것은
아, 당에 들던 날
충성을 다지던 그 맹세여라

배 낭

황명성

끔끔히
안해는 배낭을 꾸려놓았다
틈틈한 말리와
팔애의 어깨에 메워도 보며

그 얼굴에 승엄한 빛을 지을 때
그 눈빛에 간절한 사연 담을 때
불비속을 헤쳐온 아버지인 나는
배낭속에 무엇을 넣어줘야 하는가

아직은 포화속을 걸어보지 못한
새세대 아들을 위해
시련이란 말로나 아는
행복동이 딸애를 위해

배낭속에 간직해야 하는것이
멀고먼 행군길에서, 쪽잡드는 속영지에서
때식을 끓일 비상미만이던가
몸덜힐 파스한 담요만이던가

내 술잎을 씹으며 배밀이하던 습격의 밤길도
감을 넘으며 불비속을 달리던

그날의 불같은 웨침도
다시 불러 아, 다시 불러
잊지 말라 새겨주어야 하리

땀에 젖고 흙물오른 배낭에서도
간곡한 이 마음을 느낄 때
아이들아, 너희 어깨에도 진정
조국의 운명이 실리였음을 알게 되리니

포연천리를 함께 갈 배낭속에
신성한 조국 위해 한목숨 바쳐싸울
수호자의 맹세를 다져넣어라 !

일 마친 저녁
스스로 배낭에 눈길을 박고
내 다시 결전의 준엄한 그 길을 불러
마음속에 안아보는 배낭

화분에 꽃피고 아이들의 웃음넘치여
내 집의 행복이 커갈수록
더더욱 벗을수 없는것이어서
배낭과 함께 내 마음을 넘겨주는구나